



관악구

관악구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이 연구는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의 연구용역비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관악구청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드립니다.

Contents

제1장 조사개요

01. 조사 목적	3
02. 조사 설계	3
03. 표본 설계	4
04. 조사 내용	5
05. 지수 산출 방법	7
06. 응답자 특성	7

제2장 조사결과 요약

01. 조사결과 종합	11
-------------------	----

제3장 세부 조사결과

01. 개인 생활	17
02. 건강	31
03. 안전	44
04. 사회적 관계망	53
05. 주거	62
06. 일자리	77
07. 프로그램 수요조사	90
08. 1인가구 지원정책	96

제4장 FGI 결과

01. 조사목적	109
02. 조사설계	109
03. 조사내용	110
04. 응답자 특성	111
05. 1인가구 대상 주요 의견수렴 결과	112
06. 1인가구 전문가그룹 주요 의견수렴 결과	114

제5장 정책제언

01. 1인가구 지원정책 운영현황	119
02. 관악구 1인가구 특성도출	134
03. 정책대상별 정책제언	137
04. 지역별 정책제언	142
05. 영역별 정책제언	144

별첨

01. 설문지	151
---------------	-----



1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관악구는 서울시내에서도 1인가구 증가율과 가구당 1인가구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이들의 주거 및 환경에 대한 수요와 전반적인 기초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됨.

연도별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1월
전체가구 수	249,191	274,811	276,597	281,491	284,786
1인가구 수	124,162	160,288	165,896	172,481	175,352
1인가구 비율	49.80%	58.30%	59.90%	61.30%	61.60%

- 본 조사는 관악구 1인가구의 일반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하여 주요 정책 분야별(4대 불안 요인) 분석에 따른 중장기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조사설계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악구 거주 성인 남,여(만 20세 이상) 1인가구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조사 (정량) ■ 전문 모더레이터를 활용한 FGI 조사 (정성)
유효 표본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 423명 ■ FGI 4그룹(청년층 1그룹 / 중장년층 1그룹 / 노년층 1그룹 / 전문가 1그룹)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08월 22일 ~ 2023년 09월 19일
표본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연령·지역별 층화표본추출 방법 - 관악구 1인 가구 인구통계 인구수에 따른 배분 후 각 지역에 대한 성·연령에 따른 추가 배분
조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마인더맵

3 표본설계

- 관악구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로 나타난 지역별 인구통계를 모집단으로 기준 산정함.

(2023.11월기준)

지역별	행정동	인구통계	인구분포	1인가구수	1인가구 구성비
북부권	신림동	18,929	6.6%	16,048	84.8%
	보라매동	12,995	4.6%	7,022	54.0%
	은천동	16,086	5.6%	7,627	47.4%
	중앙동	10,191	3.6%	7,237	71.0%
	청룡동	24,241	8.5%	17,666	72.9%
	합계	82,442	28.9%	55,600	67.4%
동부권	성현동	12,240	4.3%	4,267	34.9%
	청림동	6,405	2.2%	2,083	32.5%
	행운동	18,267	6.4%	12,221	66.9%
	낙성대동	12,009	4.2%	8,972	74.7%
	인현동	14,829	5.2%	8,953	60.4%
	남현동	9,905	3.5%	5,678	57.3%
합계	73,655	25.9%	42,174	57.3%	
남부권	서원동	15,111	5.3%	10,408	68.9%
	신원동	11,235	3.9%	7,393	65.8%
	서림동	15,186	5.3%	10,405	68.5%
	대학동	17,502	6.1%	13,403	76.6%
	삼성동	9,689	3.4%	4,093	42.2%
	합계	68,723	24.1%	45,702	66.5%
서부권	조원동	12,240	4.3%	7,862	64.2%
	신사동	14,428	5.1%	9,833	68.2%
	미성동	14,270	5.0%	6,237	43.7%
	난곡동	12,844	4.5%	5,983	46.6%
	난향동	6,184	2.2%	1,961	31.7%
	합계	59,966	21.1%	31,876	53.2%

- 본 조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동별 위치, 인구수 등을 감안한 4개 권역(북부권,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을 설정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함.
- 실 연령별 인구분포 비중에 따른 할당은 고려하지 않고 3개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청년층: 만 20세이상~30대, 중장년층: 40~50대, 노년층: 60세 이상) 균등 할당하여 표본을 설정함.

4 조사내용

차원		측정 문항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혼인상태, 자녀 유무, 최종학력, 주택 유형 ✓ 건강보험 가입 여부, 월평균 소득, 반려동물
일반 현황	개인 생활	✓ 혼자 생활하기 시작한 기간
		✓ 혼자 생활하기 시작한 이유
		✓ 1인가구 만족도
		✓ 1인가구 불편 정도
		✓ 1인 가구 고충(경제적 어려움, 안전 우려, 외로움, 노후/임종, 일상생활, 집안일, 주거 관리, 위급상황 우려, 비동거 가족지원, 편견)
		✓ '돈', '시간' 부족 이유
		✓ 1인가구 지속 여부
	여가	✓ 현재 주로 하는 활동
		✓ 희망하는 활동
		✓ 여가활동 만족도
		✓ 여가를 함께 보내는 사람
		✓ 여가시간 충분 정도
		✓ 관악구 여가시설 충분 정도
		✓ 여가활동 어려운 이유
주거	✓ 주택 소유형태	
	✓ 주거비 부담(월세, 사글세, 주택 대출금 이자)	
	✓ 주택 만족도	
	✓ 불만족 이유	
	✓ 현 주거지 선택이유	
	✓ 주택 선택 시 어려운 점	
	✓ 주거상태 만족도	
	✓ 주거상태 만족도 저해 요인	
	✓ 이주 의향	
	✓ 이주하려는 이유	
✓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정책		
경제	✓ 현재 직종	
	✓ 고용형태	
	✓ 무직 이유	
	✓ 주 수입원	
	✓ 경제상태	
	✓ 지출이 가장 큰 항목	
	✓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 일자리 사업 참여 이유	
	✓ 일자리 사업 만족도(경제적 도움 정도, 근무 강도, 근무 시간)	
	✓ 일자리 사업 불참 이유	
	✓ 가장 필요한 경제지원정책	
✓ 경제 안심 분야 주요지원사업		

차원		측정 문항	
안전		✓ 주택 및 주변 환경 안정성도	
		✓ 거주지 불안 요인	
		✓ 가장 필요한 1인 가구 안전 지원정책	
		✓ 안전 분야 주요지원사업	
건강	신체 건강	✓ 건강상태 느끼는 정도(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함, 가족의 부재,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족, 운동시간 부족, 피로감 및 건강 이상 증세)	
		✓ 식사 해결 방법	
		✓ 식사 고려요인	
		✓ 건강한 식생활 어려운 이유	
		✓ 운동빈도	
		✓ 운동 고려요인	
		✓ 가장 필요한 1인 가구 신체 건강지원정책	
	마음 건강	✓ 마음 건강 느끼는 정도(우울감, 불안감, 외로움, 자살, 신경 예민 및 스트레스)	
		✓ 마음 건강 주요요인	
		✓ 가장 필요한 1인가구 마음 건강 지원정책	
		✓ 마음 건강 분야 주요 지원사업	
			✓ 고민이나 어려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소통의 빈도와 방법
			✓ 자주 소통하지 않는 이유(부모, 형제·자매, 자녀, 친구)
사회적 관계망		✓ 활동했던 사회단체나 모임	
		✓ 1인가구 정보교류의 장 필요성	
		✓ 사회적 모임 고려사항	
		✓ 가장 필요한 문화 및 사회적 지원체계 정책	
		✓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	
	프로그램 수요조사		✓ 이용 경험(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 50+센터, 평생학습관, 복지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정신건강 복지센터, 취업 지원센터)
			✓ 이용해본 프로그램
			✓ 정책정보 경로
		✓ 프로그램 우선 고려사항	
1인가구 지원정책		✓ 1인가구 지원정책 충분도	
		✓ 가장 시급한 1인가구 지원정책	
		✓ 자립 지원 프로그램	
		✓ 여가/일상생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실생활 도움도	

5 지수 산출방법

- 각 항목별 평점은 리커드 척도의 5점 척도를 활용했으며, 매우 부정을 0점, 매우 긍정을 100점으로 설정하여 100점 만점 평균으로 환산함.

응답 번호	1	2	3	4	5
응답 내용	매우 긍정			매우 부정	
100점 환산	100점	75점	50점	25점	0점

- '신체건강', '마음건강' 항목별 평점은 부정적 항목에 대해 '느끼지 않음' 0점, 빈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부정형 질문으로 100점 만점 평균으로 환산 시 점수가 높을수록 좋지 않음.

응답 번호	1	2	3	4	5
응답 내용	거의 매일	주3~4회	주1~2회	월1~2회	느끼지 않음
100점 환산	100점	75점	50점	25점	0점

6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423)	100.0
성별	남자	(211)	49.9
	여자	(212)	50.1
연령층	청년층	(138)	32.6
	중장년층	(140)	33.1
	노년층	(145)	34.3
지역별	북부권	(118)	27.9
	동부권	(101)	23.9
	남부권	(103)	24.3
	서부권	(101)	23.9
학력	무학	(4)	0.9
	초등학교	(26)	6.1
	중학교	(37)	8.7
	고등학교	(107)	25.3
	대학(4년제 미만)	(68)	16.1
	대학(4년제 이상)	(166)	39.2
	대학원(석사)	(11)	2.6
	대학원(박사)	(4)	0.9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423)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81)	19.1
	아파트	(40)	9.5
	오피스텔	(51)	12.1
	다세대주택(빌라)	(154)	36.4
	반지하	(27)	6.4
	고시원/원룸	(64)	15.1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상가, 공장 등)	(5)	1.2
	기타	(1)	0.2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36.2
	200~300만 원	(156)	36.9
	300~400만 원	(76)	18.0
	400만 원 이상	(38)	9.0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11.1
	2~3년	(61)	14.4
	4~5년	(67)	15.8
	6~10년	(116)	27.4
	11년 이상	(132)	31.2



2장. 조사결과 요약

1 조사결과 종합

1. 1인가구 개인생활 및 여가생활 만족도

- 1인가구 개인생활 만족도는 59.9점으로 조사됨.
- 그 다음으로 1인가구 불편 정도(56.4점) > 관악구 여가시설 충분도(56.1점) > 여가시간 충분도(55.6점) > 여가활동 만족도(51.7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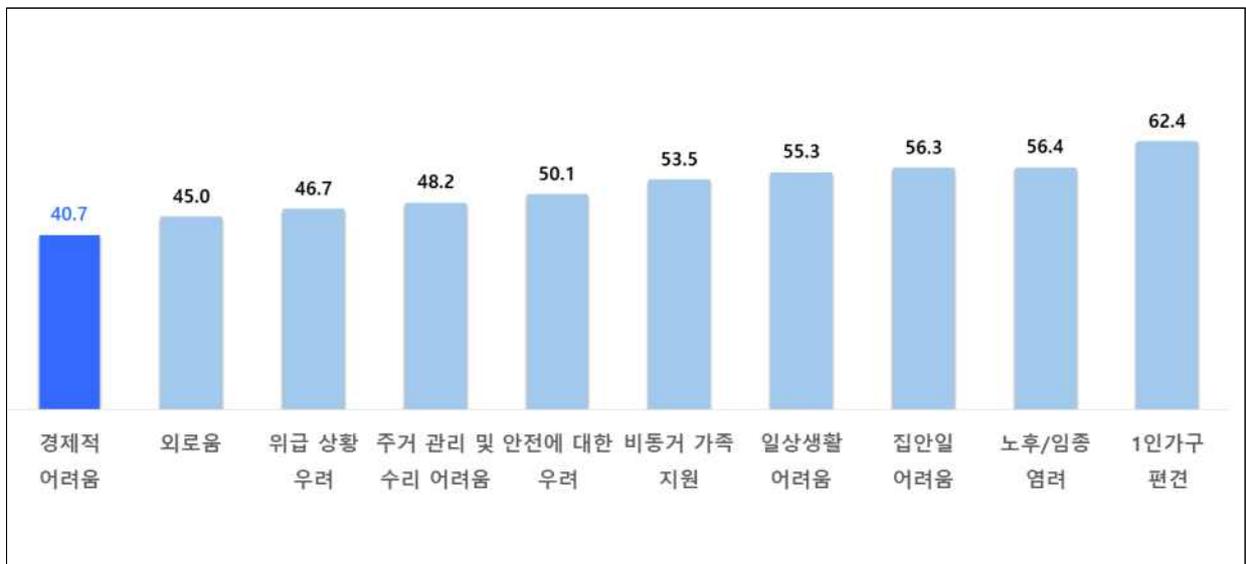
(Base: 전체, 423명 단위 : 점(100점 만점))



2. 1인가구 고충

- 1인가구 고충의 경우 100점으로 점수 환산 시 '경제적 어려움'이 40.7점으로 가장 큰 고충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외로움 45.0점' 순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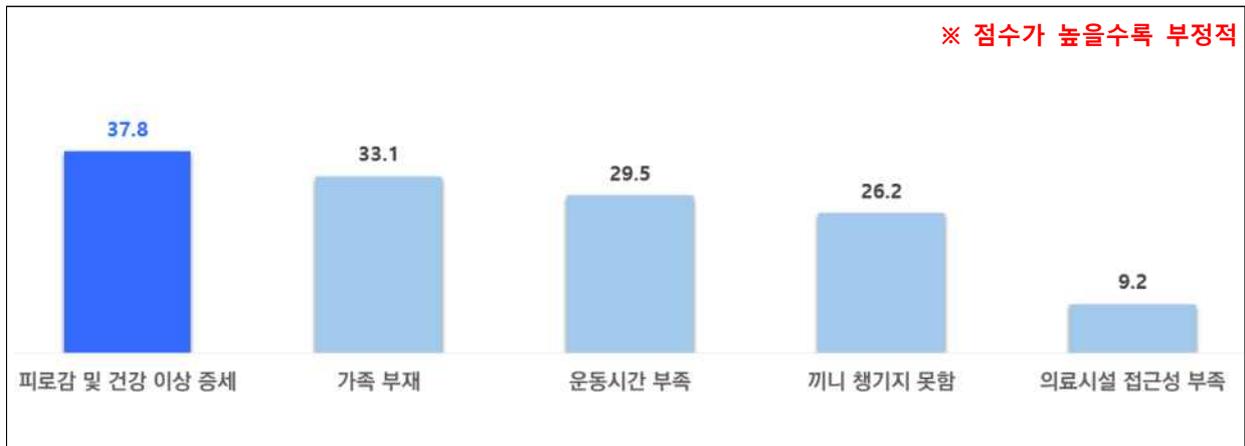
(Base: 전체, 423명 단위 : 점(100점 만점))



3. 1인가구 신체 건강(식생활/운동) - 부정형 질문

- '신체 건강(식생활/운동)' 항목들에서는 '피로감 및 건강이상 증세'가 37.8점으로 가장 높고 '가족의 부재'가 33.1점, '운동시간 부족'이 29.5점 순으로 조사되었음, 의료시설 접근성 부족의 경우 답변빈도가 낮아 9.2점으로 의료시설 접근성은 매우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Base: 전체, 423명 단위: 점(100점 만점))



4. 1인가구 마음 건강 - 부정형 질문

- '마음 건강' 항목들에 대한 점수로 환산 시 '외로움'이 32.4점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신경예민 및 스트레스' 28.1점, '우울감' 27.7점 순으로 조사되었음

(Base : 전체, 423명 단위 : 점(100점 만점))



5. 1인가구 안전 정도

- 1인가구 안전 정도에 대하여 49.6점으로 다소 안전하지 않다는 수준으로 나타남.
- 거주지가 불안한 원인으로 '골목길, 주택 주변 유흥업소, 우범지역 등 주거지의 위치'가 29.0%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골목길 안심 시설물 부족'(17.0%) > 'CCTV, 출입구 보안 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16.0%) > '지하, 반지하, 저층 등 외부에서의 침입이 용이한 위치'(12.0%)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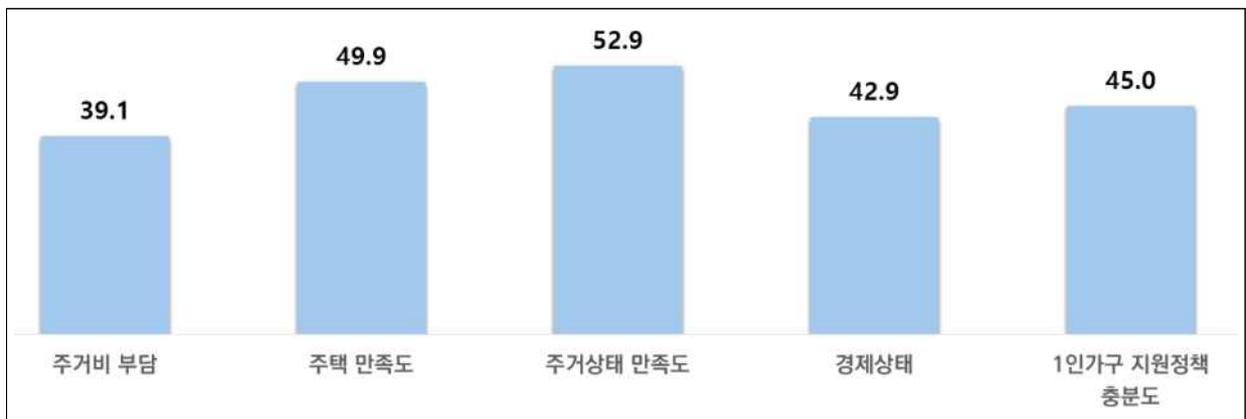
(Base : 전체, 423명 단위 : 점(100점 만점), %)



6. 1인가구 주거 및 경제상태 만족도·1인가구 지원정책 충분도

- 1인가구 주거 및 경제상태 만족도는 각각 52.9점, 42.9점으로 조사됨.
- 1인가구 지원정책 충분도는 45.0점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423명 단위 : 점(10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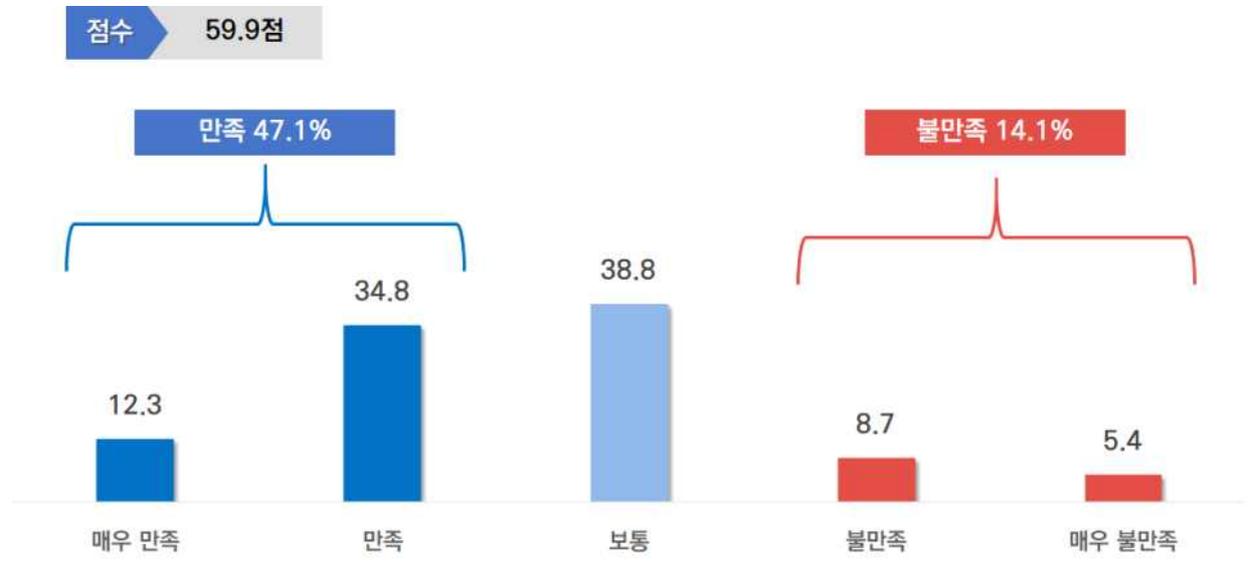
3장. 세부 조사결과

1 개인 생활

① 1인가구 만족도

- 1인가구 만족도는 59.9점으로 나타남.
- 1인가구 만족도에 대해 47.1%('매우 만족' 12.3% + '만족' 34.8%)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38.8%), 부정적 반응은 14.1%(매우 불만족 5.4% + 불만족 8.7%)로 조사됨.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단위 : %, 점(100점 환산)]



[응답자 특성별]

- 응답자 특성 중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70.3점) > '중장년층'(60.2점) > '노년층'(49.8점) 순으로 만족도가 낮아져 나이가 들수록 1인가구 만족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동부권'이 65.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북부권'이 60.4점, '서부권' 58.9점, '남부권' 54.6점 순으로 조사됨.
-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1인가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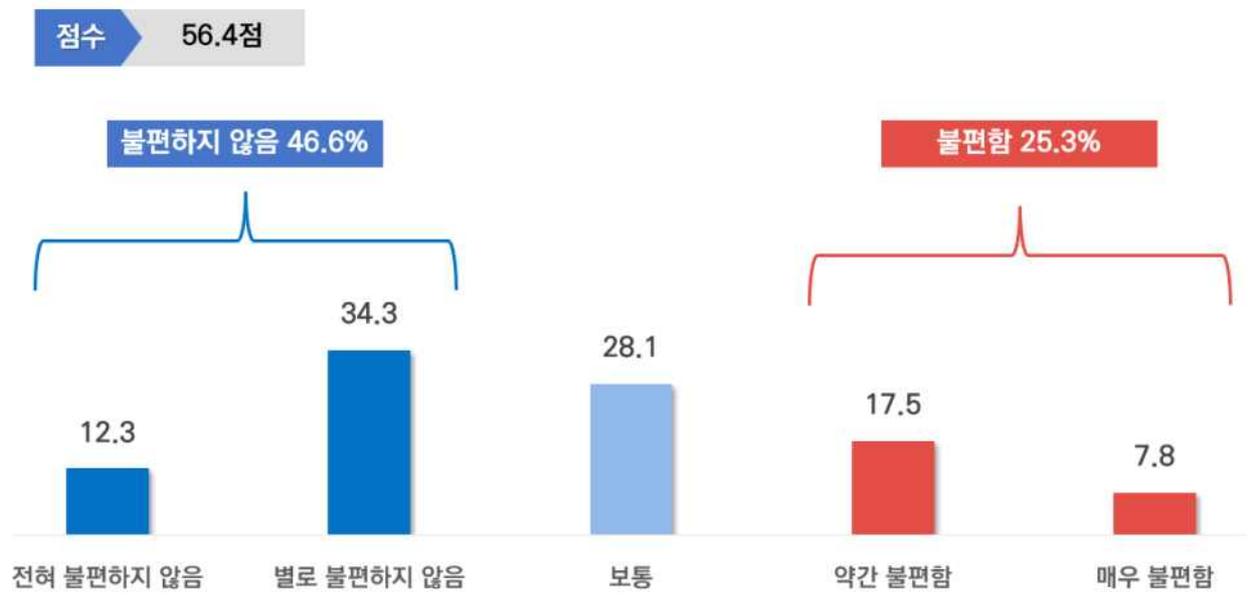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TOP2	MIDDLE	BOT2	평점
전체		(423)	12.3	34.8	38.8	8.7	5.4	47.0	38.8	14.2	59.9
성별	남성	(211)	8.5	32.2	37.0	14.2	8.1	40.8	37.0	22.3	54.7
	여성	(212)	16.0	37.3	40.6	3.3	2.8	53.3	40.6	6.1	65.1
연령	청년층	(138)	25.4	36.2	34.1	2.9	1.4	61.6	34.1	4.3	70.3
	중장년층	(140)	8.6	41.4	37.9	6.4	5.7	50.0	37.9	12.1	60.2
	노년층	(145)	3.4	26.9	44.1	16.6	9.0	30.3	44.1	25.5	49.8
지역	북부권	(118)	12.7	40.7	31.4	5.9	9.3	53.4	31.4	15.3	60.4
	동부권	(101)	11.9	43.6	40.6	4.0	0.0	55.4	40.6	4.0	65.8
	남부권	(103)	12.6	20.4	46.6	13.6	6.8	33.0	46.6	20.4	54.6
	서부권	(101)	11.9	33.7	37.6	11.9	5.0	45.5	37.6	16.8	58.9
최종 학력	무학	(4)	0.0	25.0	25.0	0.0	50.0	25.0	25.0	50.0	31.3
	초등학교	(26)	0.0	34.6	42.3	15.4	7.7	34.6	42.3	23.1	51.0
	중학교	(37)	0.0	35.1	37.8	10.8	16.2	35.1	37.8	27.0	48.0
	고등학교	(107)	6.5	30.8	43.0	11.2	8.4	37.4	43.0	19.6	54.0
	대학(4년제 미만)	(68)	14.7	38.2	41.2	5.9	0.0	52.9	41.2	5.9	65.4
	대학(4년제 이상)	(166)	16.9	38.6	34.3	7.8	2.4	55.4	34.3	10.2	64.9
	대학원(석사)	(11)	36.4	9.1	54.5	0.0	0.0	45.5	54.5	0.0	70.5
	대학원(박사)	(4)	75.0	0.0	25.0	0.0	0.0	75.0	25.0	0.0	87.5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7.4	27.2	48.1	8.6	8.6	34.6	48.1	17.3	54.0
	아파트	(40)	17.5	47.5	32.5	2.5	0.0	65.0	32.5	2.5	70.0
	오피스텔	(51)	15.7	35.3	41.2	3.9	3.9	51.0	41.2	7.8	63.7
	다세대주택(빌라)	(154)	12.3	38.3	39.0	7.1	3.2	50.6	39.0	10.4	62.3
	반지하	(27)	3.7	22.2	33.3	25.9	14.8	25.9	33.3	40.7	43.5
	고시원/원룸	(64)	15.6	32.8	29.7	14.1	7.8	48.4	29.7	21.9	58.6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40.0	40.0	0.0	0.0	60.0	40.0	0.0	70.0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5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7.8	34.6	37.3	11.1	9.2	42.5	37.3	20.3	55.2
	200~300만 원	(156)	10.3	33.3	42.9	9.6	3.8	43.6	42.9	13.5	59.1
	300~400만 원	(76)	19.7	34.2	39.5	5.3	1.3	53.9	39.5	6.6	66.4
	400만 원 이상	(38)	23.7	42.1	26.3	2.6	5.3	65.8	26.3	7.9	69.1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14.9	42.6	31.9	2.1	8.5	57.4	31.9	10.6	63.3
	2~3년	(61)	11.5	36.1	34.4	13.1	4.9	47.5	34.4	18.0	59.0
	4~5년	(67)	10.4	29.9	47.8	9.0	3.0	40.3	47.8	11.9	59.0
	6~10년	(116)	12.1	37.9	37.1	8.6	4.3	50.0	37.1	12.9	61.2
	11년 이상	(132)	12.9	31.1	40.2	9.1	6.8	43.9	40.2	15.9	58.5

② 1인가구 불편 정도

- 1인가구 불편 정도에 대한 평점은 56.4점으로 나타남.
- 1인가구 불편 정도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이 46.6%(전혀 불편하지 않음 12.3% + 별로 불편하지 않음 34.3%)로 높게 나타남.
- 보통이 28.1%, 불편하다는 의견은 25.3%(매우 불편함 7.8% + 약간 불편함 17.5%)로 조사됨.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단위 : %, 점(100점 환산)]



[응답자 특성별]

- 응답자 특성 중 연령의 경우 '청년층'(61.1점) > '중장년층'(60.9점) > '노년층' (47.8점) 순으로 나이가 들수록 1인가구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동부권'이 61.4점으로 가장 높아 양호했으며, 그 다음으로 '북부권'이 60.0점, '서부권' 59.2점, '남부권' 44.9점 순으로 조사되어 남부권에서 불편도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주택 유형의 경우 '아파트'는 62.5점으로 높지만, '반지하'는 49.1점으로 낮아 주택 유형에 따른 불편 정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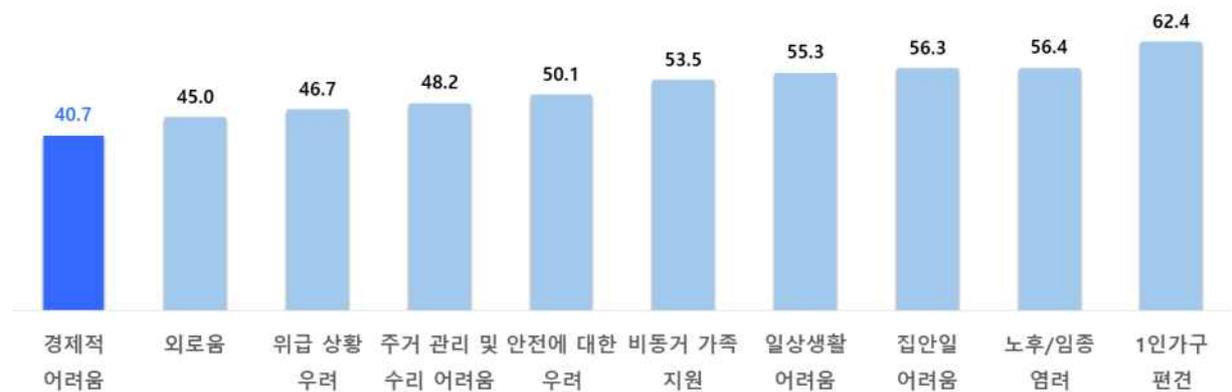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불편하지 않음	별로 불편하지 않음	보통	약간 불편함	매우 불편함	TOP2	MIDDLE	BOT2	평점
전체		(423)	12.3	34.3	28.1	17.5	7.8	46.6	28.1	25.3	56.4
성별	남성	(211)	10.0	30.8	27.0	21.3	10.9	40.8	27.0	32.2	51.9
	여성	(212)	14.6	37.7	29.2	13.7	4.7	52.4	29.2	18.4	61.0
연령	청년층	(138)	17.4	35.5	27.5	13.0	6.5	52.9	27.5	19.6	61.1
	중장년층	(140)	12.1	42.1	27.9	12.9	5.0	54.3	27.9	17.9	60.9
	노년층	(145)	7.6	25.5	29.0	26.2	11.7	33.1	29.0	37.9	47.8
지역	북부권	(118)	17.8	36.4	22.9	13.6	9.3	54.2	22.9	22.9	60.0
	동부권	(101)	12.9	37.6	34.7	11.9	3.0	50.5	34.7	14.9	61.4
	남부권	(103)	6.8	20.4	31.1	29.1	12.6	27.2	31.1	41.7	44.9
	서부권	(101)	10.9	42.6	24.8	15.8	5.9	53.5	24.8	21.8	59.2
최종 학력	무학	(4)	0.0	0.0	25.0	25.0	50.0	0.0	25.0	75.0	18.8
	초등학교	(26)	0.0	34.6	34.6	23.1	7.7	34.6	34.6	30.8	49.0
	중학교	(37)	2.7	35.1	18.9	29.7	13.5	37.8	18.9	43.2	45.9
	고등학교	(107)	11.2	26.2	30.8	21.5	10.3	37.4	30.8	31.8	51.6
	대학(4년제 미만)	(68)	19.1	39.7	27.9	11.8	1.5	58.8	27.9	13.2	65.8
	대학(4년제 이상)	(166)	13.3	38.0	27.7	14.5	6.6	51.2	27.7	21.1	59.2
	대학원(석사)	(11)	27.3	27.3	27.3	9.1	9.1	54.5	27.3	18.2	63.6
	대학원(박사)	(4)	25.0	50.0	25.0	0.0	0.0	75.0	25.0	0.0	75.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6.2	35.8	30.9	19.8	7.4	42.0	30.9	27.2	53.4
	아파트	(40)	17.5	35.0	30.0	15.0	2.5	52.5	30.0	17.5	62.5
	오피스텔	(51)	9.8	41.2	29.4	15.7	3.9	51.0	29.4	19.6	59.3
	다세대주택(빌라)	(154)	15.6	33.1	27.3	15.6	8.4	48.7	27.3	24.0	58.0
	반지하	(27)	3.7	29.6	25.9	40.7	0.0	33.3	25.9	40.7	49.1
	고시원/원룸	(64)	14.1	32.8	25.0	12.5	15.6	46.9	25.0	28.1	54.3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20.0	20.0	20.0	20.0	40.0	20.0	40.0	50.0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5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7.8	28.8	30.1	21.6	11.8	36.6	30.1	33.3	49.8
	200~300만 원	(156)	12.8	32.7	25.6	21.8	7.1	45.5	25.6	28.8	55.6
	300~400만 원	(76)	18.4	42.1	28.9	7.9	2.6	60.5	28.9	10.5	66.4
	400만 원 이상	(38)	15.8	47.4	28.9	2.6	5.3	63.2	28.9	7.9	66.4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17.0	29.8	29.8	12.8	10.6	46.8	29.8	23.4	57.4
	2~3년	(61)	13.1	34.4	26.2	19.7	6.6	47.5	26.2	26.2	57.0
	4~5년	(67)	10.4	32.8	25.4	20.9	10.4	43.3	25.4	31.3	53.0
	6~10년	(116)	11.2	42.2	24.1	14.7	7.8	53.4	24.1	22.4	58.6
	11년 이상	(132)	12.1	29.5	33.3	18.9	6.1	41.7	33.3	25.0	55.7

③ 1인가구 고충

- 1인가구 고충 항목별 100점 만점으로 점수 환산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40.7점으로 가장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외로움'(45.0점) > '위급상황 우려'(46.7점) > '주거 관리 및 수리 어려움' (48.3점) > '안전에 대한 우려'(50.1점) > '비동거 가족 지원'(53.5점) 등의 순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단위 : 점(100점 환산)]



[응답자 특성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일상생활 어려움', '집안일 어려움', '비동거 가족지원' 항목에서 더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안전에 대한 우려', '노후/임종 염려', '주거 관리나 수리 어려움', '위급상황 우려' 항목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대부분 항목에서 '청년층'보다 '노년층'의 고충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노년층'은 '경제적 어려움' 32.9점과 '외로움' 항목에서 40.7점으로 다른 연령 대비 고충이 매우 컸으며, 청년층의 경우 '경제적 고충'(41.3점)과 '위급상황 우려'(41.7점)항목이 다른 항목대비 고충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장년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항목보다 '외로움'이 44.8점으로 가장 큰 고충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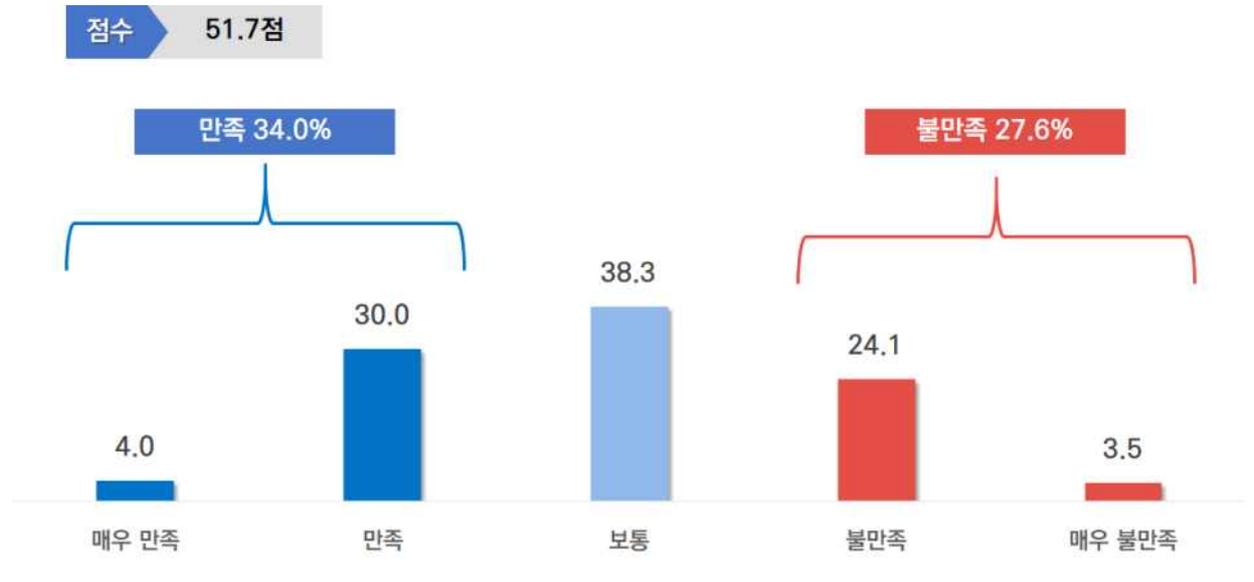
[Base : 전체,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경제적 어려움	안전에 대한 우려	외로움	노후 /임종 염려	일상 생활 어려움	집안일 어려움	주거 관리 및 수리 어려움	위급 상황 우려	비동거 가족 지원	1인 가구 편견
전체		(423)	40.7	50.1	45.0	56.4	55.3	56.3	48.2	46.7	53.5	62.4
성별	남성	(211)	39.8	56.8	42.4	56.5	46.1	49.2	51.1	48.8	51.5	58.5
	여성	(212)	41.5	43.4	47.5	56.3	64.5	63.3	45.4	44.6	55.5	66.2
연령	청년층	(138)	41.3	46.6	49.6	55.8	58.0	55.8	48.4	41.7	57.8	75.0
	중장년층	(140)	48.0	51.8	44.8	61.3	61.3	60.2	52.7	50.7	54.6	58.4
	노년층	(145)	32.9	51.7	40.7	52.2	47.1	52.9	43.8	47.6	48.4	54.1
지역	북부권	(118)	41.7	44.9	48.9	55.7	58.3	58.5	49.4	43.6	53.0	65.3
	동부권	(101)	40.3	48.0	45.0	54.5	58.2	57.7	52.7	49.3	55.0	65.1
	남부권	(103)	32.8	52.7	37.4	61.4	48.3	51.0	39.8	47.1	52.9	59.2
	서부권	(101)	47.8	55.4	48.0	54.0	56.2	57.7	51.0	47.3	53.5	59.4
최종 학력	무학	(4)	18.8	31.3	37.5	31.3	37.5	43.8	25.0	37.5	25.0	25.0
	초등학교	(26)	22.1	45.2	36.5	49.0	47.1	52.9	33.7	39.4	43.3	56.7
	중학교	(37)	28.4	48.6	35.1	48.6	45.3	51.4	39.9	42.6	46.6	52.0
	고등학교	(107)	36.2	52.6	42.5	58.2	50.9	55.1	47.4	53.0	53.3	57.5
	대학(4년제 미만)	(68)	47.8	54.0	50.4	67.3	62.9	62.5	51.8	55.5	57.7	65.4
	대학(4년제 이상)	(166)	45.9	47.6	47.1	54.1	58.6	55.9	51.4	41.4	55.9	67.2
	대학원(석사)	(11)	47.7	52.3	50.0	47.7	56.8	52.3	43.2	31.8	43.2	72.7
대학원(박사)	(4)	56.3	75.0	68.8	87.5	68.8	87.5	87.5	81.3	81.3	81.3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40.1	57.7	41.0	52.5	54.0	54.3	49.7	50.0	52.2	56.8
	아파트	(40)	53.8	56.3	49.4	65.0	56.3	57.5	51.3	49.4	59.4	67.5
	오피스텔	(51)	44.1	48.5	45.6	58.8	58.3	61.3	50.0	48.5	56.9	67.6
	다세대주택(빌라)	(154)	42.2	46.9	45.5	58.3	58.1	58.9	47.6	46.8	53.2	64.8
	반지하	(27)	26.9	50.0	40.7	56.5	48.1	49.1	41.7	41.7	38.0	48.1
	고시원/원룸	(64)	34.0	46.9	46.9	51.2	51.2	50.8	48.0	42.2	56.3	62.5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30.0	55.0	35.0	50.0	55.0	40.0	35.0	50.0	55.0
	기타	(1)	50.0	50.0	25.0	50.0	25.0	50.0	50.0	50.0	75.0	75.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27.8	44.8	41.0	51.5	50.7	53.1	44.0	43.0	48.7	57.8
	200~300만 원	(156)	38.9	51.0	44.6	57.2	56.6	57.2	50.5	48.4	54.6	63.8
	300~400만 원	(76)	59.9	54.3	50.0	65.5	59.2	59.5	50.7	53.0	57.6	66.8
	400만 원 이상	(38)	61.2	59.2	52.6	54.6	61.2	58.6	51.3	42.1	60.5	65.8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41.5	45.7	44.7	68.6	57.4	57.4	53.7	50.5	54.8	71.8
	2~3년	(61)	41.4	43.4	45.5	57.4	61.5	57.4	49.6	42.2	51.6	62.3
	4~5년	(67)	42.5	47.4	40.7	52.6	51.5	53.4	47.0	47.8	53.0	63.1
	6~10년	(116)	42.7	53.7	45.5	58.6	56.7	58.2	46.8	46.8	55.0	62.3
	11년 이상	(132)	37.3	52.8	46.6	51.5	52.5	55.1	47.5	46.8	53.0	58.7

④ 여가활동 만족도

- 여가활동 만족도에 대한 평점은 51.7점으로 나타남.
- 여가활동 만족에 관한 긍정적 반응은 34.0%(매우 만족 4.0% + 만족 30.0%)로 나타남.
- 여가활동 만족에 관한 부정적 반응은 27.6%(매우 불만족 3.5% + 불만족 24.1%)로 나타남.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단위 : %, 점(100점 환산)]



[응답자 특성별]

- 성별의 경우 '여성'(54.5점)이 '남성'(48.9점)보다 여가활동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의 경우 '청년층'이 60.1점으로 가장 높고, '노년층'이 43.3점으로 가장 낮았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권'이 54.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북부권' 52.8점, '서부권' 51.7점, '남부권' 47.8점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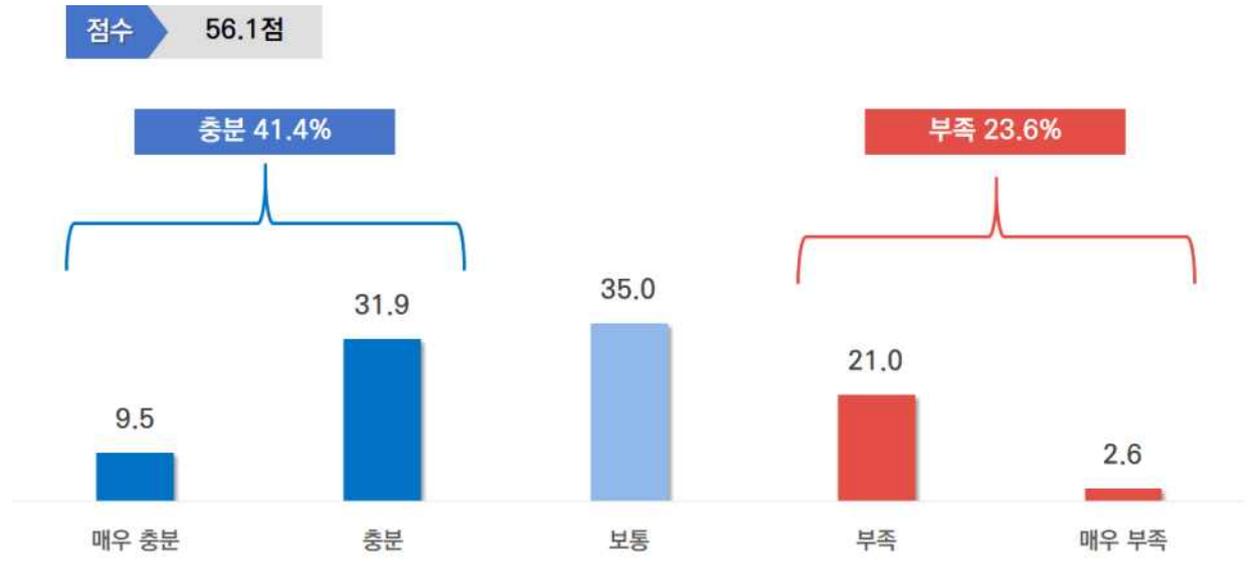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TOP2	MIDDLE	BOT2	평점
전체		(423)	4.0	30.0	38.3	24.1	3.5	34.0	38.3	27.7	51.7
성별	남성	(211)	5.2	22.3	39.3	29.4	3.8	27.5	39.3	33.2	48.9
	여성	(212)	2.8	37.7	37.3	18.9	3.3	40.6	37.3	22.2	54.5
연령	청년층	(138)	8.7	37.7	39.9	13.0	0.7	46.4	39.9	13.8	60.1
	중장년층	(140)	2.9	33.6	35.7	25.0	2.9	36.4	35.7	27.9	52.1
	노년층	(145)	0.7	19.3	39.3	33.8	6.9	20.0	39.3	40.7	43.3
지역	북부권	(118)	5.1	30.5	41.5	16.1	6.8	35.6	41.5	22.9	52.8
	동부권	(101)	2.0	34.7	43.6	18.8	1.0	36.6	43.6	19.8	54.5
	남부권	(103)	3.9	21.4	36.9	37.9	0.0	25.2	36.9	37.9	47.8
	서부권	(101)	5.0	33.7	30.7	24.8	5.9	38.6	30.7	30.7	51.7
최종 학력	무학	(4)	0.0	0.0	50.0	0.0	50.0	0.0	50.0	50.0	25.0
	초등학교	(26)	0.0	15.4	34.6	50.0	0.0	15.4	34.6	50.0	41.3
	중학교	(37)	0.0	18.9	48.6	18.9	13.5	18.9	48.6	32.4	43.2
	고등학교	(107)	2.8	18.7	39.3	35.5	3.7	21.5	39.3	39.3	45.3
	대학(4년제 미만)	(68)	7.4	33.8	36.8	19.1	2.9	41.2	36.8	22.1	55.9
	대학(4년제 이상)	(166)	4.2	40.4	36.7	17.5	1.2	44.6	36.7	18.7	57.2
	대학원(석사)	(11)	0.0	45.5	45.5	9.1	0.0	45.5	45.5	9.1	59.1
	대학원(박사)	(4)	50.0	25.0	0.0	25.0	0.0	75.0	0.0	25.0	75.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1.2	28.4	29.6	34.6	6.2	29.6	29.6	40.7	46.0
	아파트	(40)	2.5	52.5	35.0	7.5	2.5	55.0	35.0	10.0	61.3
	오피스텔	(51)	11.8	29.4	39.2	19.6	0.0	41.2	39.2	19.6	58.3
	다세대주택(빌라)	(154)	3.2	28.6	45.5	21.4	1.3	31.8	45.5	22.7	52.8
	반지하	(27)	3.7	18.5	29.6	37.0	11.1	22.2	29.6	48.1	41.7
	고시원/원룸	(64)	4.7	28.1	39.1	23.4	4.7	32.8	39.1	28.1	51.2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0.0	20.0	0.0	60.0	20.0	20.0	0.0	80.0	30.0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5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2.6	24.2	40.5	24.2	8.5	26.8	40.5	32.7	47.1
	200~300만 원	(156)	2.6	28.8	36.5	30.8	1.3	31.4	36.5	32.1	50.2
	300~400만 원	(76)	6.6	36.8	40.8	15.8	0.0	43.4	40.8	15.8	58.6
	400만 원 이상	(38)	10.5	44.7	31.6	13.2	0.0	55.3	31.6	13.2	63.2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6.4	31.9	31.9	27.7	2.1	38.3	31.9	29.8	53.2
	2~3년	(61)	3.3	34.4	42.6	16.4	3.3	37.7	42.6	19.7	54.5
	4~5년	(67)	4.5	29.9	40.3	22.4	3.0	34.3	40.3	25.4	52.6
	6~10년	(116)	5.2	27.6	40.5	24.1	2.6	32.8	40.5	26.7	52.2
	11년 이상	(132)	2.3	29.5	35.6	27.3	5.3	31.8	35.6	32.6	49.1

⑤ 여가시간 충분 정도

- '여가시간 충분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56.1점으로 조사됨.
- '여가시간 충분'은 전체 41.4%(매우 충분 9.5%, 충분 31.9%)로 '여가시간 부족' 23.6%(매우 부족 2.6%, 부족 21.0%)보다 약 17.8%p 높게 나타남.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단위 : %, 점(100점 환산)]



[응답자 특성별]

- 성별의 경우 남성(57.1점)이 여성(55.2점)보다 약 1.9점이 더 높았음.
- 연령은 '노년층'이 63.4점으로 가장 높고, '중장년층'(52.9점), '청년층'(51.8점) 순으로 조사됨.
- 지역은 '서부권'이 61.4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북부권' 57.2점, '동부권' 56.2점, '남부권' 49.8점 순으로 조사됨.
- 최종학력의 경우 '무학'과 '대학원(박사)'가 81.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72.1점, '중학교' 60.1점, '대학(4년제 이상)'이 55.7점 순으로 나타남.
- 주택 유형 중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이 65.0점, 소득수준이 '200만 원 이하'가 65.2점, 혼자 생활한 기간이 '11년 이상'이 63.1점으로 각 항목 내에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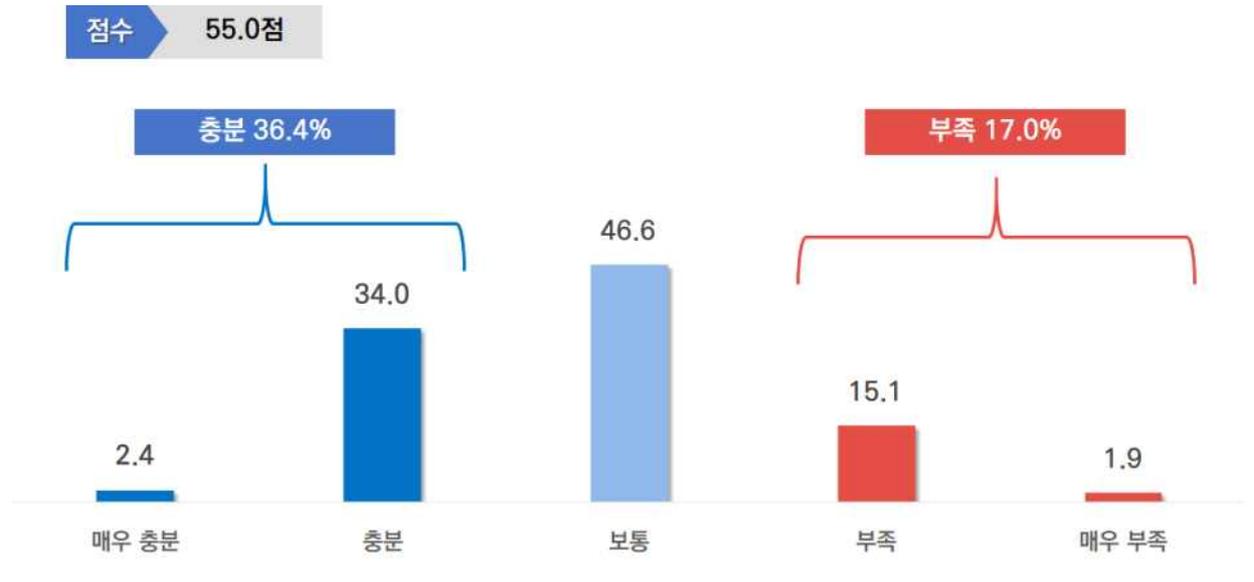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 부족	TOP2	MIDDLE	BOT2	평점
전체		(423)	9.5	31.9	35.0	21.0	2.6	41.4	35.0	23.6	56.1
성별	남성	(211)	10.4	29.4	40.8	17.1	2.4	39.8	40.8	19.4	57.1
	여성	(212)	8.5	34.4	29.2	25.0	2.8	42.9	29.2	27.8	55.2
연령	청년층	(138)	10.1	25.4	31.9	26.8	5.8	35.5	31.9	32.6	51.8
	중장년층	(140)	5.0	27.1	44.3	21.4	2.1	32.1	44.3	23.6	52.9
	노년층	(145)	13.1	42.8	29.0	15.2	0.0	55.9	29.0	15.2	63.4
지역	북부권	(118)	10.2	31.4	37.3	19.5	1.7	41.5	37.3	21.2	57.2
	동부권	(101)	4.0	38.6	36.6	19.8	1.0	42.6	36.6	20.8	56.2
	남부권	(103)	9.7	17.5	39.8	28.2	4.9	27.2	39.8	33.0	49.8
	서부권	(101)	13.9	40.6	25.7	16.8	3.0	54.5	25.7	19.8	61.4
최종 학력	무학	(4)	25.0	75.0	0.0	0.0	0.0	100.0	0.0	0.0	81.3
	초등학교	(26)	23.1	50.0	19.2	7.7	0.0	73.1	19.2	7.7	72.1
	중학교	(37)	8.1	48.6	21.6	18.9	2.7	56.8	21.6	21.6	60.1
	고등학교	(107)	9.3	23.4	41.1	26.2	0.0	32.7	41.1	26.2	54.0
	대학(4년제 미만)	(68)	8.8	20.6	47.1	19.1	4.4	29.4	47.1	23.5	52.6
	대학(4년제 이상)	(166)	7.2	35.5	33.1	21.1	3.0	42.8	33.1	24.1	55.7
	대학원(석사)	(11)	0.0	18.2	27.3	36.4	18.2	18.2	27.3	54.5	36.4
대학원(박사)	(4)	50.0	25.0	25.0	0.0	0.0	75.0	25.0	0.0	81.3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4.9	45.7	28.4	19.8	1.2	50.6	28.4	21.0	58.3
	아파트	(40)	17.5	22.5	32.5	25.0	2.5	40.0	32.5	27.5	56.9
	오피스텔	(51)	5.9	23.5	47.1	23.5	0.0	29.4	47.1	23.5	52.9
	다세대주택(빌라)	(154)	11.0	30.5	32.5	22.1	3.9	41.6	32.5	26.0	55.7
	반지하	(27)	7.4	29.6	33.3	29.6	0.0	37.0	33.3	29.6	53.7
	고시원/원룸	(64)	9.4	32.8	39.1	14.1	4.7	42.2	39.1	18.8	57.0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20.0	60.0	0.0	0.0	40.0	60.0	0.0	65.0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5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14.4	45.8	26.8	12.4	0.7	60.1	26.8	13.1	65.2
	200~300만 원	(156)	5.1	23.7	41.0	26.3	3.8	28.8	41.0	30.1	50.0
	300~400만 원	(76)	6.6	22.4	42.1	25.0	3.9	28.9	42.1	28.9	50.7
	400만 원 이상	(38)	13.2	28.9	28.9	26.3	2.6	42.1	28.9	28.9	55.9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6.4	31.9	29.8	29.8	2.1	38.3	29.8	31.9	52.7
	2~3년	(61)	4.9	26.2	39.3	23.0	6.6	31.1	39.3	29.5	50.0
	4~5년	(67)	6.0	26.9	46.3	17.9	3.0	32.8	46.3	20.9	53.7
	6~10년	(116)	6.9	31.9	34.5	25.0	1.7	38.8	34.5	26.7	54.3
	11년 이상	(132)	16.7	37.1	29.5	15.2	1.5	53.8	29.5	16.7	63.1

⑥ 여가시설 충분 정도

- '여가시설 충분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55.0점으로 조사됨.
- '여가시설 충분'은 전체 36.4%(매우 충분 2.4%, 충분 34.0%)로 '여가시설 부족' 17.0%(매우 부족 1.9%, 부족 15.1%)보다 약 19.4%p 높게 나타남.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단위 : %, 점(100점 환산)]



[응답자 특성별]

- 성별의 경우 '여성'(55.4점)이 '남성'(54.5점)보다 약 0.9점이 더 높았음.
- 연령은 '중장년층'이 59.1점으로 가장 높고, '노년층'(58.8점), '청년층'(46.7점) 순으로 조사됨.
- 지역은 '남부권'이 63.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부권' 63.2점, '북부권' 57.4점, '동부권' 52.8점 순으로 조사됨.
- 최종학력의 경우 '무학'과 '대학(4년제 미만)'이 각 66.1점, 65.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4년제 이상)' 62.5점, '초등학교' 61.1점, '고등학교'가 58.3점 순으로 나타남.
- 주택 유형 중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이 61.8점, 소득수준이 '300~400만원'이 62.6점, 혼자 생활한 기간은 '6~10년'이 64.2점으로 각 항목 내에서 가장 높았음.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 부족	TOP2	MIDDLE	BOT2	평점
전체		(423)	2.4	34.0	46.6	15.1	1.9	36.4	46.6	17.0	55.0
성별	남성	(211)	2.8	32.2	46.9	16.1	1.9	35.1	46.9	18.0	54.5
	여성	(212)	1.9	35.8	46.2	14.2	1.9	37.7	46.2	16.0	55.4
연령	청년층	(138)	5.8	10.9	52.2	26.8	4.3	16.7	52.2	31.2	46.7
	중장년층	(140)	0.7	47.9	40.0	10.0	1.4	48.6	40.0	11.4	59.1
	노년층	(145)	0.7	42.8	47.6	9.0	0.0	43.4	47.6	9.0	58.8
지역	북부권	(17)	5.9	47.1	17.6	29.4	0.0	52.9	17.6	29.4	57.4
	동부권	(18)	0.0	50.0	22.2	16.7	11.1	50.0	22.2	27.8	52.8
	남부권	(13)	0.0	61.5	30.8	7.7	0.0	61.5	30.8	7.7	63.5
	서부권	(19)	0.0	68.4	15.8	15.8	0.0	68.4	15.8	15.8	63.2
최종 학력	무학	(14)	7.1	57.1	28.6	7.1	0.0	64.3	28.6	7.1	66.1
	초등학교	(18)	0.0	55.6	33.3	11.1	0.0	55.6	33.3	11.1	61.1
	중학교	(25)	0.0	28.0	48.0	24.0	0.0	28.0	48.0	24.0	51.0
	고등학교	(21)	0.0	57.1	23.8	14.3	4.8	57.1	23.8	19.0	58.3
	대학(4년제 미만)	(21)	4.8	52.4	42.9	0.0	0.0	57.1	42.9	0.0	65.5
	대학(4년제 이상)	(14)	0.0	71.4	14.3	7.1	7.1	71.4	14.3	14.3	62.5
	대학원(석사)	(39)	5.1	15.4	53.8	23.1	2.6	20.5	53.8	25.6	49.4
	대학원(박사)	(19)	0.0	0.0	73.7	26.3	0.0	0.0	73.7	26.3	43.4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22)	0.0	9.1	72.7	13.6	4.5	9.1	72.7	18.2	46.6
	아파트	(24)	0.0	8.3	79.2	12.5	0.0	8.3	79.2	12.5	49.0
	오피스텔	(19)	0.0	5.3	84.2	5.3	5.3	5.3	84.2	10.5	47.4
	다세대주택(빌라)	(17)	0.0	11.8	58.8	29.4	0.0	11.8	58.8	29.4	45.6
	반지하	(23)	0.0	34.8	52.2	13.0	0.0	34.8	52.2	13.0	55.4
	고시원/원룸	(21)	9.5	33.3	38.1	14.3	4.8	42.9	38.1	19.0	57.1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19)	5.3	47.4	36.8	10.5	0.0	52.6	36.8	10.5	61.8
	기타	(12)	0.0	41.7	41.7	16.7	0.0	41.7	41.7	16.7	56.3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28)	7.1	21.4	60.7	10.7	0.0	28.6	60.7	10.7	56.3
	200~300만 원	(118)	2.5	36.4	36.4	22.0	2.5	39.0	36.4	24.6	53.6
	300~400만 원	(101)	2.0	58.4	29.7	7.9	2.0	60.4	29.7	9.9	62.6
	400만 원 이상	(103)	4.9	34.0	47.6	12.6	1.0	38.8	47.6	13.6	57.3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101)	0.0	6.9	74.3	16.8	2.0	6.9	74.3	18.8	46.5
	2~3년	(4)	0.0	50.0	25.0	25.0	0.0	50.0	25.0	25.0	56.3
	4~5년	(26)	0.0	46.2	46.2	7.7	0.0	46.2	46.2	7.7	59.6
	6~10년	(37)	2.7	62.2	27.0	5.4	2.7	64.9	27.0	8.1	64.2
	11년 이상	(107)	2.8	42.1	48.6	6.5	0.0	44.9	48.6	6.5	60.3

⑦ 여가활동 어려운 이유

- 여가활동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36.1%가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답함.
- 그 다음으로 '일이 바쁘기 때문'이 21.3%, '여가활동을 함께할 사람이 없음'이 10.4%, '마음에 드는 여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 8.2% 순으로 높았음.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 남성과 여성 모두 여가활동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을 꼽음.
- 연령의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 항목에 대해 '중장년층'(44.7%) > '노년층'(42.9%) > '청년층'(33.3%)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 항목에 대해 '서부권'(37.8%) > '북부권'(36.4%) > '동부권'(35.7%) > '남부권'(34.2%) 순으로 조사됨.
- 학력이 올라갈수록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은 감소하고, '일이 바쁘기 때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소득이 증가할수록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은 감소하고, '일이 바쁘기 때문'이나 '마음에 드는 여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
-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은 증가하고 있음.

[Base : 전체,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일이 바쁘기 때문	경제적 으로 부담되기 때문	마음에 드는 여가 프로그램 없기때문	여가 활동을 함께할 사람이 없음	정보 부족	여가 활동할 공간이 없음	여가 활동하기 귀찮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어려움이 없음
전체		(423)	21.3	36.1	8.2	10.4	7.1	6.0	7.1	1.1	2.7
성별	남성	(211)	17.9	38.1	10.7	11.9	6.0	6.0	4.8	1.2	3.6
	여성	(212)	24.2	34.3	6.1	9.1	8.1	6.1	9.1	1.0	2.0
연령	청년층	(138)	23.9	33.3	6.5	8.7	9.4	6.5	8.7	0.7	2.2
	중장년층	(140)	13.2	44.7	10.5	18.4	0.0	5.3	2.6	0.0	5.3
	노년층	(145)	14.3	42.9	28.6	0.0	0.0	0.0	0.0	14.3	0.0
지역	북부권	(118)	24.2	36.4	7.6	7.6	12.1	3.0	7.6	0.0	1.5
	동부권	(101)	14.3	35.7	7.1	9.5	7.1	9.5	11.9	2.4	2.4
	남부권	(103)	26.3	34.2	7.9	13.2	0.0	7.9	2.6	2.6	5.3
	서부권	(101)	18.9	37.8	10.8	13.5	5.4	5.4	5.4	0.0	2.7
최종 학력	중학교	(4)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고등학교	(26)	4.3	69.6	4.3	8.7	4.3	0.0	8.7	0.0	0.0
	대학(4년제 미만)	(37)	26.9	30.8	11.5	0.0	7.7	11.5	7.7	0.0	3.8
	대학(4년제 이상)	(107)	18.3	32.5	9.2	13.3	8.3	6.7	6.7	1.7	3.3
	대학원(석사)	(68)	66.7	22.2	0.0	0.0	0.0	0.0	11.1	0.0	0.0
	대학원(박사)	(166)	75.0	0.0	0.0	25.0	0.0	0.0	0.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11)	8.7	47.8	4.3	17.4	8.7	0.0	0.0	4.3	8.7
	아파트	(4)	30.8	38.5	0.0	15.4	7.7	0.0	7.7	0.0	0.0
	오피스텔	(81)	8.8	38.2	17.6	14.7	8.8	5.9	5.9	0.0	0.0
	다세대주택(빌라)	(40)	24.1	36.2	5.2	6.9	6.9	5.2	12.1	0.0	3.4
	반지하	(51)	57.1	0.0	14.3	0.0	0.0	28.6	0.0	0.0	0.0
	고시원/원룸	(154)	27.3	29.5	9.1	9.1	6.8	9.1	4.5	2.3	2.3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27)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64)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5)	10.2	51.0	6.1	6.1	8.2	4.1	8.2	4.1	2.0
	200~300만 원	(1)	17.1	34.2	5.3	15.8	10.5	7.9	7.9	0.0	1.3
	300~400만 원	(153)	37.5	21.9	12.5	9.4	3.1	3.1	6.3	0.0	6.3
	400만 원 이상	(156)	34.6	30.8	15.4	3.8	0.0	7.7	3.8	0.0	3.8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76)	24.1	24.1	6.9	6.9	13.8	10.3	10.3	0.0	3.4
	2~3년	(38)	33.3	30.0	6.7	10.0	10.0	6.7	3.3	0.0	0.0
	4~5년	(47)	21.2	33.3	9.1	9.1	6.1	6.1	12.1	3.0	0.0
	6~10년	(61)	21.7	41.3	8.7	8.7	6.5	6.5	6.5	0.0	0.0
	11년 이상	(67)	11.1	44.4	8.9	15.6	2.2	2.2	4.4	2.2	8.9

2 건강

① 신체 건강

- '신체 건강(식생활/운동)' 항목들에 대해서는 '피로감 및 건강 이상증세'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9.2점으로 매우 충분한 편으로 나타남.

※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단위 : 점(100점 환산)]



※ 점수가 높을수록 좋지 않음

[응답자 특성별]

- 성별의 경우 남성은 '가족 부재'가 34.8%로 가장 높고, 여성은 '피로감 및 건강 이상 증세'가 41.0%로 가장 높았음.
- 지역의 경우 '서부권'을 제외한 다른 권역은 '피로감 및 건강 이상 증세'가 가장 높았음.
- 주택 유형 중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아파트, 반지하는 '가족 부재'가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빌라), 고시원/원룸은 '피로감 및 건강 이상 증세'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Base : 전체,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끼니 챙기지 못함	가족 부재	의료시설 접근성 부족	운동시간 부족	피로감 및 건강 이상 증세
전체		(423)	26.2	33.1	9.2	29.5	37.8
성별	남성	(211)	25.9	34.8	10.5	26.8	34.5
	여성	(212)	26.5	31.4	7.8	32.2	41.0
연령	청년층	(138)	35.9	35.3	14.7	46.4	55.8
	중장년층	(140)	25.2	30.7	5.9	25.5	27.3
	노년층	(145)	18.1	33.3	7.1	17.2	30.7
지역	북부권	(118)	37.7	37.9	11.2	36.7	45.1
	동부권	(101)	19.6	29.0	6.9	24.3	30.9
	남부권	(103)	20.4	37.6	10.9	36.7	48.3
	서부권	(101)	25.5	27.0	7.2	19.1	25.2
최종 학력	무학	(4)	43.8	50.0	0.0	18.8	31.3
	초등학교	(26)	19.2	33.7	5.8	14.4	44.2
	중학교	(37)	22.3	41.9	11.5	23.0	36.5
	고등학교	(107)	20.1	34.1	7.9	26.2	30.4
	대학(4년제 미만)	(68)	26.1	25.0	7.7	28.7	33.1
	대학(4년제 이상)	(166)	32.8	34.9	11.3	35.2	44.0
	대학원(석사)	(11)	18.2	15.9	2.3	43.2	45.5
대학원(박사)	(4)	6.3	12.5	6.3	25.0	12.5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23.5	37.7	10.5	23.8	34.6
	아파트	(40)	20.6	37.5	11.9	30.0	33.1
	오피스텔	(51)	27.0	35.3	13.7	37.7	39.2
	다세대주택(빌라)	(154)	26.3	30.8	6.8	26.9	40.3
	반지하	(27)	25.0	33.3	4.6	30.6	31.5
	고시원/원룸	(64)	32.8	28.1	9.8	33.2	39.1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30.0	20.0	10.0	55.0	55.0
기타	(1)	25.0	100.0	0.0	50.0	25.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28.6	34.8	11.3	26.8	36.9
	200~300만 원	(156)	24.8	34.5	8.2	30.9	41.0
	300~400만 원	(76)	26.0	28.6	5.3	28.0	30.9
	400만 원 이상	(38)	23.0	29.6	12.5	37.5	41.4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24.5	30.9	10.1	31.4	44.7
	2~3년	(61)	27.5	39.8	9.4	32.8	39.8
	4~5년	(67)	33.6	39.6	13.1	28.0	37.3
	6~10년	(65)	25.6	32.5	7.8	28.9	36.6
	11년 이상	(65)	23.1	28.0	8.0	28.6	35.6

※ 점수가 높을수록 좋지 않음

② 식사 해결방법

- '주요 식사 해결방법'으로 37.1%가 '재료를 사서 직접요리'를 가장 많이 선택함.
- 그 다음으로 '반찬가게 등 반조리·조리된 음식' 16.1%, '식당'과 '간편식' 15.8%, '배달음식'이 14.7% 순으로 나타남.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 '재료를 사서 직접요리'에 대해 '여성'(50.5%)이 남성'(23.7%)보다 약 2배 정도 높았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배달음식'과 '간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재료를 사서 직접요리'와 '반찬가게 등 반조리·조리된 음식'으로 해결하는 비율이 증가함.
- 지역의 경우 '재료를 사서 직접요리'하는 비율이 '서부권'(44.6%) > '남부권'(37.9%) > '북부권'(36.4%) > '동부권'(29.7%) 순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식당'의 비율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의 비율이 증가함.

[Base : 전체,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식당	배달음식	간편식	재료를 사서 직접요리	반찬가게 등 반조리· 조리된 음식	기타
전체		(423)	15.8	14.7	15.8	37.1	16.1	0.5
성별	남성	(211)	22.3	16.1	18.5	23.7	19.0	0.5
	여성	(212)	9.4	13.2	13.2	50.5	13.2	0.5
연령	청년층	(138)	12.3	28.3	26.1	21.0	10.9	1.4
	중장년층	(140)	18.6	12.9	13.6	38.6	16.4	0.0
	노년층	(145)	16.6	3.4	8.3	51.0	20.7	0.0
지역	북부권	(118)	16.1	18.6	19.5	36.4	9.3	0.0
	동부권	(101)	7.9	11.9	13.9	29.7	34.7	2.0
	남부권	(103)	21.4	14.6	19.4	37.9	6.8	0.0
	서부권	(101)	17.8	12.9	9.9	44.6	14.9	0.0
최종 학력	무학	(4)	0.0	0.0	0.0	50.0	50.0	0.0
	초등학교	(26)	7.7	0.0	3.8	76.9	11.5	0.0
	중학교	(37)	10.8	2.7	5.4	59.5	21.6	0.0
	고등학교	(107)	16.8	12.1	15.9	43.0	12.1	0.0
	대학(4년제 미만)	(68)	16.2	17.6	16.2	29.4	19.1	1.5
	대학(4년제 이상)	(166)	16.9	20.5	21.1	24.1	16.9	0.6
	대학원(석사)	(11)	27.3	0.0	9.1	54.5	9.1	0.0
	대학원(박사)	(4)	25.0	50.0	0.0	25.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14.8	9.9	13.6	48.1	13.6	0.0
	아파트	(40)	15.0	15.0	17.5	32.5	20.0	0.0
	오피스텔	(51)	13.7	21.6	21.6	21.6	21.6	0.0
	다세대주택(빌라)	(154)	14.3	13.6	13.6	42.2	14.9	1.3
	반지하	(27)	7.4	14.8	11.1	63.0	3.7	0.0
	고시원/원룸	(64)	25.0	18.8	20.3	17.2	18.8	0.0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0.0	20.0	20.0	40.0	0.0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8.5	8.5	13.7	49.0	20.3	0.0
	200~300만 원	(156)	18.6	16.7	16.7	35.3	12.2	0.6
	300~400만 원	(76)	21.1	21.1	13.2	23.7	19.7	1.3
	400만 원 이상	(38)	23.7	18.4	26.3	23.7	7.9	0.0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10.6	10.6	19.1	40.4	17.0	2.1
	2~3년	(61)	13.1	14.8	13.1	37.7	21.3	0.0
	4~5년	(67)	17.9	17.9	19.4	26.9	17.9	0.0
	6~10년	(116)	19.0	20.7	12.9	31.0	15.5	0.9
	11년 이상	(132)	15.2	9.1	16.7	46.2	12.9	0.0

③ 가장 필요한 1인가구 신체 건강 지원정책

- '1인가구를 위한 신체 건강 지원정책 중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먹거리 환경 조성'이 35.2%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24.8%,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15.6%, '1인가구 건강 챌린지 프로그램' 13.0%, '건강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 7.1%, '1인가구 대상 돌봄서비스 강화' 4.3% 순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 남성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먹거리 환경 조성'이 42.2%로 높고 여성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조성'이 31.6%로 높아 차이를 보임.
-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먹거리 환경 조성'과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제공'은 증가하지만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의 경우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먹거리 환경 조성'에 대해 '남부권'(48.5%) > '서부권'(36.6%) > '동부권'(29.7%) > '북부권'(27.1%) 순으로 나타남.
- 소득이 증가할수록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의 비율이 증가하고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제공'과 '1인가구 대상 돌봄서비스 강화'는 감소하는 차이를 보임.

[Base : 전체,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먹거리 환경 조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1인 가구 건강 챌린지 프로그램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건강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	1인 가구 대상 돌봄서비스 강화
전체		(423)	35.2	24.8	13.0	15.6	7.1	4.3
성별	남성	(211)	42.2	18.0	11.4	16.6	7.1	4.7
	여성	(212)	28.3	31.6	14.6	14.6	7.1	3.8
연령	청년층	(138)	19.6	36.2	18.8	13.0	8.0	4.3
	중장년층	(140)	38.6	20.7	13.6	15.0	7.9	4.3
	노년층	(145)	46.9	17.9	6.9	18.6	5.5	4.1
지역	북부권	(118)	27.1	27.1	14.4	17.8	8.5	5.1
	동부권	(101)	29.7	20.8	16.8	14.9	8.9	8.9
	남부권	(103)	48.5	32.0	4.9	7.8	4.9	1.9
	서부권	(101)	36.6	18.8	15.8	21.8	5.9	1.0
최종 학력	무학	(4)	50.0	0.0	0.0	25.0	25.0	0.0
	초등학교	(26)	50.0	23.1	7.7	19.2	0.0	0.0
	중학교	(37)	43.2	18.9	8.1	16.2	8.1	5.4
	고등학교	(107)	45.8	17.8	10.3	15.0	6.5	4.7
	대학(4년제 미만)	(68)	30.9	20.6	17.6	14.7	8.8	7.4
	대학(4년제 이상)	(166)	25.3	33.1	15.1	15.7	7.2	3.6
	대학원(석사)	(11)	45.5	18.2	9.1	18.2	9.1	0.0
	대학원(박사)	(4)	25.0	50.0	25.0	0.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48.1	8.6	14.8	16.0	9.9	2.5
	아파트	(40)	20.0	45.0	17.5	12.5	2.5	2.5
	오피스텔	(51)	27.5	25.5	19.6	7.8	13.7	5.9
	다세대주택(빌라)	(154)	37.0	24.0	9.7	19.5	6.5	3.2
	반지하	(27)	44.4	33.3	0.0	14.8	0.0	7.4
	고시원/원룸	(64)	26.6	29.7	17.2	12.5	6.3	7.8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40.0	40.0	0.0	20.0	0.0	0.0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39.2	20.3	8.5	17.6	9.2	5.2
	200~300만 원	(156)	31.4	25.0	15.4	17.3	5.8	5.1
	300~400만 원	(76)	35.5	30.3	17.1	10.5	3.9	2.6
	400만 원 이상	(38)	34.2	31.6	13.2	10.5	10.5	0.0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25.5	29.8	10.6	19.1	4.3	10.6
	2~3년	(61)	21.3	32.8	18.0	9.8	14.8	3.3
	4~5년	(67)	34.3	23.9	10.4	16.4	10.4	4.5
	6~10년	(116)	38.8	24.1	18.1	12.1	3.4	3.4
	11년 이상	(132)	42.4	20.5	8.3	19.7	6.1	3.0

④ 마음 건강

- '마음 건강' 항목들에 대한 점수는 '외로움(32.4점) > '신경 예민 및 스트레스(28.1점)' > '우울감(27.7점)' > '불안감(24.9점)' > '자살(4.8점)' 순으로 나타남.

※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Base : 전체, 단위 : 점(100점 환산)]



* 점수가 높을수록 좋지 않음

[응답자 특성별]

- 남성은 '외로움'(34.1점) > '우울감'(29.3점) > '신경 예민 및 스트레스'(26.2점), 여성은 '외로움'(30.7점) > '신경 예민 및 스트레스'(30.1점) > '우울감', '불안감'(26.2점)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외로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연령대가 감소할수록 '자살'과 '신경 예민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의 경우 '외로움'에 대해 '남부권'(40.0점) > '북부권'(32.2점) > '동부권'(30.9점) > '서부권'(26.2점) 순으로 나타남.
- '외로움'에 대해 최종학력은 초등학교가 45.2점,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39.4점, 혼자 생활 기간은 '4~5년'이 36.9점으로 가장 높았음.
- 소득이 증가할수록 '외로움'은 감소하고 있으며, '신경 예민 및 스트레스'에 대해 '400만 원 이상'(30.9점) > '200~300만 원 미만'(30.0점), '200만 원 이하'(29.6점) > '300~400만 원 미만'(20.1점) 순으로 나타남.

[Base : 전체,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우울감	불안감	외로움	자살	신경 예민 및 스트레스
전체		(423)	27.7	24.9	32.4	4.8	28.1
성별	남성	(211)	29.3	23.7	34.1	5.8	26.2
	여성	(212)	26.2	26.2	30.7	3.9	30.1
연령	청년층	(138)	29.5	33.2	28.4	9.2	43.7
	중장년층	(140)	24.5	20.0	30.5	3.2	20.9
	노년층	(145)	29.1	21.9	37.9	2.2	20.3
지역	북부권	(118)	32.0	32.0	32.2	4.4	27.5
	동부권	(101)	18.8	17.8	30.9	4.7	23.3
	남부권	(103)	34.0	24.3	40.0	6.6	42.5
	서부권	(101)	25.2	24.5	26.2	3.7	19.1
최종 학력	무학	(4)	43.8	43.8	25.0	0.0	0.0
	초등학교	(26)	28.8	23.1	45.2	2.9	27.9
	중학교	(37)	35.1	24.3	44.6	4.1	24.3
	고등학교	(107)	27.1	21.7	37.1	3.0	24.1
	대학(4년제 미만)	(68)	23.5	21.3	22.8	3.7	20.2
	대학(4년제 이상)	(166)	28.8	29.4	31.0	7.4	35.8
	대학원(석사)	(11)	13.6	15.9	6.8	0.0	29.5
	대학원(박사)	(4)	18.8	12.5	6.3	6.3	12.5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27.5	22.8	33.3	4.3	23.5
	아파트	(40)	24.4	23.8	39.4	6.3	31.3
	오피스텔	(51)	26.0	26.0	31.4	6.9	32.4
	다세대주택(빌라)	(154)	27.4	23.2	31.5	2.9	27.3
	반지하	(27)	33.3	26.9	37.0	7.4	27.8
	고시원/원룸	(64)	28.1	28.5	27.7	6.3	29.7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50.0	55.0	35.0	10.0	50.0
	기타	(1)	25.0	25.0	25.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30.7	26.1	37.1	4.9	29.6
	200~300만 원	(156)	29.5	27.2	32.2	5.4	30.0
	300~400만 원	(76)	19.4	19.1	26.3	1.6	20.1
	400만 원 이상	(38)	25.0	22.4	26.3	8.6	30.9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26.6	26.6	29.3	5.9	33.0
	2~3년	(61)	30.7	29.5	32.4	7.8	31.1
	4~5년	(67)	25.0	23.9	36.9	6.7	28.4
	6~10년	(116)	25.6	21.6	30.0	3.2	23.5
	11년 이상	(132)	29.9	25.8	33.3	3.6	29.0

※ 점수가 높을수록 좋지 않음

⑤ 가장 필요한 1인가구 마음 건강 지원정책

- '1인가구를 위한 마음 건강 지원정책' 중 '개인·집단 맞춤 심리 상담서비스'가 27.4%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외로움 돌봄체계 구축(안부 확인)' 22.0%,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인식개선' 19.4%, '마음건강 힐링프로그램' 18.4% 순으로 높았음.

[Base : 전체,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 '개인·집단 맞춤 심리 상담서비스'에 대해 남성은 30.8%로 여성(24.1%)보다 6.7%p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외로움 돌봄체계 구축(안부 확인)'이 증가하고 있음. 반면, 연령대가 감소할수록 '마음 건강 힐링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집단 맞춤 심리 상담서비스에 대해 '서부권'(42.6%) > '동부권'(32.7%) > '북부권'(21.2%) > '남부권'(14.6%) 순으로 나타남.
- '개인·집단 맞춤 심리 상담서비스'에 대해 최종학력은 '대학(4년제 미만)'이 39.7%,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 35.8%로 가장 높았음.
- 소득이 증가할수록 '외로움 돌봄체계 구축(안부 확인)'이 감소하고 있음.
- 혼자 생활 기간이 증가할수록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인식개선'이 높아지고 있음.

[Base : 전체,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외로움 돌봄체계 구축(안부 확인)	개인·집단 맞춤 심리 상담서비스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인식개선	우울증 검진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마음 건강 힐링 프로그램	기타
전체		(423)	22.0	27.4	19.4	11.3	18.4	1.4
성별	남성	(211)	23.7	30.8	19.0	11.8	13.7	0.9
	여성	(212)	20.3	24.1	19.8	10.8	23.1	1.9
연령	청년층	(138)	8.0	22.5	18.1	17.4	31.2	2.9
	중장년층	(140)	19.3	36.4	20.7	7.9	14.3	1.4
	노년층	(145)	37.9	23.4	19.3	9.0	10.3	0.0
지역	북부권	(118)	25.4	21.2	16.1	13.6	20.3	3.4
	동부권	(101)	25.7	32.7	17.8	7.9	15.8	0.0
	남부권	(103)	22.3	14.6	26.2	8.7	27.2	1.0
	서부권	(101)	13.9	42.6	17.8	14.9	9.9	1.0
최종 학력	무학	(4)	25.0	0.0	25.0	50.0	0.0	0.0
	초등학교	(26)	46.2	0.0	34.6	3.8	15.4	0.0
	중학교	(37)	37.8	29.7	13.5	13.5	5.4	0.0
	고등학교	(107)	35.5	27.1	19.6	7.5	10.3	0.0
	대학(4년제 미만)	(68)	14.7	39.7	11.8	11.8	22.1	0.0
	대학(4년제 이상)	(166)	9.6	27.1	21.1	13.3	25.9	3.0
	대학원(석사)	(11)	9.1	36.4	18.2	9.1	18.2	9.1
대학원(박사)	(4)	25.0	0.0	25.0	25.0	25.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25.9	35.8	16.0	9.9	12.3	0.0
	아파트	(40)	15.0	27.5	22.5	2.5	32.5	0.0
	오피스텔	(51)	13.7	25.5	13.7	15.7	29.4	2.0
	다세대주택(빌라)	(154)	27.9	25.3	19.5	8.4	16.2	2.6
	반지하	(27)	22.2	33.3	18.5	14.8	7.4	3.7
	고시원/원룸	(64)	14.1	21.9	26.6	18.8	18.8	0.0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20.0	20.0	20.0	20.0	0.0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32.0	21.6	17.6	13.1	15.0	0.7
	200~300만 원	(156)	21.2	28.8	17.9	9.6	20.5	1.9
	300~400만 원	(76)	10.5	34.2	26.3	6.6	22.4	0.0
	400만 원 이상	(38)	7.9	31.6	18.4	21.1	15.8	5.3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21.3	31.9	12.8	10.6	21.3	2.1
	2~3년	(61)	16.4	34.4	16.4	6.6	23.0	3.3
	4~5년	(67)	19.4	34.3	17.9	14.9	11.9	1.5
	6~10년	(116)	21.6	25.9	22.4	11.2	19.0	0.0
	11년 이상	(132)	26.5	20.5	21.2	12.1	18.2	1.5

⑥ 건강 및 돌봄 분야 주요 지원사업

- 관악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 및 돌봄 분야 주요 지원사업 중 확대 및 강화해야 할 사업에 대해 1순위로는 '돌봄 SOS 서비스 지원 확대'가 26.7%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로는 '2030 청년 마음 안아주기'가 15.8%로 나타남.
- 1순위와 2순위를 합할 경우 '2030 청년 마음 안아주기'가 34.0%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돌봄 SOS 서비스 지원 확대'가 33.1%, '중장년 1인가구 IoT 돌봄서비스' 26.0%, '생명 이음 청진기 사업' 24.2%, '중장년 1인가구 행복한 한끼 나눔' 21.3% 순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응답자 특성별]

- 남성과 여성 모두 1순위는 '돌봄 SOS 서비스 지원 확대'가 가장 높았으나, 2순위의 경우 남성은 '2030 청년 마음 안아주기'가 18.5%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생명 이음 청진기 사업'과 '중장년 1인가구 IoT 돌봄서비스'가 14.2%로 가장 높아 각각 다르게 조사됨.
-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1순위로 '돌봄 SOS 서비스 지원 확대'를 선택한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1순위인 '돌봄 SOS 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해 '남부권'(59.2%) > '동부권'(18.8%) > '북부권'(16.1%) > '서부권'(13.9%) 순으로 나타남.
-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돌봄 SOS 서비스 지원 확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Base : 전체, 단위 : %]

1순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423)	26.7	18.2	9.5	11.3	10.9	9.5	5.2	1.2	1.4	6.1
성별	남성	(211)	28.9	15.2	8.1	13.3	10.4	10.0	5.7	1.9	0.9	5.7
	여성	(212)	24.5	21.2	10.8	9.4	11.3	9.0	4.7	0.5	1.9	6.6
연령	청년층	(138)	9.4	39.9	10.1	8.7	10.9	3.6	1.4	0.7	1.4	13.8
	중장년층	(140)	30.0	9.3	12.9	17.1	12.9	7.1	4.3	2.1	0.7	3.6
	노년층	(145)	40.0	6.2	5.5	8.3	9.0	17.2	9.7	0.7	2.1	1.4
지역	북부권	(118)	16.1	28.0	8.5	6.8	10.2	13.6	5.1	0.8	2.5	8.5
	동부권	(101)	18.8	17.8	20.8	15.8	9.9	7.9	2.0	1.0	0.0	5.9
	남부권	(103)	59.2	15.5	6.8	5.8	2.9	1.9	1.0	1.0	1.0	4.9
	서부권	(101)	13.9	9.9	2.0	17.8	20.8	13.9	12.9	2.0	2.0	5.0
최종 학력	무학	(4)	50.0	0.0	0.0	0.0	0.0	25.0	25.0	0.0	0.0	0.0
	초등학교	(26)	61.5	0.0	0.0	0.0	0.0	26.9	7.7	0.0	3.8	0.0
	중학교	(37)	35.1	8.1	10.8	8.1	13.5	21.6	0.0	0.0	2.7	0.0
	고등학교	(107)	36.4	15.0	11.2	15.0	6.5	5.6	3.7	1.9	0.9	3.7
	대학(4년제 미만)	(68)	25.0	14.7	4.4	14.7	13.2	5.9	10.3	2.9	1.5	7.4
	대학(4년제 이상)	(166)	15.1	28.3	11.4	10.2	13.3	7.8	4.8	0.6	1.2	7.2
	대학원(석사)	(11)	9.1	9.1	18.2	9.1	27.3	9.1	0.0	0.0	0.0	18.2
대학원(박사)	(4)	0.0	0.0	0.0	25.0	0.0	0.0	0.0	0.0	0.0	75.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33.3	7.4	13.6	14.8	9.9	8.6	6.2	0.0	3.7	2.5
	아파트	(40)	35.0	27.5	5.0	15.0	7.5	2.5	2.5	2.5	0.0	2.5
	오피스텔	(51)	23.5	31.4	5.9	15.7	7.8	2.0	2.0	0.0	0.0	11.8
	다세대주택(빌라)	(154)	29.2	16.9	7.8	7.8	10.4	13.0	5.2	1.3	1.3	7.1
	반지하	(27)	25.9	11.1	11.1	14.8	18.5	14.8	3.7	0.0	0.0	0.0
	고시원/원룸	(64)	10.9	21.9	12.5	9.4	14.1	10.9	7.8	3.1	1.6	7.8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0.0	20.0	0.0	20.0	0.0	20.0	0.0	0.0	20.0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30.1	12.4	9.8	7.8	11.1	13.7	6.5	2.0	2.0	4.6
	200~300만 원	(156)	28.8	20.5	9.0	12.2	7.7	8.3	5.1	0.6	1.3	6.4
	300~400만 원	(76)	18.4	25.0	10.5	14.5	13.2	2.6	5.3	1.3	1.3	7.9
	400만 원 이상	(38)	21.1	18.4	7.9	15.8	18.4	10.5	0.0	0.0	0.0	7.9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12.8	29.8	19.1	8.5	14.9	8.5	2.1	2.1	0.0	2.1
	2~3년	(61)	18.0	24.6	11.5	13.1	4.9	16.4	3.3	1.6	1.6	4.9
	4~5년	(67)	22.4	16.4	11.9	14.9	14.9	3.0	3.0	3.0	1.5	9.0
	6~10년	(116)	25.9	23.3	8.6	9.5	7.8	9.5	5.2	0.0	1.7	8.6
	11년 이상	(132)	38.6	7.6	4.5	11.4	12.9	9.8	8.3	0.8	1.5	4.5

① 돌봄 SOS 서비스 지원 확대

② 2030 청년 마음 안아주기

③ 생명 이음 청진기 사업

④ 중장년 1인 가구 IoT 돌봄서비스

⑤ 중장년 1인 가구 행복한 한끼 나눔

⑥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⑦ 취약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IoT)

⑧ 홀몸 장애인 인공지능 반려 로봇 지원

⑨ 침수 독거노인 가구 인공지능 다스미 설치

⑩ 지구사랑 건강 식생활 실천 사업

[Base : 전체, 단위 : %]

2순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423)	6.4	15.8	14.7	14.7	10.4	10.2	9.9	2.8	7.6	7.6
성별	남성	(211)	8.1	18.5	15.2	15.2	9.0	9.0	9.0	2.8	7.1	6.2
	여성	(212)	4.7	13.2	14.2	14.2	11.8	11.3	10.8	2.8	8.0	9.0
연령	청년층	(138)	10.1	15.2	16.7	2.9	11.6	10.1	10.1	3.6	3.6	15.9
	중장년층	(140)	2.9	15.7	12.9	27.9	12.9	7.1	6.4	2.1	6.4	5.7
	노년층	(145)	6.2	16.6	14.5	13.1	6.9	13.1	13.1	2.8	12.4	1.4
지역	북부권	(118)	9.3	9.3	15.3	18.6	10.2	12.7	9.3	3.4	2.5	9.3
	동부권	(101)	7.9	20.8	9.9	19.8	11.9	12.9	6.9	1.0	2.0	6.9
	남부권	(103)	4.9	30.1	26.2	11.7	14.6	4.9	1.0	1.9	1.9	2.9
	서부권	(101)	3.0	4.0	6.9	7.9	5.0	9.9	22.8	5.0	24.8	10.9
최종 학력	무학	(4)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0.0
	초등학교	(26)	7.7	30.8	19.2	0.0	3.8	19.2	11.5	0.0	7.7	0.0
	중학교	(37)	10.8	13.5	16.2	18.9	8.1	13.5	10.8	2.7	5.4	0.0
	고등학교	(107)	7.5	17.8	18.7	16.8	9.3	7.5	8.4	2.8	8.4	2.8
	대학(4년제 미만)	(68)	2.9	17.6	8.8	17.6	8.8	10.3	11.8	4.4	7.4	10.3
	대학(4년제 이상)	(166)	6.0	12.7	15.1	13.3	13.3	7.2	9.0	3.0	7.2	13.3
	대학원(석사)	(11)	0.0	9.1	0.0	27.3	0.0	27.3	27.3	0.0	9.1	0.0
대학원(박사)	(4)	25.0	25.0	0.0	0.0	0.0	25.0	0.0	0.0	25.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3.7	17.3	11.1	16.0	12.3	7.4	12.3	2.5	11.1	6.2
	아파트	(40)	7.5	15.0	17.5	15.0	10.0	17.5	5.0	2.5	7.5	2.5
	오피스텔	(51)	7.8	19.6	17.6	11.8	9.8	5.9	11.8	0.0	2.0	13.7
	다세대주택(빌라)	(154)	6.5	16.2	13.6	15.6	9.7	11.0	7.8	3.2	6.5	9.7
	반지하	(27)	11.1	7.4	14.8	11.1	11.1	11.1	11.1	0.0	18.5	3.7
	고시원/원룸	(64)	6.3	14.1	18.8	15.6	9.4	9.4	14.1	4.7	4.7	3.1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0.0	20.0	0.0	0.0	20.0	0.0	0.0	20.0	20.0	20.0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5.9	15.0	15.7	15.7	7.8	17.0	6.5	3.9	7.8	4.6
	200~300만 원	(156)	8.3	19.2	12.2	10.9	12.8	6.4	11.5	3.8	6.4	8.3
	300~400만 원	(76)	5.3	9.2	18.4	15.8	11.8	3.9	13.2	0.0	9.2	13.2
	400만 원 이상	(38)	2.6	18.4	13.2	23.7	7.9	10.5	10.5	0.0	7.9	5.3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8.5	8.5	19.1	14.9	12.8	8.5	6.4	6.4	2.1	12.8
	2~3년	(61)	9.8	16.4	13.1	19.7	6.6	9.8	9.8	0.0	3.3	11.5
	4~5년	(67)	3.0	25.4	11.9	11.9	16.4	9.0	10.4	0.0	3.0	9.0
	6~10년	(116)	7.8	19.0	15.5	13.8	6.9	7.8	10.3	2.6	11.2	5.2
	11년 이상	(132)	4.5	10.6	14.4	14.4	11.4	13.6	10.6	4.5	10.6	5.3

① 돌봄 SOS 서비스 지원 확대

② 2030 청년 마음 안아주기

③ 생명 이음 청진기 사업

④ 중장년 1인 가구 IoT 돌봄서비스

⑤ 중장년 1인 가구 행복한 한끼 나눔

⑥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⑦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IoT)

⑧ 홀몸 장애인 인공지능 반려 로봇 지원

⑨ 침수 독거노인 가구 인공지능 다스미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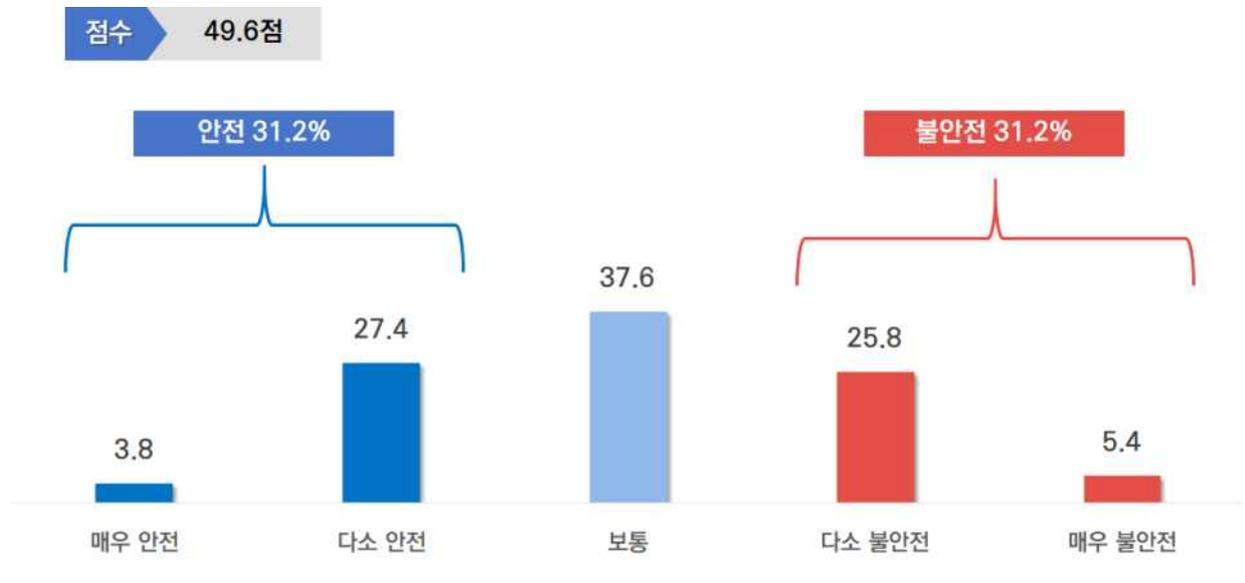
⑩ 지구사랑 건강 식생활 실천 사업

3 안전

① 주택 및 주변 환경 안정 정도

- '현재 사는 주택 및 주변 환경이 혼자 사는데 안전한 정도'에 대한 평점은 49.6점으로 '다소 안전하지 않다'라는 수준으로 나타남.
- 안전하다는 의견이 31.2%(매우 안전함 3.8%, 다소 안전함 27.4%)로 나타남.
- 불안전하다는 의견은 31.2%(매우 불안전함 5.4%, 다소 불안전함 25.8%)로 나타남.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응답자 특성별]

- 성별의 경우 남성(52.3점)보다 여성(46.9점)이 느끼는 안전 점수가 낮았음.
- 연령의 경우 '노년층'(53.3점) > '중장년층'(50.0점) > '청년층'(45.3점)으로 조사되어 오히려 청년층이 느끼는 안전 지수가 낮게 나타남.
- 지역의 경우 '동부권'(56.4점) > '남부권'(49.5점) > '서부권'(49.0점) > '북부권'(44.3점)으로 지역별 편차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 유형의 경우 '아파트'가 58.1점으로 가장 높았고,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이 30.0점으로 가장 낮았음.
- 소득의 경우 '400만 원 이상'(52.6점) > '300~400만 원 미만'(51.0점) > '200만 원 이하'(50.8점) > '200~300만 원 미만'(47.0점)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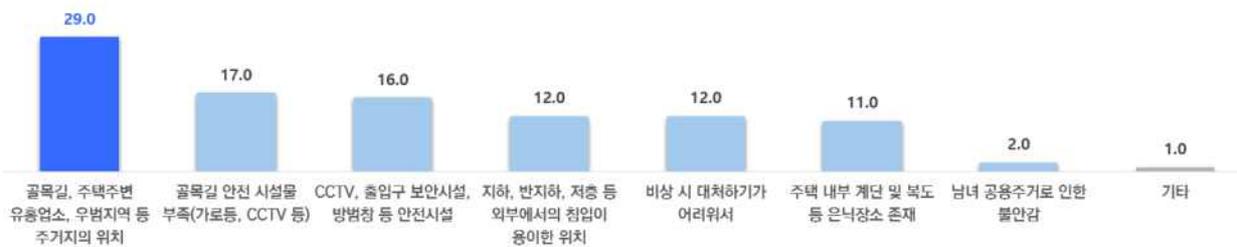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안전	다소 안전	보통	다소 불안전	매우 불안전	TOP2	MIDDLE	BOT2	평점
전체		(423)	3.8	27.4	37.6	25.8	5.4	31.2	37.6	31.2	49.6
성별	남성	(211)	4.3	30.8	39.3	20.9	4.7	35.1	39.3	25.6	52.3
	여성	(212)	3.3	24.1	35.8	30.7	6.1	27.4	35.8	36.8	46.9
연령	청년층	(138)	5.1	16.7	39.9	31.2	7.2	21.7	39.9	38.4	45.3
	중장년층	(140)	2.1	28.6	40.0	25.7	3.6	30.7	40.0	29.3	50.0
	노년층	(145)	4.1	36.6	33.1	20.7	5.5	40.7	33.1	26.2	53.3
지역	북부권	(118)	3.4	21.2	30.5	39.0	5.9	24.6	30.5	44.9	44.3
	동부권	(101)	3.0	36.6	44.6	14.9	1.0	39.6	44.6	15.8	56.4
	남부권	(103)	1.9	29.1	38.8	25.2	4.9	31.1	38.8	30.1	49.5
	서부권	(101)	6.9	23.8	37.6	21.8	9.9	30.7	37.6	31.7	49.0
최종 학력	무학	(4)	0.0	50.0	0.0	25.0	25.0	50.0	0.0	50.0	43.8
	초등학교	(26)	0.0	38.5	30.8	26.9	3.8	38.5	30.8	30.8	51.0
	중학교	(37)	2.7	27.0	37.8	29.7	2.7	29.7	37.8	32.4	49.3
	고등학교	(107)	3.7	33.6	43.9	15.0	3.7	37.4	43.9	18.7	54.7
	대학(4년제 미만)	(68)	2.9	29.4	41.2	23.5	2.9	32.4	41.2	26.5	51.5
	대학(4년제 이상)	(166)	4.2	21.1	33.7	33.1	7.8	25.3	33.7	41.0	45.2
	대학원(석사)	(11)	0.0	18.2	45.5	27.3	9.1	18.2	45.5	36.4	43.2
	대학원(박사)	(4)	50.0	25.0	25.0	0.0	0.0	75.0	25.0	0.0	81.3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3.7	25.9	43.2	24.7	2.5	29.6	43.2	27.2	50.9
	아파트	(40)	10.0	37.5	35.0	10.0	7.5	47.5	35.0	17.5	58.1
	오피스텔	(51)	3.9	29.4	37.3	21.6	7.8	33.3	37.3	29.4	50.0
	다세대주택(빌라)	(154)	2.6	29.9	36.4	27.9	3.2	32.5	36.4	31.2	50.2
	반지하	(27)	3.7	11.1	40.7	40.7	3.7	14.8	40.7	44.4	42.6
	고시원/원룸	(64)	3.1	23.4	35.9	26.6	10.9	26.6	35.9	37.5	45.3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0.0	20.0	0.0	60.0	20.0	20.0	0.0	80.0	30.0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5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3.9	30.1	35.9	25.5	4.6	34.0	35.9	30.1	50.8
	200~300만 원	(156)	1.9	24.4	39.1	28.8	5.8	26.3	39.1	34.6	47.0
	300~400만 원	(76)	6.6	27.6	34.2	26.3	5.3	34.2	34.2	31.6	51.0
	400만 원 이상	(38)	5.3	28.9	44.7	13.2	7.9	34.2	44.7	21.1	52.6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10.6	14.9	40.4	27.7	6.4	25.5	40.4	34.0	48.9
	2~3년	(61)	4.9	26.2	34.4	26.2	8.2	31.1	34.4	34.4	48.4
	4~5년	(67)	1.5	28.4	40.3	25.4	4.5	29.9	40.3	29.9	49.3
	6~10년	(116)	3.4	24.1	38.8	26.7	6.9	27.6	38.8	33.6	47.6
	11년 이상	(132)	2.3	34.8	35.6	24.2	3.0	37.1	35.6	27.3	52.3

② 거주지 불안 요인

- '거주지가 불안한 원인' 중 '골목길, 주택 주변 유흥업소, 우범지역 등 주거지의 위치'가 29.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골목길 안전시설물 부족' 17.0%, 'CCTV, 출입구 보안 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16.0%, '지하, 반지하, 저층 등 외부에서의 침입이 쉬운 위치'와 '비상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가 12.0% 순으로 나타남.

[Base : 불안전 응답자,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 남성은 '골목길, 주택 주변 유흥업소, 우범지역 등 주거지의 위치'와 '비상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가 20.0%로 가장 높고, 여성은 '골목길, 주택 주변 유흥업소, 우범지역 등 주거지의 위치'가 35.0%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임.
- 연령대의 경우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골목길, 주택 주변 유흥업소, 우범지역 등 주거지의 위치'가 '노년층'은 CCTV, 출입구 보안 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과 '골목길 안전시설물 부족'이 가장 높아 차이를 보임.
- 지역별로 '남부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골목길, 주택 주변 유흥업소, 우범지역 등 주거지의 위치'가 가장 높았고, '남부권'은 'CCTV, 출입구 보안 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이 가장 높아 차이를 보임.
-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골목길, 주택 주변 유흥업소, 우범지역 등 주거지의 위치'와 '비상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는 감소하고 있음.

[Base : 불안전 응답자,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골목길 안전시설물 부족 (가로등, CCTV 등)	골목길, 주택 주변 유형업소 우범지역 등 주거지의 위치	주택 내부 계단 및 복도 등 은닉장소 존재	지하, 반지하 저층 등 외부에서 의 침입이 쉬운 위치	남녀 공용 주거로 인한 불안감	비상시 대처하기 가 어려워서	기타
전체		(100)	16.0	17.0	29.0	11.0	12.0	2.0	12.0	1.0
성별	남성	(40)	15.0	15.0	20.0	10.0	15.0	2.5	20.0	2.5
	여성	(60)	16.7	18.3	35.0	11.7	10.0	1.7	6.7	0.0
연령	청년층	(40)	10.0	12.5	42.5	10.0	7.5	2.5	15.0	0.0
	중장년층	(26)	15.4	15.4	34.6	7.7	19.2	3.8	3.8	0.0
	노년층	(34)	23.5	23.5	8.8	14.7	11.8	0.0	14.7	2.9
지역	북부권	(50)	6.0	18.0	36.0	16.0	8.0	0.0	16.0	0.0
	동부권	(6)	16.7	33.3	33.3	0.0	0.0	0.0	0.0	16.7
	남부권	(20)	50.0	20.0	10.0	5.0	15.0	0.0	0.0	0.0
	서부권	(24)	8.3	8.3	29.2	8.3	20.8	8.3	16.7	0.0
최종 학력	무학	(2)	0.0	0.0	0.0	50.0	50.0	0.0	0.0	0.0
	초등학교	(7)	42.9	42.9	0.0	14.3	0.0	0.0	0.0	0.0
	중학교	(11)	27.3	36.4	9.1	18.2	9.1	0.0	0.0	0.0
	고등학교	(13)	23.1	7.7	23.1	7.7	15.4	0.0	23.1	0.0
	대학(4년제 미만)	(10)	0.0	10.0	60.0	10.0	0.0	0.0	20.0	0.0
	대학(4년제 이상)	(53)	13.2	13.2	30.2	9.4	15.1	3.8	13.2	1.9
	대학원(석사)	(4)	0.0	25.0	75.0	0.0	0.0	0.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18)	27.8	27.8	11.1	11.1	22.2	0.0	0.0	0.0
	아파트	(7)	0.0	14.3	42.9	28.6	0.0	0.0	14.3	0.0
	오피스텔	(8)	12.5	12.5	50.0	0.0	0.0	12.5	12.5	0.0
	다세대주택(빌라)	(39)	7.7	20.5	35.9	10.3	7.7	0.0	17.9	0.0
	반지하	(6)	33.3	0.0	16.7	16.7	33.3	0.0	0.0	0.0
	고시원/원룸	(19)	21.1	10.5	15.8	10.5	15.8	5.3	15.8	5.3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3)	33.3	0.0	66.7	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44)	20.5	22.7	11.4	9.1	18.2	2.3	13.6	2.3
	200~300만 원	(37)	10.8	13.5	48.6	8.1	8.1	2.7	8.1	0.0
	300~400만 원	(13)	23.1	7.7	30.8	23.1	7.7	0.0	7.7	0.0
	400만 원 이상	(6)	0.0	16.7	33.3	16.7	0.0	0.0	33.3	0.0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11)	9.1	18.2	45.5	0.0	0.0	9.1	18.2	0.0
	2~3년	(17)	0.0	5.9	47.1	11.8	17.6	0.0	17.6	0.0
	4~5년	(16)	25.0	25.0	25.0	6.3	6.3	0.0	12.5	0.0
	6~10년	(30)	16.7	13.3	23.3	23.3	10.0	0.0	13.3	0.0
	11년 이상	(26)	23.1	23.1	19.2	3.8	19.2	3.8	3.8	3.8

③ 가장 필요한 1인가구 안전 지원정책

- '1인가구를 위한 안전 지원정책'으로 '주택 주변 환경 개선'이 44.9%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주택 내부환경 개선' 23.2%, '위급상황 시 사회적 보호장치 제공' 13.7%, '귀갓길 지역순찰 동행 제공' 7.8%, '재난 위기상황 대응능력향상 지원' 6.4%, '안심교류존' 3.5% 순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 주택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 여성(46.7%)이 남성(43.1%)보다 3.6%p 높았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부권'(52.4%) > '서부권'(46.5%) > '동부권'(42.6%) > '북부권'(39.0%) 순으로 '주택 주변 환경 개선'이 높게 조사됨.
- 최종학력이 올라갈수록 '주택 내부환경 개선'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소득이 증가할수록 '주택 주변 환경 개선'의 비율은 증가하고 '주택 내부환경 개선'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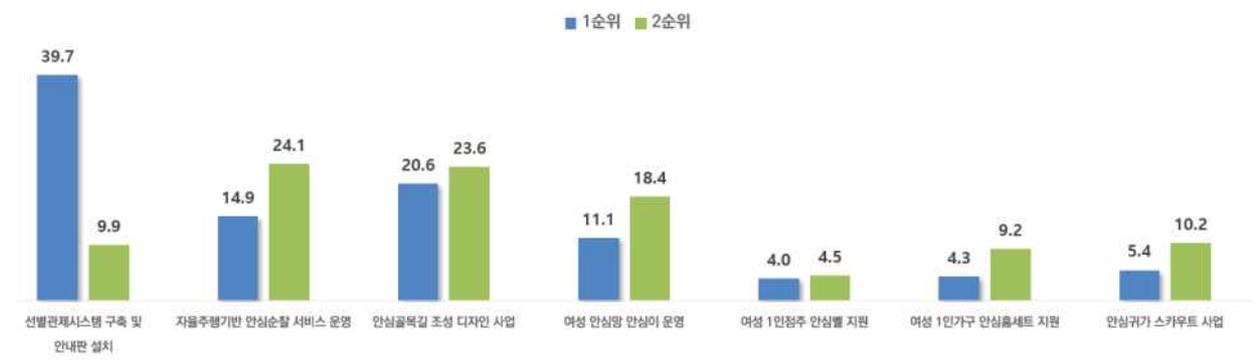
[Base : 전체,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주택 내부환경 개선	주택 주변 환경 개선	위급상황 시 사회적 보호장치 제공	귀갓길 지역순찰 동행 제공	재난위기사 항 대응능력 항상 지원	안심교류존	기타
전체		(423)	23.2	44.9	13.7	7.8	6.4	3.5	0.5
성별	남성	(211)	22.3	43.1	16.1	7.6	7.1	3.3	0.5
	여성	(212)	24.1	46.7	11.3	8.0	5.7	3.8	0.5
연령	청년층	(138)	13.0	54.3	10.1	12.3	5.8	3.6	0.7
	중장년층	(140)	23.6	47.1	15.7	4.3	4.3	5.0	0.0
	노년층	(145)	32.4	33.8	15.2	6.9	9.0	2.1	0.7
지역	북부권	(118)	22.0	39.0	9.3	11.0	11.9	5.9	0.8
	동부권	(101)	25.7	42.6	10.9	6.9	5.9	6.9	1.0
	남부권	(103)	32.0	52.4	7.8	3.9	2.9	1.0	0.0
	서부권	(101)	12.9	46.5	27.7	8.9	4.0	0.0	0.0
최종 학력	무학	(4)	50.0	0.0	0.0	25.0	25.0	0.0	0.0
	초등학교	(26)	53.8	23.1	7.7	0.0	7.7	7.7	0.0
	중학교	(37)	35.1	45.9	10.8	5.4	0.0	2.7	0.0
	고등학교	(107)	27.1	39.3	15.0	3.7	11.2	3.7	0.0
	대학(4년제 미만)	(68)	23.5	42.6	19.1	2.9	7.4	4.4	0.0
	대학(4년제 이상)	(166)	14.5	54.8	9.6	13.3	4.2	2.4	1.2
	대학원(석사)	(11)	0.0	45.5	45.5	9.1	0.0	0.0	0.0
	대학원(박사)	(4)	0.0	0.0	50.0	25.0	0.0	25.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27.2	43.2	16.0	8.6	3.7	1.2	0.0
	아파트	(40)	15.0	55.0	10.0	12.5	5.0	2.5	0.0
	오피스텔	(51)	19.6	47.1	5.9	11.8	13.7	2.0	0.0
	다세대주택(빌라)	(154)	26.0	44.2	16.2	5.2	3.2	4.5	0.6
	반지하	(27)	29.6	37.0	22.2	3.7	3.7	3.7	0.0
	고시원/원룸	(64)	18.8	45.3	9.4	9.4	10.9	4.7	1.6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0.0	20.0	20.0	0.0	40.0	20.0	0.0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28.1	39.2	13.1	5.9	7.8	5.2	0.7
	200~300만 원	(156)	23.1	45.5	14.1	6.4	6.4	3.8	0.6
	300~400만 원	(76)	19.7	51.3	11.8	13.2	2.6	1.3	0.0
	400만 원 이상	(38)	10.5	52.6	18.4	10.5	7.9	0.0	0.0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19.1	59.6	6.4	0.0	10.6	4.3	0.0
	2~3년	(61)	26.2	45.9	11.5	9.8	3.3	3.3	0.0
	4~5년	(67)	23.9	37.3	20.9	10.4	6.0	1.5	0.0
	6~10년	(116)	23.3	41.4	8.6	11.2	9.5	5.2	0.9
	11년 이상	(132)	22.7	46.2	18.2	5.3	3.8	3.0	0.8

④ 안전 분야 주요 지원사업

-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 분야 주요 지원사업 중 확대 및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 1순위는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설치'가 39.7%로 가장 높았음. 2순위로는 '자율주행 기반 안심 순찰 서비스 운영'이 24.1%로 가장 높았음.
- 1, 2순위를 합할 경우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설치'가 49.6%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 사업'이 44.2%, '자율주행기반 안심 순찰 서비스 운영' 39.0%, '여성 안심망 안심이 운영' 29.5%, '안심 귀가 스카우트 사업' 15.6%,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13.5%, '여성 1인 점주 안심벨 지원' 8.5% 순으로 나타남.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응답자 특성별]

- 연령이 높을수록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설치'의 비율이 높았음.
- 지역적으로 보면 1순위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남부권'(61.2%) > '서부권'(38.6%), '북부권'(36.4%) > '동부권'(22.8%) 순으로 나타남.
- 주택 유형의 경우 1순위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설치'에 대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반지하'만 50.0% 이상 조사됨.
- 소득수준에 따라 1순위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설치'의 비율이 감소하고,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 사업'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Base : 전체, 단위 : %]

1순위		사례수 (명)	선별관제시 스템 구축 및 안내판 설치	자율주행기 반 안심 순찰 서비스 운영	안심 골목길 조성 디자인 사업	여성 안심망 안심이 운영	여성 1인 점주 안심벨 지원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안심 귀가 스카우트 사업
전체		(423)	39.7	14.9	20.6	11.1	4.0	4.3	5.4
성별	남성	(211)	44.5	15.6	21.3	10.0	4.7	1.4	2.4
	여성	(212)	34.9	14.2	19.8	12.3	3.3	7.1	8.5
연령	청년층	(138)	25.4	18.1	18.8	15.2	2.9	9.4	10.1
	중장년층	(140)	38.6	14.3	22.1	12.1	7.9	2.1	2.9
	노년층	(145)	54.5	12.4	20.7	6.2	1.4	1.4	3.4
지역	북부권	(118)	36.4	22.9	21.2	8.5	0.8	4.2	5.9
	동부권	(101)	22.8	12.9	29.7	14.9	7.9	7.9	4.0
	남부권	(103)	61.2	15.5	12.6	3.9	3.9	0.0	2.9
	서부권	(101)	38.6	6.9	18.8	17.8	4.0	5.0	8.9
최종 학력	무학	(4)	50.0	50.0	0.0	0.0	0.0	0.0	0.0
	초등학교	(26)	61.5	15.4	23.1	0.0	0.0	0.0	0.0
	중학교	(37)	45.9	16.2	21.6	5.4	2.7	5.4	2.7
	고등학교	(107)	47.7	11.2	23.4	9.3	4.7	1.9	1.9
	대학(4년제 미만)	(68)	36.8	20.6	14.7	17.6	2.9	1.5	5.9
	대학(4년제 이상)	(166)	30.7	14.5	20.5	13.3	5.4	6.6	9.0
	대학원(석사)	(11)	36.4	0.0	27.3	9.1	0.0	18.2	9.1
	대학원(박사)	(4)	50.0	25.0	25.0	0.0	0.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50.6	11.1	17.3	9.9	2.5	3.7	4.9
	아파트	(40)	40.0	17.5	15.0	12.5	5.0	2.5	7.5
	오피스텔	(51)	31.4	11.8	21.6	13.7	3.9	7.8	9.8
	다세대주택(빌라)	(154)	38.3	14.3	24.0	10.4	4.5	3.9	4.5
	반지하	(27)	51.9	7.4	25.9	7.4	0.0	3.7	3.7
	고시원/원룸	(64)	32.8	23.4	17.2	14.1	4.7	3.1	4.7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20.0	20.0	0.0	20.0	20.0	0.0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42.5	17.6	19.6	8.5	5.2	2.6	3.9
	200~300만 원	(156)	40.4	12.2	19.9	12.2	3.2	7.1	5.1
	300~400만 원	(76)	38.2	9.2	22.4	14.5	3.9	1.3	10.5
	400만 원 이상	(38)	28.9	26.3	23.7	10.5	2.6	5.3	2.6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27.7	14.9	23.4	14.9	6.4	8.5	4.3
	2~3년	(61)	29.5	16.4	19.7	14.8	6.6	6.6	6.6
	4~5년	(67)	34.3	17.9	19.4	13.4	3.0	3.0	9.0
	6~10년	(116)	40.5	12.1	22.4	10.3	4.3	3.4	6.9
	11년 이상	(132)	50.8	15.2	18.9	7.6	2.3	3.0	2.3

[Base : 전체, 단위 : %]

2순위		사례수 (명)	선별관제시 스템 구축 및 안내판 설치	자율주행기 반 안심 순찰 서비스 운영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 사업	여성 안심망 안심이 운영	여성 1인 점주 안심벨 지원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 트 지원	안심 귀가 스카우트 사업
전체		(423)	9.9	24.1	23.6	18.4	4.5	9.2	10.2
성별	남성	(211)	10.9	27.5	23.2	17.1	3.3	7.6	10.4
	여성	(212)	9.0	20.8	24.1	19.8	5.7	10.8	9.9
연령	청년층	(138)	11.6	21.7	20.3	19.6	2.9	11.6	12.3
	중장년층	(140)	8.6	25.0	22.1	19.3	6.4	10.0	8.6
	노년층	(145)	9.7	25.5	28.3	16.6	4.1	6.2	9.7
지역	북부권	(118)	7.6	28.0	24.6	22.0	4.2	7.6	5.9
	동부권	(101)	10.9	23.8	14.9	25.7	3.0	12.9	8.9
	남부권	(103)	14.6	25.2	35.9	7.8	4.9	4.9	6.8
	서부권	(101)	6.9	18.8	18.8	17.8	5.9	11.9	19.8
최종 학력	무학	(4)	25.0	25.0	50.0	0.0	0.0	0.0	0.0
	초등학교	(26)	7.7	23.1	46.2	19.2	0.0	0.0	3.8
	중학교	(37)	13.5	29.7	27.0	13.5	5.4	5.4	5.4
	고등학교	(107)	10.3	26.2	24.3	19.6	1.9	8.4	9.3
	대학(4년제 미만)	(68)	11.8	23.5	26.5	14.7	4.4	8.8	10.3
	대학(4년제 이상)	(166)	6.6	22.3	18.1	21.7	7.2	12.0	12.0
	대학원(석사)	(11)	27.3	9.1	18.2	9.1	0.0	18.2	18.2
	대학원(박사)	(4)	25.0	50.0	0.0	0.0	0.0	0.0	25.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11.1	30.9	27.2	12.3	1.2	8.6	8.6
	아파트	(40)	5.0	22.5	20.0	20.0	7.5	10.0	15.0
	오피스텔	(51)	9.8	21.6	19.6	29.4	5.9	9.8	3.9
	다세대주택(빌라)	(154)	11.0	22.7	21.4	20.1	3.2	9.7	11.7
	반지하	(27)	7.4	22.2	33.3	18.5	3.7	11.1	3.7
	고시원/원룸	(64)	9.4	23.4	25.0	10.9	9.4	7.8	14.1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0.0	20.0	40.0	40.0	0.0	0.0	0.0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12.4	24.8	27.5	15.0	3.9	7.8	8.5
	200~300만 원	(156)	9.0	23.7	23.1	19.9	3.2	10.3	10.9
	300~400만 원	(76)	7.9	26.3	21.1	17.1	5.3	11.8	10.5
	400만 원 이상	(38)	7.9	18.4	15.8	28.9	10.5	5.3	13.2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10.6	27.7	25.5	12.8	2.1	10.6	10.6
	2~3년	(61)	0.0	21.3	14.8	27.9	6.6	13.1	16.4
	4~5년	(67)	13.4	19.4	23.9	23.9	3.0	7.5	9.0
	6~10년	(116)	9.5	25.9	25.9	17.2	3.4	12.1	6.0
	11년 이상	(132)	12.9	25.0	25.0	14.4	6.1	5.3	11.4

4 사회적 관계망

① 고민이나 어려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고민이나 어려움 등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해결'이 34.1%로 가장 많았음.
- 그다음으로, '친구'(19.0%) > '부모'(12.1%) > '형제·자매'(8.5%) > '애인'(7.7%) > '자녀'(6.5%) > '직장(학교)동료'(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중복포함 : 741명,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 남성은 '스스로 해결'(39.9%) > '친구'(15.7%) > '부모'(9.6%) > '형제·자매'(8.7%) 순으로 여성은 '스스로 해결'(29.1%) > '친구'(21.9%) > '부모'(14.3%) > '애인'(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친구'나 '부모'에게 많이 의지하는 것으로 보임.
-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북부권'에서 '서부권'으로 갈수록 '스스로 해결'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북부권'과 '서부권'은 '직장(학교)동료'나 '가까운 이웃'에 의지하는 비율이 '동부권'과 '남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부모' 또는 '자녀'보다는 '친구'나 '직장(학교)동료'가 고민이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길수록 '부모'보다는 '형제·자매' 또는 '자녀'를 고민이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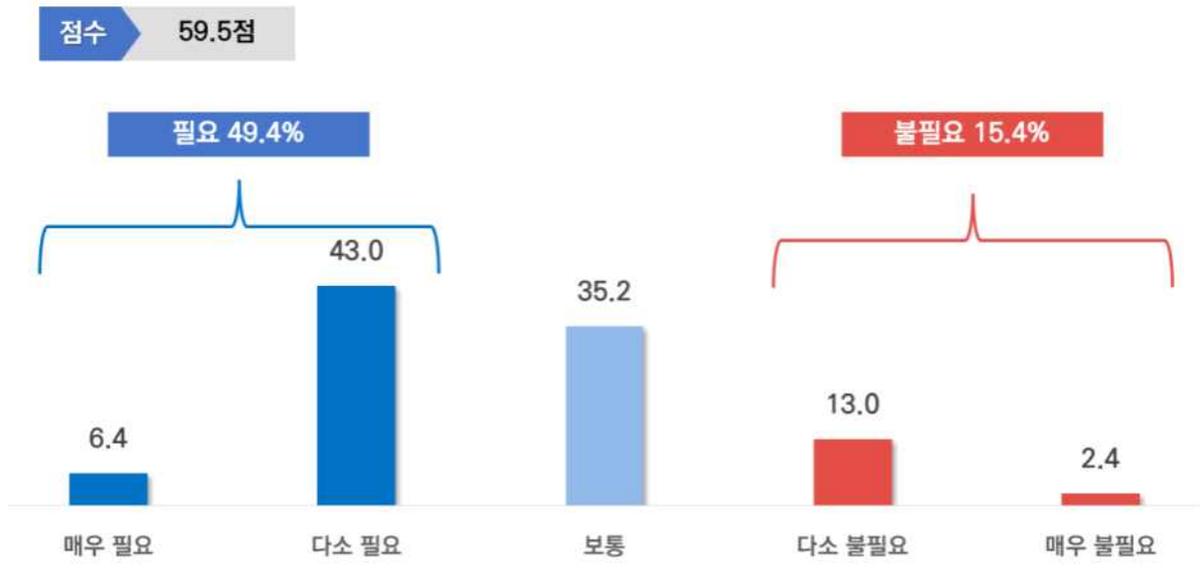
[Base : 전체, 단위 : %, 복수 응답]

구분		사례 수 중복포함 (명)	스스로 해결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친구	애인	직장 (학교) 동료	친척	가까운 이웃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전문 상담사 (심리 치료사, 정신과 의사)	없음
전체		(741)	34.1	12.1	8.2	6.5	19.0	7.7	5.3	0.8	3.2	0.8	0.3	1.9
성별	남성	(343)	39.9	9.6	8.7	5.5	15.7	7.3	7.0	0.6	1.5	0.9	0.3	2.9
	여성	(398)	29.1	14.3	7.8	7.3	21.9	8.0	3.8	1.0	4.8	0.8	0.3	1.0
연령	청년층	(340)	25.0	21.2	9.7	0.0	19.1	14.4	5.0	1.8	0.6	1.2	0.6	1.5
	중장년층	(203)	44.8	8.9	8.9	2.5	22.2	2.0	5.9	0.0	2.0	0.5	0.0	2.5
	노년층	(198)	38.9	0.0	5.1	21.7	15.7	2.0	5.1	0.0	9.1	0.5	0.0	2.0
지역	북부권	(202)	29.7	14.4	9.9	3.5	17.3	10.4	7.4	1.0	3.0	0.0	0.0	3.5
	동부권	(190)	30.0	14.2	7.9	10.5	18.4	10.5	2.6	1.1	1.6	1.1	0.5	1.6
	남부권	(163)	38.7	9.8	9.2	5.5	23.3	4.3	3.1	0.6	1.8	0.6	0.6	2.5
	서부권	(186)	39.2	9.7	5.9	6.5	17.7	4.8	7.5	0.5	6.5	1.6	0.0	0.0
최종 학력	무학	(4)	25.0	0.0	0.0	50.0	0.0	0.0	0.0	0.0	25.0	0.0	0.0	0.0
	초등학교	(28)	25.0	0.0	7.1	28.6	35.7	0.0	0.0	0.0	0.0	0.0	0.0	3.6
	중학교	(48)	37.5	0.0	4.2	27.1	10.4	2.1	2.1	0.0	8.3	2.1	0.0	6.3
	고등학교	(154)	44.8	5.8	6.5	12.3	17.5	1.3	2.6	0.6	7.1	0.6	0.0	0.6
	대학(4년제 미만)	(115)	33.9	11.3	8.7	1.7	21.7	7.8	7.0	0.9	3.5	1.7	1.7	0.0
	대학(4년제 이상)	(350)	30.6	18.0	10.0	0.9	18.6	11.1	6.6	1.1	0.9	0.3	0.0	2.0
	대학원(석사)	(32)	28.1	12.5	3.1	3.1	25.0	12.5	6.3	0.0	3.1	3.1	0.0	3.1
	대학원(박사)	(10)	30.0	10.0	10.0	0.0	10.0	20.0	10.0	0.0	0.0	0.0	0.0	1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125)	44.0	9.6	5.6	8.0	17.6	4.8	4.0	0.0	3.2	0.8	0.0	2.4
	아파트	(62)	40.3	3.2	8.1	9.7	25.8	0.0	6.5	0.0	3.2	0.0	0.0	3.2
	오피스텔	(107)	26.2	17.8	9.3	0.0	20.6	13.1	9.3	0.9	0.9	0.9	0.0	0.9
	다세대주택(빌라)	(266)	30.5	12.4	7.1	9.8	21.1	6.8	5.3	0.8	3.8	0.8	0.8	1.1
	반지하	(38)	47.4	2.6	5.3	5.3	18.4	2.6	2.6	0.0	10.5	0.0	0.0	5.3
	고시원/원룸	(131)	32.8	16.0	11.5	3.1	13.0	13.0	3.8	2.3	1.5	0.8	0.0	2.3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9)	33.3	11.1	22.2	0.0	0.0	11.1	0.0	0.0	11.1	11.1	0.0	0.0
	기타	(3)	0.0	33.3	33.3	0.0	33.3	0.0	0.0	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243)	33.7	10.3	6.2	14.4	17.3	6.6	2.9	0.4	4.9	0.8	0.0	2.5
	200~300만 원	(277)	35.0	15.2	10.1	3.2	17.7	6.5	4.7	1.4	3.6	0.7	0.4	1.4
	300~400만 원	(145)	32.4	10.3	6.9	1.4	23.4	13.1	9.0	0.0	0.7	0.7	0.7	1.4
	400만 원 이상	(76)	35.5	10.5	10.5	2.6	21.1	5.3	7.9	1.3	1.3	1.3	0.0	2.6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101)	29.7	16.8	9.9	3.0	16.8	11.9	3.0	2.0	2.0	1.0	1.0	3.0
	2~3년	(111)	36.0	16.2	4.5	5.4	18.9	10.8	4.5	0.0	1.8	0.9	0.0	0.9
	4~5년	(131)	31.3	16.0	8.4	3.8	16.8	11.5	6.1	0.8	0.8	2.3	0.8	1.5
	6~10년	(182)	37.4	8.8	6.6	6.0	20.9	7.1	6.6	1.6	3.3	0.0	0.0	1.6
	11년 이상	(216)	34.3	8.3	10.6	10.6	19.9	2.3	5.1	0.0	6.0	0.5	0.0	2.3

② 1인가구 정보교류의 장 필요성

- '관악구 내 1인가구 간 정보교류의 장'에 관해 '필요'(매우 필요함 6.4%, 다소 필요함 43.0%)라는 답변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보통'은 35.2%로 조사되며 '불필요'(다소 불필요함 13.0%, 매우 불필요함 2.4%)는 15.4%임.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 성별의 경우 '여성'(60.3점)이 '남성'(58.8점)보다 1.5점 더 높았음.
- 연령대의 경우 '청년층'(60.1점) > '노년층'(59.8점) > '중장년층'(58.6점)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부권'(64.1점) > '동부권'(63.1점) > '서부권'(57.2점) > '북부권'(54.4점) 순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의 경우 '초등학교'가 65.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61.5점) > '대학(4년제 이상)'(60.4점) > '고등학교'(59.8점) 순으로 나타남.
- 주택 유형의 경우 '단독주택'과 '반지하'가 6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61.9점) > '다세대주택'(59.9점) > '오피스텔'(58.3점) . '고시원/원룸'(55.1점) 순으로 조사됨.
- 소득수준의 경우 '300~400만 원 미만'이 6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400만 원 이상'(61.2점) > '200만 원 이하'(60.6점) > '200~300만 원 미만'(57.1점) 순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	다소 필요	보통	다소 불필요	매우 불필요	TOP2	MIDDLE	BOT2	평점
전체		(423)	6.4	43.0	35.2	13.0	2.4	49.4	35.2	15.4	59.5
성별	남성	(211)	7.1	42.2	33.2	13.7	3.8	49.3	33.2	17.5	58.8
	여성	(212)	5.7	43.9	37.3	12.3	0.9	49.5	37.3	13.2	60.3
연령	청년층	(138)	10.9	37.0	37.7	10.9	3.6	47.8	37.7	14.5	60.1
	중장년층	(140)	5.0	42.1	36.4	15.0	1.4	47.1	36.4	16.4	58.6
	노년층	(145)	3.4	49.7	31.7	13.1	2.1	53.1	31.7	15.2	59.8
지역	북부권	(118)	5.9	31.4	39.8	20.3	2.5	37.3	39.8	22.9	54.4
	동부권	(101)	8.9	49.5	30.7	6.9	4.0	58.4	30.7	10.9	63.1
	남부권	(103)	7.8	50.5	33.0	7.8	1.0	58.3	33.0	8.7	64.1
	서부권	(101)	3.0	42.6	36.6	15.8	2.0	45.5	36.6	17.8	57.2
최종 학력	무학	(4)	0.0	50.0	25.0	25.0	0.0	50.0	25.0	25.0	56.3
	초등학교	(26)	0.0	65.4	30.8	3.8	0.0	65.4	30.8	3.8	65.4
	중학교	(37)	5.4	48.6	32.4	13.5	0.0	54.1	32.4	13.5	61.5
	고등학교	(107)	4.7	46.7	32.7	15.0	0.9	51.4	32.7	15.9	59.8
	대학(4년제 미만)	(68)	7.4	35.3	35.3	19.1	2.9	42.6	35.3	22.1	56.3
	대학(4년제 이상)	(166)	8.4	40.4	38.6	9.6	3.0	48.8	38.6	12.7	60.4
	대학원(석사)	(11)	9.1	36.4	27.3	18.2	9.1	45.5	27.3	27.3	54.5
	대학원(박사)	(4)	0.0	0.0	50.0	25.0	25.0	0.0	50.0	50.0	31.3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7.4	44.4	38.3	8.6	1.2	51.9	38.3	9.9	62.0
	아파트	(40)	5.0	50.0	35.0	7.5	2.5	55.0	35.0	10.0	61.9
	오피스텔	(51)	3.9	47.1	31.4	13.7	3.9	51.0	31.4	17.6	58.3
	다세대주택(빌라)	(154)	7.1	43.5	33.1	14.3	1.9	50.6	33.1	16.2	59.9
	반지하	(27)	3.7	51.9	33.3	11.1	0.0	55.6	33.3	11.1	62.0
	고시원/원룸	(64)	7.8	29.7	40.6	18.8	3.1	37.5	40.6	21.9	55.1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0.0	40.0	20.0	20.0	20.0	40.0	20.0	40.0	45.0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5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7.2	42.5	36.6	13.1	0.7	49.7	36.6	13.7	60.6
	200~300만 원	(156)	4.5	43.6	32.1	15.4	4.5	48.1	32.1	19.9	57.1
	300~400만 원	(76)	6.6	43.4	39.5	10.5	0.0	50.0	39.5	10.5	61.5
	400만 원 이상	(38)	10.5	42.1	34.2	7.9	5.3	52.6	34.2	13.2	61.2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6.4	31.9	40.4	21.3	0.0	38.3	40.4	21.3	55.9
	2~3년	(61)	6.6	54.1	23.0	14.8	1.6	60.7	23.0	16.4	62.3
	4~5년	(67)	6.0	44.8	37.3	9.0	3.0	50.7	37.3	11.9	60.4
	6~10년	(116)	6.9	41.4	37.9	10.3	3.4	48.3	37.9	13.8	59.5
	11년 이상	(132)	6.1	42.4	35.6	13.6	2.3	48.5	35.6	15.9	59.1

③ 가장 필요한 1인가구 문화 및 사회적 지원정책

- '1인가구를 위한 문화 및 사회적 지원정책 중 '소모임 지원'의 수요가 28.6%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활동 프로그램'(22.0%) > '커뮤니티 공간'(17.3%) > '프로그램 정보제공'(13.5%) > '문화예술 프로그램'(6.4%) 순으로 나타남.

[Base : 전체,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 남성은 '소모임 지원'(31.3%) > '커뮤니티 공간'(21.3%) > '활동 프로그램'(19.4%) > '프로그램 정보제공'(14.7%) 순으로 여성은 '소모임 지원'(25.9%) > '활동 프로그램'(24.5%) > '커뮤니티 공간'(13.2%) > '프로그램 정보제공'(12.3%) 순으로 수요가 나타남.
- 청년층은 '활동 프로그램'(30.4%) > '커뮤니티 공간'(21.0%) > '소모임 지원'(16.7%), 중장년층은 '소모임 지원'(32.9%) > '활동 프로그램'(21.4%) > '커뮤니티 공간'(14.3%), 노년층은 '소모임 지원'(35.9%) > '프로그램 정보제공'(17.9%) > '커뮤니티 공간'(16.6%) 순으로 수요가 조사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소모임 지원'의 수요가 가장 높았음.
-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모임 지원'은 감소하고, '활동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소득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활동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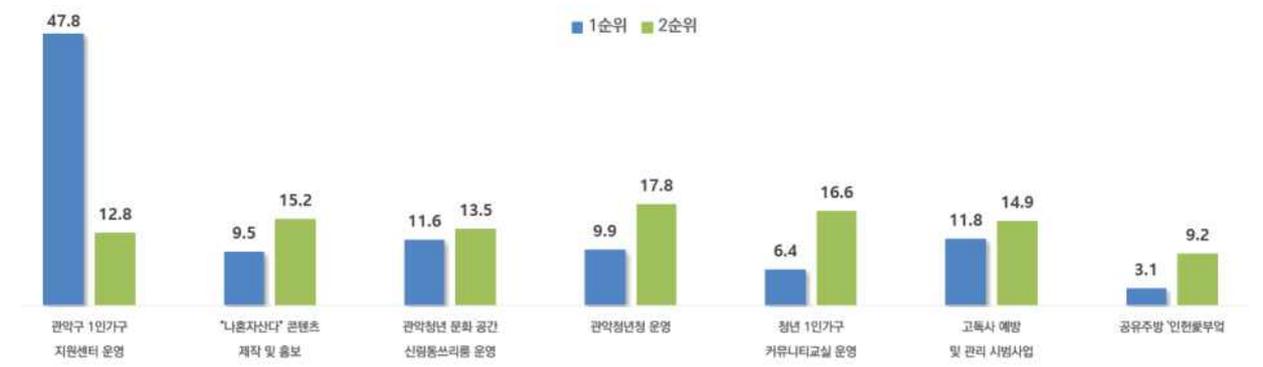
[Base : 전체,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소모임 지원	커뮤니티 공간	프로그램 정보제공	활동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반려동 식물 양육지원	AI 수다 서비스	1인 가구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등	기타
전체		(423)	28.6	17.3	13.5	22.0	6.4	4.7	3.5	3.5	0.5
성별	남성	(211)	31.3	21.3	14.7	19.4	2.8	4.3	2.8	2.8	0.5
	여성	(212)	25.9	13.2	12.3	24.5	9.9	5.2	4.2	4.2	0.5
연령	청년층	(138)	16.7	21.0	9.4	30.4	11.6	7.2	1.4	1.4	0.7
	중장년층	(140)	32.9	14.3	12.9	21.4	7.9	3.6	2.1	5.0	0.0
	노년층	(145)	35.9	16.6	17.9	14.5	0.0	3.4	6.9	4.1	0.7
지역	북부권	(118)	31.4	16.9	9.3	28.8	7.6	3.4	0.0	2.5	0.0
	동부권	(101)	14.9	18.8	9.9	17.8	7.9	8.9	11.9	7.9	2.0
	남부권	(103)	27.2	25.2	20.4	22.3	3.9	0.0	0.0	1.0	0.0
	서부권	(101)	40.6	7.9	14.9	17.8	5.9	6.9	3.0	3.0	0.0
최종 학력	무학	(4)	50.0	25.0	0.0	0.0	0.0	0.0	25.0	0.0	0.0
	초등학교	(26)	42.3	23.1	7.7	15.4	0.0	0.0	0.0	11.5	0.0
	중학교	(37)	37.8	13.5	18.9	8.1	0.0	2.7	10.8	8.1	0.0
	고등학교	(107)	29.9	21.5	19.6	16.8	2.8	2.8	3.7	2.8	0.0
	대학(4년제 미만)	(68)	29.4	11.8	8.8	23.5	8.8	4.4	5.9	5.9	1.5
	대학(4년제 이상)	(166)	22.9	17.5	12.7	28.3	9.6	6.6	0.6	1.2	0.6
	대학원(석사)	(11)	18.2	9.1	0.0	45.5	18.2	9.1	0.0	0.0	0.0
	대학원(박사)	(4)	50.0	0.0	0.0	0.0	0.0	25.0	25.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39.5	16.0	14.8	12.3	4.9	1.2	6.2	4.9	0.0
	아파트	(40)	22.5	7.5	12.5	37.5	7.5	10.0	0.0	2.5	0.0
	오피스텔	(51)	17.6	15.7	13.7	27.5	13.7	7.8	2.0	2.0	0.0
	다세대주택(빌라)	(154)	30.5	19.5	12.3	21.4	5.8	4.5	3.2	2.6	0.0
	반지하	(27)	37.0	14.8	14.8	22.2	0.0	0.0	3.7	7.4	0.0
	고시원/원룸	(64)	21.9	23.4	12.5	20.3	6.3	6.3	3.1	4.7	1.6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0.0	0.0	40.0	20.0	0.0	0.0	20.0	0.0	20.0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29.4	13.7	15.0	18.3	5.9	3.9	5.2	7.2	1.3
	200~300만 원	(156)	23.7	23.7	14.7	23.7	5.1	4.5	3.2	1.3	0.0
	300~400만 원	(76)	35.5	13.2	10.5	19.7	9.2	7.9	1.3	2.6	0.0
	400만 원 이상	(38)	31.6	13.2	7.9	34.2	7.9	2.6	2.6	0.0	0.0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14.9	21.3	17.0	21.3	8.5	6.4	2.1	8.5	0.0
	2~3년	(61)	31.1	16.4	4.9	23.0	9.8	8.2	1.6	4.9	0.0
	4~5년	(67)	26.9	16.4	13.4	26.9	6.0	7.5	1.5	1.5	0.0
	6~10년	(116)	35.3	18.1	11.2	20.7	3.4	5.2	3.4	1.7	0.9
	11년 이상	(132)	27.3	15.9	18.2	20.5	6.8	0.8	6.1	3.8	0.8

④ 사회적 관계망 분야 주요 지원사업

-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 분야 지원사업 중 1순위로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47.8%)을 확대 및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 가장 많이 선택함.
- 2순위로는 '관악청년청 운영'(17.8%)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조사됨.
- 1순위와 2순위를 합했을 때 '관악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이 6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관악청년청 운영'(27.7%)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26.7%) > '관악 청년문화 공간 신림동쓰리룸 운영'(25.1%) > "'나혼자산다' 콘텐츠 제작 및 홍보'(24.7%) 순으로 나타남.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응답자 특성별]

-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여성'(49.1%)이 '남성'(46.4%)보다 2.7%p 더 높았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노년층'(54.5%) > '청년층'(46.4%) > '중장년층'(42.1%) 순으로 조사됨.
- 지역의 경우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남부권'이 69.9%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서부권'(51.5%) > '북부권'(44.9%) > '동부권'(24.8%) 순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은 감소하고 있고, "'나혼자 산다' 콘텐츠 홍보'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소득 구분에 따라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400만 원 이상'이 55.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0~300만 원 미만'(48.7%) > '200만 원 이하'(47.7%) > '300~400만 원 미만'(42.1%) 순으로 조사됨.
-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의 비율이 증가하고, 청년 1인가구 커뮤니티 교실 운영'은 감소하고 있음.

[Base : 전체, 단위 : %]

1순위	사례수 (명)	관악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나혼자산다”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관악청년문 화공간 신림동쓰리 룸 운영	관악청년청 운영	청년 1인 가구 커뮤니티 교실 운영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유주방 ‘인헌爰부엌’ 지역 내 나눔, 공유문화 확산 및 취약계층	
전체	(423)	47.8	9.5	11.6	9.9	6.4	11.8	3.1	
성별	남성	(211)	46.4	10.9	12.3	12.8	5.7	10.0	1.9
	여성	(212)	49.1	8.0	10.8	7.1	7.1	13.7	4.2
연령	청년층	(138)	46.4	10.9	12.3	13.0	7.2	7.2	2.9
	중장년층	(140)	42.1	13.6	12.9	9.3	7.1	10.7	4.3
	노년층	(145)	54.5	4.1	9.7	7.6	4.8	17.2	2.1
지역	북부권	(118)	44.9	16.9	16.1	6.8	5.9	8.5	0.8
	동부권	(101)	24.8	7.9	17.8	18.8	9.9	17.8	3.0
	남부권	(103)	69.9	7.8	7.8	3.9	2.9	4.9	2.9
	서부권	(101)	51.5	4.0	4.0	10.9	6.9	16.8	5.9
최종 학력	무학	(4)	75.0	0.0	0.0	0.0	0.0	25.0	0.0
	초등학교	(26)	61.5	0.0	15.4	3.8	0.0	19.2	0.0
	중학교	(37)	43.2	8.1	13.5	13.5	5.4	13.5	2.7
	고등학교	(107)	46.7	8.4	13.1	8.4	8.4	13.1	1.9
	대학(4년제 미만)	(68)	44.1	10.3	10.3	13.2	5.9	11.8	4.4
	대학(4년제 이상)	(166)	48.8	11.4	10.2	9.6	6.6	10.2	3.0
	대학원(석사)	(11)	45.5	18.2	0.0	18.2	0.0	0.0	18.2
대학원(박사)	(4)	25.0	0.0	50.0	0.0	25.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55.6	9.9	7.4	7.4	8.6	8.6	2.5
	아파트	(40)	45.0	12.5	15.0	10.0	7.5	7.5	2.5
	오피스텔	(51)	45.1	9.8	15.7	15.7	2.0	5.9	5.9
	다세대주택(빌라)	(154)	50.6	7.1	13.0	9.1	5.2	13.0	1.9
	반지하	(27)	44.4	22.2	3.7	18.5	0.0	7.4	3.7
	고시원/원룸	(64)	37.5	6.3	12.5	7.8	12.5	20.3	3.1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20.0	0.0	0.0	0.0	40.0	20.0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47.7	7.8	11.1	9.8	5.9	14.4	3.3
	200~300만 원	(156)	48.7	10.9	7.7	11.5	7.7	12.8	0.6
	300~400만 원	(76)	42.1	9.2	19.7	5.3	7.9	10.5	5.3
	400만 원 이상	(38)	55.3	10.5	13.2	13.2	0.0	0.0	7.9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23.4	21.3	12.8	14.9	14.9	12.8	0.0
	2~3년	(61)	39.3	9.8	23.0	8.2	11.5	6.6	1.6
	4~5년	(67)	41.8	10.4	13.4	14.9	4.5	9.0	6.0
	6~10년	(116)	55.2	4.3	8.6	11.2	6.9	11.2	2.6
	11년 이상	(132)	56.8	9.1	7.6	5.3	1.5	15.9	3.8

[Base : 전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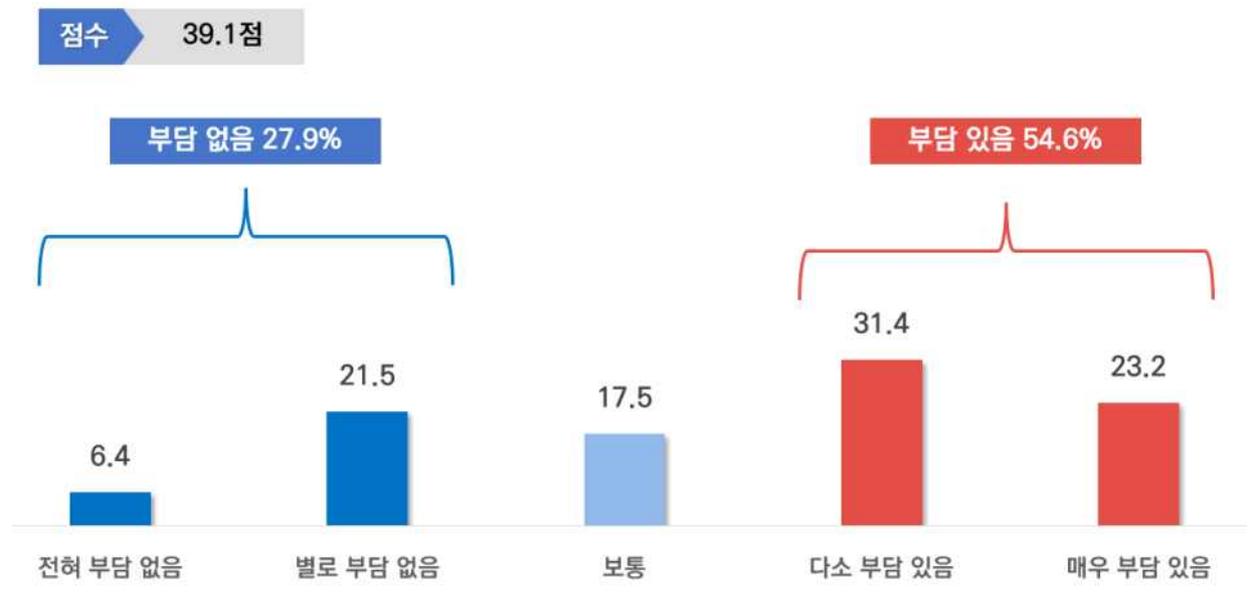
2순위		사례수 (명)	관악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나혼자산다”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관악청년문 화공간 신림동쓰리 룸 운영	관악청년청 운영	청년 1인 가구 커뮤니티 교실 운영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유주방 ‘인헌爰부엌’ 지역 내 나눔, 공유문화 확산 및 취약계층
전체		(423)	12.8	15.2	13.5	17.8	16.6	14.9	9.2
성별	남성	(211)	11.8	16.1	13.7	18.0	15.6	16.1	8.5
	여성	(212)	13.7	14.2	13.3	17.5	17.5	13.7	10.0
연령	청년층	(138)	15.2	14.5	8.0	20.3	23.9	8.7	9.4
	중장년층	(140)	14.4	18.7	14.4	18.0	13.7	11.5	9.4
	노년층	(145)	9.0	12.4	17.9	15.2	12.4	24.1	9.0
지역	북부권	(118)	11.9	16.9	11.9	21.2	16.1	15.3	6.8
	동부권	(101)	12.9	17.8	5.9	22.8	21.8	10.9	7.9
	남부권	(103)	12.7	18.6	29.4	19.6	9.8	5.9	3.9
	서부권	(101)	13.9	6.9	6.9	6.9	18.8	27.7	18.8
최종 학력	무학	(4)	0.0	50.0	25.0	0.0	0.0	25.0	0.0
	초등학교	(26)	23.1	7.7	19.2	11.5	7.7	26.9	3.8
	중학교	(37)	8.1	10.8	24.3	16.2	27.0	13.5	0.0
	고등학교	(107)	11.2	16.8	13.1	24.3	8.4	16.8	9.3
	대학(4년제 미만)	(68)	14.9	20.9	16.4	13.4	17.9	9.0	7.5
	대학(4년제 이상)	(166)	12.0	13.3	10.2	15.7	21.7	14.5	12.7
	대학원(석사)	(11)	27.3	0.0	0.0	45.5	0.0	18.2	9.1
대학원(박사)	(4)	0.0	50.0	0.0	0.0	25.0	0.0	25.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13.6	8.6	19.8	8.6	14.8	21.0	13.6
	아파트	(40)	10.3	17.9	15.4	17.9	15.4	12.8	10.3
	오피스텔	(51)	11.8	17.6	9.8	19.6	21.6	9.8	9.8
	다세대주택(빌라)	(154)	11.7	17.5	13.0	22.7	13.6	15.6	5.8
	반지하	(27)	14.8	7.4	18.5	18.5	11.1	18.5	11.1
	고시원/원룸	(64)	17.2	15.6	6.3	15.6	26.6	10.9	7.8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0.0	40.0	20.0	0.0	0.0	0.0	40.0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13.7	16.3	14.4	12.4	15.7	17.0	10.5
	200~300만 원	(156)	11.6	14.8	12.3	19.4	16.1	16.1	9.7
	300~400만 원	(76)	17.1	17.1	14.5	25.0	14.5	5.3	6.6
	400만 원 이상	(38)	5.3	7.9	13.2	18.4	26.3	21.1	7.9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14.9	17.0	8.5	17.0	23.4	8.5	10.6
	2~3년	(61)	11.5	19.7	9.8	26.2	16.4	13.1	3.3
	4~5년	(67)	16.4	14.9	9.0	19.4	17.9	11.9	10.4
	6~10년	(116)	8.6	16.4	13.8	19.8	16.4	12.9	12.1
	11년 이상	(132)	14.5	11.5	19.1	11.5	13.7	21.4	8.4

5 주거

① 주거비 부담

- 주거비 부담에 대해 54.6%가 '부담 있음'(다소 부담 있음 31.4%, 매우 부담 있음 23.2%)을 가장 많이 선택함.
- '보통'은 17.5%, '부담 없음'(전혀 부담 없음 6.4%, 별로 부담 없음 21.5%)의 경우 27.9%로 나타남.
- 주거비 부담의 평균 점수로는 39.1점으로 주거비에 대해 다소 부담 있음의 경향을 보임.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단위 : %, 점(100점 환산)]



[응답자 특성별]

- 성별에 따라 부담있음(다소 부담 있음 또는 매우 부담 있음)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남성'의 54.5%와 '여성'의 54.7%였으며, 연령층별로 '부담있음'에 대한 응답은 '청년층'(63.0%), '중장년층'(60.8%) 및 '노년층'(40.7%)로 각각 조사되어 젊은 세대일수록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비 부담의 점수화 결과 표본 수가 5개 미만인 특성을 제외하고 북부권의 주거비 부담이 '부담 있음'(69.5%)로 가장 높았고 주택유형에서는 '반지하'의 주거비 부담이(85.2%)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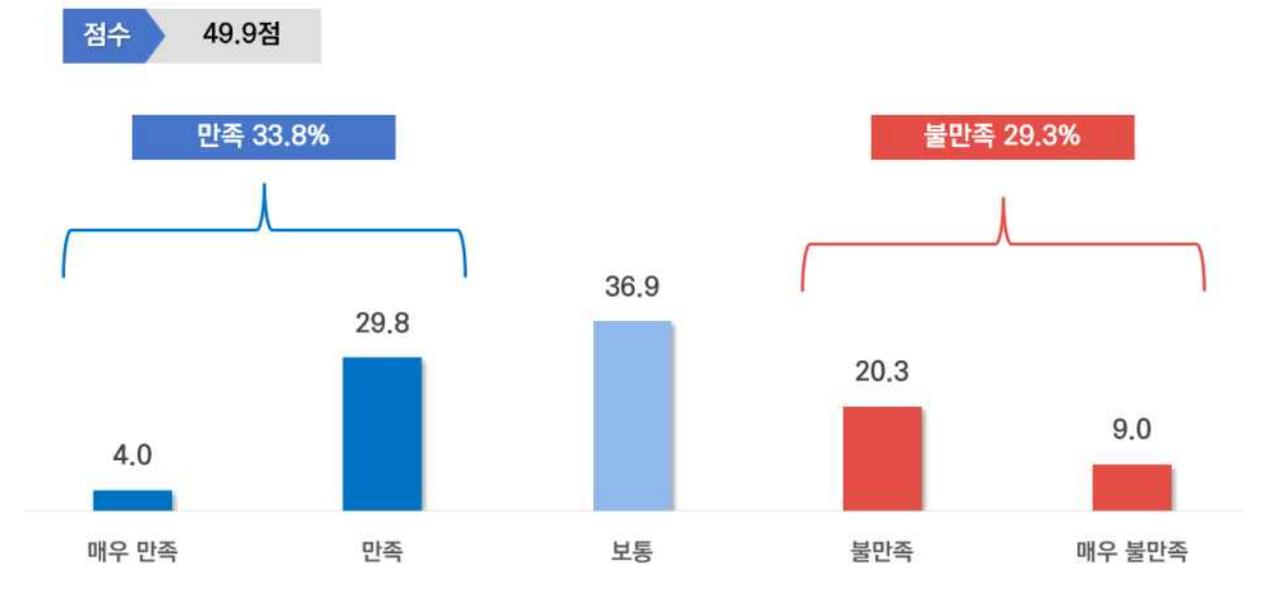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부담 없음	별로 부담 없음	보통	다소 부담 있음	매우 부담 있음	TOP2	MIDDLE	BOT2	평점
전체		(423)	6.4	21.5	17.5	31.4	23.2	27.9	17.5	54.6	39.1
성별	남성	(211)	5.7	19.4	20.4	30.3	24.2	25.1	20.4	54.5	38.0
	여성	(212)	7.1	23.6	14.6	32.5	22.2	30.7	14.6	54.7	40.2
연령	청년층	(138)	2.2	11.6	23.2	32.6	30.4	13.8	23.2	63.0	30.6
	중장년층	(140)	2.9	22.1	14.3	42.9	17.9	25.0	14.3	60.7	37.3
	노년층	(145)	13.8	30.3	15.2	19.3	21.4	44.1	15.2	40.7	49.0
지역	북부권	(118)	5.1	8.5	16.9	42.4	27.1	13.6	16.9	69.5	30.5
	동부권	(101)	3.0	21.8	23.8	31.7	19.8	24.8	23.8	51.5	39.1
	남부권	(103)	3.9	26.2	18.4	26.2	25.2	30.1	18.4	51.5	39.3
	서부권	(101)	13.9	31.7	10.9	23.8	19.8	45.5	10.9	43.6	49.0
최종 학력	무학	(4)	0.0	50.0	0.0	0.0	50.0	50.0	0.0	50.0	37.5
	초등학교	(26)	34.6	30.8	11.5	11.5	11.5	65.4	11.5	23.1	66.3
	중학교	(37)	5.4	27.0	16.2	24.3	27.0	32.4	16.2	51.4	39.9
	고등학교	(107)	1.9	25.2	16.8	29.9	26.2	27.1	16.8	56.1	36.7
	대학(4년제 미만)	(68)	4.4	23.5	14.7	39.7	17.6	27.9	14.7	57.4	39.3
	대학(4년제 이상)	(166)	5.4	15.1	19.9	34.9	24.7	20.5	19.9	59.6	35.4
	대학원(석사)	(11)	9.1	18.2	27.3	27.3	18.2	27.3	27.3	45.5	43.2
	대학원(박사)	(4)	25.0	25.0	25.0	25.0	0.0	50.0	25.0	25.0	62.5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7.4	37.0	13.6	24.7	17.3	44.4	13.6	42.0	48.1
	아파트	(40)	12.5	25.0	17.5	32.5	12.5	37.5	17.5	45.0	48.1
	오피스텔	(51)	0.0	9.8	15.7	54.9	19.6	9.8	15.7	74.5	28.9
	다세대주택(빌라)	(154)	8.4	24.7	22.7	24.7	19.5	33.1	22.7	44.2	44.5
	반지하	(27)	3.7	0.0	11.1	33.3	51.9	3.7	11.1	85.2	17.6
	고시원/원룸	(64)	3.1	10.9	14.1	34.4	37.5	14.1	14.1	71.9	27.0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0.0	0.0	20.0	60.0	20.0	0.0	20.0	80.0	25.0
	기타	(1)	0.0	100.0	0.0	0.0	0.0	100.0	0.0	0.0	75.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8.5	23.5	15.7	25.5	26.8	32.0	15.7	52.3	40.4
	200~300만 원	(156)	2.6	17.9	14.7	39.1	25.6	20.5	14.7	64.7	33.2
	300~400만 원	(76)	7.9	26.3	25.0	27.6	13.2	34.2	25.0	40.8	47.0
	400만 원 이상	(38)	10.5	18.4	21.1	31.6	18.4	28.9	21.1	50.0	42.8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0.0	21.3	14.9	29.8	34.0	21.3	14.9	63.8	30.9
	2~3년	(61)	4.9	21.3	14.8	37.7	21.3	26.2	14.8	59.0	37.7
	4~5년	(67)	3.0	16.4	26.9	34.3	19.4	19.4	26.9	53.7	37.3
	6~10년	(116)	6.9	16.4	19.0	32.8	25.0	23.3	19.0	57.8	36.9
	11년 이상	(132)	10.6	28.8	13.6	26.5	20.5	39.4	13.6	47.0	45.6

② 주택 만족도

-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에 관한 만족도 점수는 49.9점으로 조사됨.
- 주택 만족도에 관한 조사결과, '만족'(매우 만족 4.0%, 만족 29.8%)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보통'이 36.9%로 조사되었으며, '불만족'(불만족 20.3%, 매우 불만족 9.0%)의 경우 29.3%로 나타남.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단위 : %, 점(100점 환산)]



[응답자 특성별]

- '중장년층'(55.4점) > '노년층'(52.9점) > '청년층'(41.1점)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권'이 54.5점으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서부권'(52.0점) > '북부권'(47.7점) > '남부권'(45.9점) 순으로 나타남.
- 주택 유형의 경우 '아파트'가 69.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오피스텔'(53.4점) > '다세대주택'(51.1점) > '단독주택(다가구 포함)'(48.8점) 순으로 조사됨.
- 소득의 경우 '300~400만 원 미만'이 58.2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00만 원 이상'(53.9점) > '200만 원 이하'(47.4점) > '200~300만 원 미만'(47.3점) 순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TOP2	MIDDLE	BOT2	평점
전체		(423)	4.0	29.8	36.9	20.3	9.0	33.8	36.9	29.3	49.9
성별	남성	(211)	5.2	27.5	37.9	19.9	9.5	32.7	37.9	29.4	49.8
	여성	(212)	2.8	32.1	35.8	20.8	8.5	34.9	35.8	29.2	50.0
연령	청년층	(138)	0.7	18.8	39.9	25.4	15.2	19.6	39.9	40.6	41.1
	중장년층	(140)	5.0	37.9	35.0	17.9	4.3	42.9	35.0	22.1	55.4
	노년층	(145)	6.2	32.4	35.9	17.9	7.6	38.6	35.9	25.5	52.9
지역	북부권	(118)	5.9	26.3	32.2	23.7	11.9	32.2	32.2	35.6	47.7
	동부권	(101)	0.0	34.7	50.5	12.9	2.0	34.7	50.5	14.9	54.5
	남부권	(103)	1.0	27.2	35.9	26.2	9.7	28.2	35.9	35.9	45.9
	서부권	(101)	8.9	31.7	29.7	17.8	11.9	40.6	29.7	29.7	52.0
최종 학력	무학	(4)	0.0	50.0	25.0	0.0	25.0	50.0	25.0	25.0	50.0
	초등학교	(26)	0.0	38.5	38.5	15.4	7.7	38.5	38.5	23.1	51.9
	중학교	(37)	5.4	21.6	40.5	24.3	8.1	27.0	40.5	32.4	48.0
	고등학교	(107)	1.9	36.4	38.3	17.8	5.6	38.3	38.3	23.4	52.8
	대학(4년제 미만)	(68)	2.9	35.3	45.6	11.8	4.4	38.2	45.6	16.2	55.1
	대학(4년제 이상)	(166)	6.0	22.9	32.5	25.3	13.3	28.9	32.5	38.6	45.8
	대학원(석사)	(11)	9.1	18.2	36.4	27.3	9.1	27.3	36.4	36.4	47.7
	대학원(박사)	(4)	0.0	75.0	0.0	25.0	0.0	75.0	0.0	25.0	62.5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0.0	32.1	39.5	19.8	8.6	32.1	39.5	28.4	48.8
	아파트	(40)	20.0	52.5	15.0	10.0	2.5	72.5	15.0	12.5	69.4
	오피스텔	(51)	3.9	33.3	39.2	19.6	3.9	37.3	39.2	23.5	53.4
	다세대주택(빌라)	(154)	3.2	31.8	39.6	16.9	8.4	35.1	39.6	25.3	51.1
	반지하	(27)	3.7	7.4	33.3	40.7	14.8	11.1	33.3	55.6	36.1
	고시원/원룸	(64)	1.6	15.6	37.5	29.7	15.6	17.2	37.5	45.3	39.5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0.0	20.0	60.0	0.0	20.0	20.0	60.0	20.0	45.0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5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0.7	27.5	41.8	20.9	9.2	28.1	41.8	30.1	47.4
	200~300만 원	(156)	3.2	28.2	34.6	22.4	11.5	31.4	34.6	34.0	47.3
	300~400만 원	(76)	9.2	39.5	31.6	14.5	5.3	48.7	31.6	19.7	58.2
	400만 원 이상	(38)	10.5	26.3	36.8	21.1	5.3	36.8	36.8	26.3	53.9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2.1	21.3	48.9	12.8	14.9	23.4	48.9	27.7	45.7
	2~3년	(61)	1.6	27.9	39.3	19.7	11.5	29.5	39.3	31.1	47.1
	4~5년	(67)	3.0	23.9	38.8	25.4	9.0	26.9	38.8	34.3	46.6
	6~10년	(116)	6.0	31.9	31.9	21.6	8.6	37.9	31.9	30.2	51.3
	11년 이상	(132)	4.5	34.8	34.8	19.7	6.1	39.4	34.8	25.8	53.0

③ 주택 불만족 이유

-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가 22.2%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기타를 제외한 항목 중 '대중교통으로부터 먼 거리'(16.7%) > '비상시 대처하기 어려움'(14.4%) > '분리수거 등 주변 청결성 미흡'(13.3%) 순으로 조사됨.

[Base : 불만족 응답자,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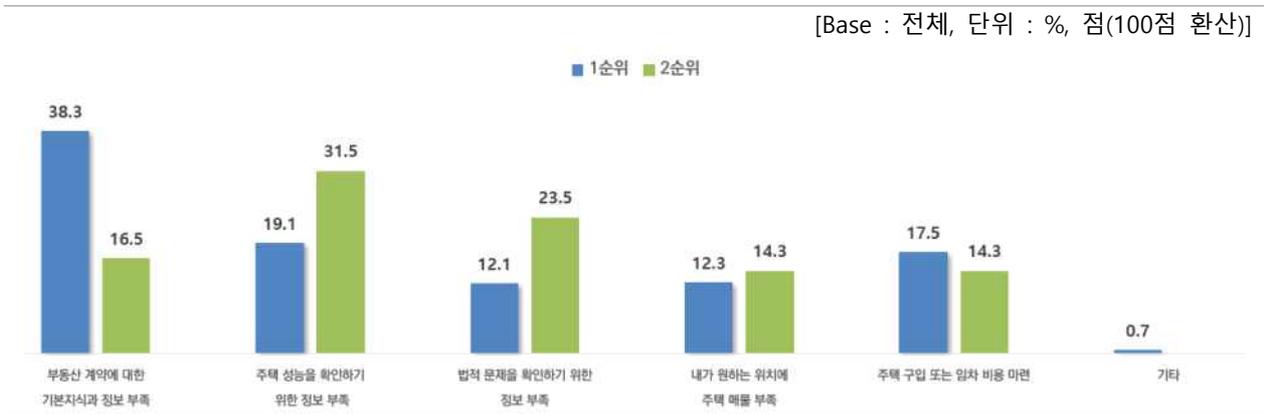
- 남성은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가 여성은 '대중교통으로부터 먼 거리'가 가장 높았음.
- 연령의 경우 '청년층'은 '대중교통으로부터 먼 거리'가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가 가장 높았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부권은 '분리수거 등 주변 청결성 미흡'과 '대중교통으로부터 먼 거리'가 동부권은 '분리수거 등 주변 청결성 미흡', 남부권은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 서부권은 '비상 시 대처하기 어려움'이 가장 높았음.
- 주택 유형에 따라 단독주택과 반지하는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가 아파트, 다세대주택(빌라)은 '대중교통으로부터 먼 거리', 오피스텔은 '남녀 공용 주거로 인한 불안감', 고시원/원룸은 '분리수거 등 주변 청결성 미흡'이 가장 높았음.
- 소득이 증가할수록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는 감소하고 '분리수거 등 주변 청결성 미흡'이 증가하고 있음.
-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가 증가하고 있음.

[Base : 불만족 응답자,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	비상시 대처하기 어려움	유형업소 주변의 주거지 위치	분리수거 등 주변 청결성 미흡	대중교통 으로부터 먼 거리	남녀 공용 주거로 인한 불안감	주택 관리(인)의 부재	기타
전체		(90)	22.2	14.4	2.2	13.3	16.7	5.6	4.4	21.1
성별	남성	(50)	26.0	18.0	0.0	20.0	14.0	4.0	6.0	12.0
	여성	(40)	17.5	10.0	5.0	5.0	20.0	7.5	2.5	32.5
연령	청년층	(41)	2.4	7.3	4.9	12.2	22.0	9.8	4.9	36.6
	중장년층	(19)	26.3	15.8	0.0	15.8	21.1	5.3	5.3	10.5
	노년층	(30)	46.7	23.3	0.0	13.3	6.7	0.0	3.3	6.7
지역	북부권	(35)	11.4	14.3	2.9	17.1	17.1	5.7	2.9	28.6
	동부권	(8)	12.5	12.5	0.0	37.5	12.5	0.0	0.0	25.0
	남부권	(25)	48.0	4.0	4.0	4.0	16.0	4.0	0.0	20.0
	서부권	(22)	13.6	27.3	0.0	9.1	18.2	9.1	13.6	9.1
최종 학력	무학	(1)	0.0	100.0	0.0	0.0	0.0	0.0	0.0	0.0
	초등학교	(3)	100.0	0.0	0.0	0.0	0.0	0.0	0.0	0.0
	중학교	(10)	50.0	10.0	0.0	10.0	20.0	0.0	10.0	0.0
	고등학교	(18)	38.9	27.8	0.0	11.1	11.1	0.0	0.0	11.1
	대학(4년제 미만)	(7)	0.0	0.0	0.0	28.6	14.3	14.3	28.6	14.3
	대학(4년제 이상)	(47)	10.6	12.8	2.1	10.6	21.3	8.5	2.1	31.9
	대학원(석사)	(3)	0.0	0.0	33.3	33.3	0.0	0.0	0.0	33.3
	대학원(박사)	(1)	0.0	0.0	0.0	100.0	0.0	0.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17)	29.4	17.6	5.9	11.8	29.4	0.0	5.9	0.0
	아파트	(3)	0.0	0.0	0.0	0.0	66.7	0.0	0.0	33.3
	오피스텔	(8)	12.5	0.0	0.0	12.5	0.0	37.5	0.0	37.5
	다세대주택(빌라)	(28)	14.3	14.3	0.0	10.7	25.0	0.0	3.6	32.1
	반지하	(10)	60.0	30.0	0.0	10.0	0.0	0.0	0.0	0.0
	고시원/원룸	(23)	13.0	13.0	4.3	21.7	4.3	8.7	8.7	26.1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1)	100.0	0.0	0.0	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35)	31.4	25.7	0.0	5.7	11.4	8.6	5.7	11.4
	200~300만 원	(37)	21.6	2.7	2.7	16.2	27.0	5.4	2.7	21.6
	300~400만 원	(10)	10.0	10.0	10.0	20.0	0.0	0.0	10.0	40.0
	400만 원 이상	(8)	0.0	25.0	0.0	25.0	12.5	0.0	0.0	37.5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10)	20.0	20.0	0.0	10.0	10.0	10.0	0.0	30.0
	2~3년	(12)	8.3	8.3	0.0	8.3	25.0	16.7	8.3	25.0
	4~5년	(18)	11.1	5.6	5.6	16.7	16.7	5.6	5.6	33.3
	6~10년	(24)	29.2	16.7	4.2	16.7	20.8	0.0	4.2	8.3
	11년 이상	(26)	30.8	19.2	0.0	11.5	11.5	3.8	3.8	19.2

④ 주택 선택 시 어려운 점

- 주택 선택 시 어려운 점 1순위로 '부동산 계약에 대한 기본지식과 정보 부족'(38.3%)을 가장 많이 선택함. 2순위로는 '주택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부족'(31.5%)의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됨.
- 1, 2순위 합산결과 '부동산 계약에 대한 기본지식과 정보 부족'이 54.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주택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부족'(50.6%) > '법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부족'(35.6%) >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비용 마련'(31.8%) >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 부족'(26.5%)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1순위인 '부동산 계약에 대한 기본지식과 정보 부족'에 대해 '남성'(41.7%)이 '여성'(34.9%)보다 6.8%p 더 높음.
-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1순위로 '부동산 계약에 대한 기본지식과 정보 부족'을 선택한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는 '서부권'에서 1순위로 '부동산 계약에 대한 기본지식과 정보 부족'을 응답한 비율이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주택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부족'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소득이 증가할수록 '주택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부족'은 감소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 부족'은 증가하고 있음.

[Base : 전체, 단위 : %]

1순위		사례수 (명)	부동산 계약에 대한 기본지식과 정보 부족	주택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부족	법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부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 부족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비용 마련	기타
전체		(423)	38.3	19.1	12.1	12.3	17.5	0.7
성별	남성	(211)	41.7	21.3	9.0	12.3	15.2	0.5
	여성	(212)	34.9	17.0	15.1	12.3	19.8	0.9
연령	청년층	(138)	33.3	11.6	15.2	15.9	21.7	2.2
	중장년층	(140)	40.0	15.7	11.4	15.0	17.9	0.0
	노년층	(145)	41.4	29.7	9.7	6.2	13.1	0.0
지역	북부권	(118)	32.2	8.5	15.3	13.6	28.8	1.7
	동부권	(101)	28.7	20.8	24.8	13.9	11.9	0.0
	남부권	(103)	37.9	36.9	3.9	5.8	14.6	1.0
	서부권	(101)	55.4	11.9	4.0	15.8	12.9	0.0
최종 학력	무학	(4)	25.0	0.0	25.0	0.0	50.0	0.0
	초등학교	(26)	65.4	26.9	7.7	0.0	0.0	0.0
	중학교	(37)	32.4	40.5	10.8	2.7	13.5	0.0
	고등학교	(107)	39.3	23.4	13.1	10.3	12.1	1.9
	대학(4년제 미만)	(68)	44.1	19.1	13.2	11.8	11.8	0.0
	대학(4년제 이상)	(166)	31.9	12.0	11.4	18.7	25.3	0.6
	대학원(석사)	(11)	36.4	9.1	9.1	9.1	36.4	0.0
	대학원(박사)	(4)	75.0	0.0	25.0	0.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53.1	17.3	8.6	7.4	13.6	0.0
	아파트	(40)	40.0	22.5	10.0	15.0	10.0	2.5
	오피스텔	(51)	27.5	17.6	21.6	15.7	17.6	0.0
	다세대주택(빌라)	(154)	37.0	21.4	9.7	11.0	20.1	0.6
	반지하	(27)	40.7	25.9	11.1	7.4	14.8	0.0
	고시원/원룸	(64)	31.3	14.1	14.1	18.8	21.9	0.0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0.0	40.0	20.0	20.0	0.0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32.7	24.8	13.1	9.8	18.3	1.3
	200~300만 원	(156)	39.1	20.5	12.2	7.7	19.9	0.6
	300~400만 원	(76)	47.4	10.5	10.5	18.4	13.2	0.0
	400만 원 이상	(38)	39.5	7.9	10.5	28.9	13.2	0.0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31.9	23.4	8.5	12.8	19.1	4.3
	2~3년	(61)	36.1	4.9	24.6	18.0	16.4	0.0
	4~5년	(67)	32.8	19.4	14.9	14.9	16.4	1.5
	6~10년	(116)	40.5	23.3	10.3	10.3	15.5	0.0
	11년 이상	(132)	42.4	20.5	7.6	9.8	19.7	0.0

[Base : 전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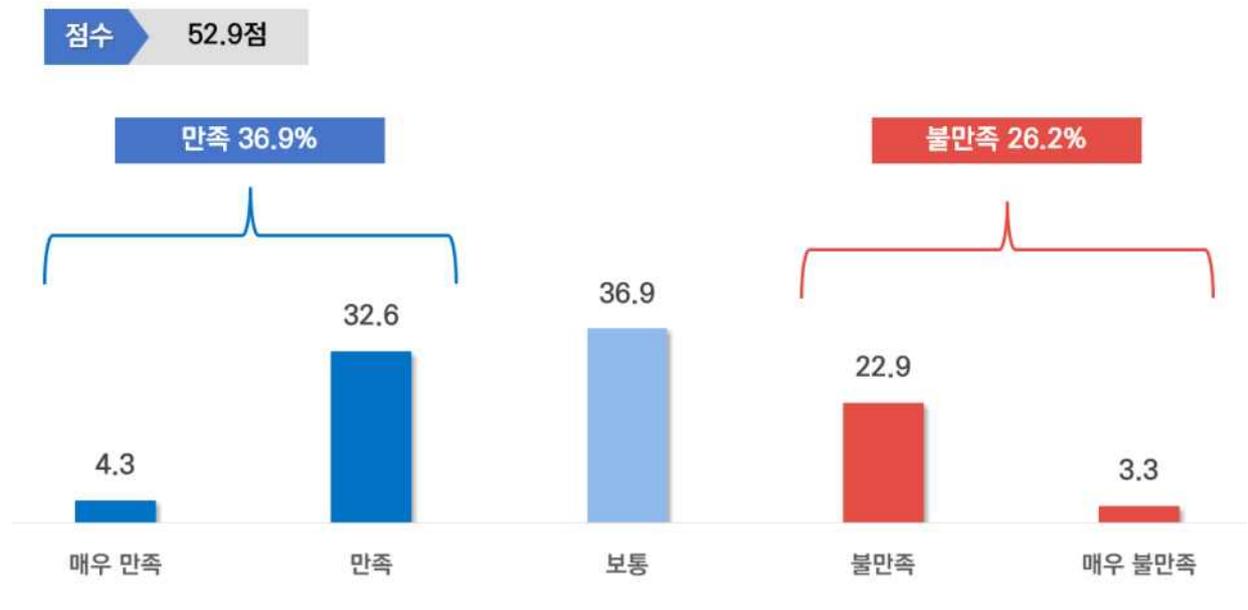
2순위		사례수 (명)	부동산 계약에 대한 기본지식과 정보 부족	주택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부족	법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부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 부족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비용 마련
전체		(400)	16.5	31.5	23.5	14.3	14.3
성별	남성	(198)	16.7	34.3	19.2	15.2	14.6
	여성	(202)	16.3	28.7	27.7	13.4	13.9
연령	청년층	(122)	13.9	17.2	23.8	25.4	19.7
	중장년층	(134)	11.9	37.3	20.1	11.9	18.7
	노년층	(144)	22.9	38.2	26.4	6.9	5.6
지역	북부권	(107)	8.4	28.0	24.3	20.6	18.7
	동부권	(97)	18.6	24.7	20.6	16.5	19.6
	남부권	(98)	23.5	37.8	25.5	6.1	7.1
	서부권	(98)	16.3	35.7	23.5	13.3	11.2
최종 학력	무학	(4)	25.0	50.0	25.0	0.0	0.0
	초등학교	(26)	11.5	46.2	34.6	3.8	3.8
	중학교	(36)	27.8	30.6	25.0	5.6	11.1
	고등학교	(100)	20.0	38.0	21.0	8.0	13.0
	대학(4년제 미만)	(62)	16.1	33.9	24.2	17.7	8.1
	대학(4년제 이상)	(159)	13.2	24.5	21.4	20.1	20.8
	대학원(석사)	(11)	9.1	27.3	36.4	18.2	9.1
대학원(박사)	(2)	0.0	0.0	50.0	5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79)	12.7	43.0	21.5	12.7	10.1
	아파트	(38)	18.4	28.9	31.6	10.5	10.5
	오피스텔	(47)	23.4	17.0	21.3	19.1	19.1
	다세대주택(빌라)	(148)	16.9	29.1	29.7	12.8	11.5
	반지하	(26)	11.5	46.2	3.8	15.4	23.1
	고시원/원룸	(57)	15.8	26.3	15.8	19.3	22.8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60.0	2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43)	22.4	34.3	18.9	11.9	12.6
	200~300만 원	(148)	13.5	31.1	27.7	14.9	12.8
	300~400만 원	(73)	12.3	28.8	24.7	17.8	16.4
	400만 원 이상	(36)	13.9	27.8	22.2	13.9	22.2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1)	9.8	24.4	22.0	24.4	19.5
	2~3년	(60)	15.0	23.3	16.7	23.3	21.7
	4~5년	(62)	21.0	29.0	27.4	6.5	16.1
	6~10년	(110)	17.3	30.0	23.6	17.3	11.8
	11년 이상	(127)	16.5	40.2	25.2	7.9	10.2

* 미응답자 제외

⑤ 주거상태 만족도

- 현재 본인의 주거상태 만족도 점수는 52.9점으로 조사됨.
- 주거상태 만족도로 '만족'(매우 만족 4.3%, 만족 32.6%)이 36.9%로 나타남.
- '불만족'(불만족 22.9%, 매우 불만족 3.3%)의 경우 26.2%로 조사됨.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단위 : %, 점(100점 환산)]



[응답자 특성별]

- '여성'(54.2점)이 '남성'(51.5점)으로 2.7점 더 높았음.
- '중장년층'(56.8점) > '노년층'(52.8점) > '청년층'(49.1점)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권'이 58.4점으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서부권'(55.2점) > '남부권'(51.2점) > '북부권'(47.7점) 순으로 나타남.
- 주택 유형의 경우 '아파트'가 70.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오피스텔'(54.9점) > '다세대주택'(53.6점) > '단독주택'(51.9점) > '고시원/원룸'(46.1점) 순으로 조사됨.
- 소득의 경우 '300~400만 원 미만'과 '400만 원 이상'이 60.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0~300만 원 미만'(51.4점) > '200만 원 이하'(48.7점) 순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TOP2	MIDDLE	BOT2	평점
전체		(423)	4.3	32.6	36.9	22.9	3.3	36.9	36.9	26.2	52.9
성별	남성	(211)	3.8	32.2	33.6	27.0	3.3	36.0	33.6	30.3	51.5
	여성	(212)	4.7	33.0	40.1	18.9	3.3	37.7	40.1	22.2	54.2
연령	청년층	(138)	3.6	25.4	39.1	27.5	4.3	29.0	39.1	31.9	49.1
	중장년층	(140)	3.6	42.9	35.0	14.3	4.3	46.4	35.0	18.6	56.8
	노년층	(145)	5.5	29.7	36.6	26.9	1.4	35.2	36.6	28.3	52.8
지역	북부권	(118)	2.5	28.0	30.5	35.6	3.4	30.5	30.5	39.0	47.7
	동부권	(101)	3.0	37.6	51.5	5.9	2.0	40.6	51.5	7.9	58.4
	남부권	(103)	1.0	32.0	39.8	25.2	1.9	33.0	39.8	27.2	51.2
	서부권	(101)	10.9	33.7	26.7	22.8	5.9	44.6	26.7	28.7	55.2
최종 학력	무학	(4)	0.0	50.0	0.0	50.0	0.0	50.0	0.0	50.0	50.0
	초등학교	(26)	0.0	26.9	42.3	30.8	0.0	26.9	42.3	30.8	49.0
	중학교	(37)	2.7	21.6	40.5	32.4	2.7	24.3	40.5	35.1	47.3
	고등학교	(107)	0.9	38.3	39.3	20.6	0.9	39.3	39.3	21.5	54.4
	대학(4년제 미만)	(68)	2.9	39.7	39.7	17.6	0.0	42.6	39.7	17.6	57.0
	대학(4년제 이상)	(166)	6.6	30.1	31.9	24.7	6.6	36.7	31.9	31.3	51.4
	대학원(석사)	(11)	9.1	18.2	63.6	0.0	9.1	27.3	63.6	9.1	54.5
	대학원(박사)	(4)	50.0	25.0	25.0	0.0	0.0	75.0	25.0	0.0	81.3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1.2	28.4	49.4	18.5	2.5	29.6	49.4	21.0	51.9
	아파트	(40)	17.5	57.5	20.0	0.0	5.0	75.0	20.0	5.0	70.6
	오피스텔	(51)	3.9	33.3	41.2	21.6	0.0	37.3	41.2	21.6	54.9
	다세대주택(빌라)	(154)	3.9	35.1	35.7	22.1	3.2	39.0	35.7	25.3	53.6
	반지하	(27)	0.0	18.5	25.9	51.9	3.7	18.5	25.9	55.6	39.8
	고시원/원룸	(64)	3.1	21.9	35.9	34.4	4.7	25.0	35.9	39.1	46.1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0.0	40.0	20.0	20.0	20.0	40.0	20.0	40.0	45.0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5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1.3	28.1	37.9	29.4	3.3	29.4	37.9	32.7	48.7
	200~300만 원	(156)	2.6	32.7	36.5	24.4	3.8	35.3	36.5	28.2	51.4
	300~400만 원	(76)	10.5	40.8	31.6	14.5	2.6	51.3	31.6	17.1	60.5
	400만 원 이상	(38)	10.5	34.2	44.7	7.9	2.6	44.7	44.7	10.5	60.5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2.1	31.9	36.2	23.4	6.4	34.0	36.2	29.8	50.0
	2~3년	(61)	3.3	32.8	44.3	16.4	3.3	36.1	44.3	19.7	54.1
	4~5년	(67)	3.0	28.4	40.3	25.4	3.0	31.3	40.3	28.4	50.7
	6~10년	(116)	6.0	29.3	37.9	25.9	0.9	35.3	37.9	26.7	53.4
	11년 이상	(132)	4.5	37.9	31.1	22.0	4.5	42.4	31.1	26.5	54.0

⑥ 주거상태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

- '현재 사는 주거지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수납공간'이 24.3%로 조사됨.
- 그 다음으로 '단열, 방수'(18.0%) > '환기'(12.5%) > '방범 상태'(9.0%) > '화장실'(8.5%) 순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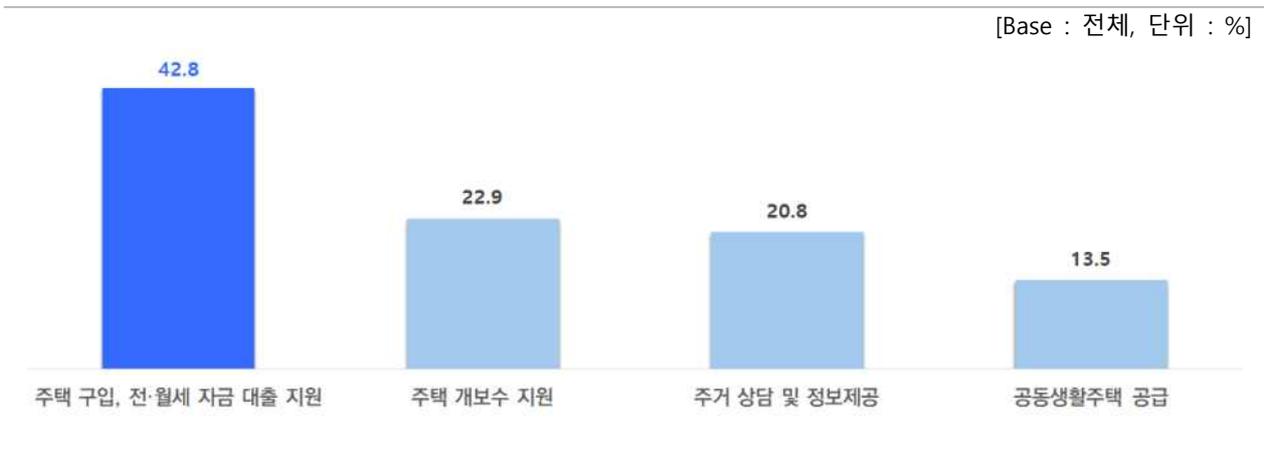
- 주거 만족도 저해요인에 대한 응답으로 남성은 '수납공간'(28.9%)을 여성은 '단열, 방수'(21.7%)를 가장 많이 선택함.
- '중장년층'은 '단열, 방수'(20.7%)가 '청년층'과 '노년층'은 '수납공간'이 각각 28.3%, 25.5%로 가장 높았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단열, 방수'에 대한 응답은 '북부권'(22.0%)과 동부권(23.8%)에서 '수납공간'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남부권'(35.9%)과 서부권(24.8%)에서 높았음.
- 주택 유형에 따라 단독주택과 반지하는 '단열, 방수'가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원룸은 '수납공간'이 가장 높았으며 다세대주택(빌라)은 두 항목 모두 높았음.
-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주택 위생상태'가 감소하고 '화장실'은 증가하고 있음.

[Base : 전체,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수납 공간	화재 안전성	방범 상태	단열 방수	환기	주택 위생상 태	주방	화장실	세탁실/ 다용 도실/ 베란다	기타
전체		(423)	24.3	4.3	9.0	18.0	12.5	7.8	5.7	8.5	6.6	3.3
성별	남성	(211)	28.9	4.3	7.6	14.2	12.8	8.5	8.1	8.5	6.2	0.9
	여성	(212)	19.8	4.2	10.4	21.7	12.3	7.1	3.3	8.5	7.1	5.7
연령	청년층	(138)	28.3	1.4	7.2	14.5	8.7	12.3	5.8	5.1	8.0	8.7
	중장년층	(140)	19.3	7.1	11.4	20.7	12.9	7.1	4.3	7.1	8.6	1.4
	노년층	(145)	25.5	4.1	8.3	18.6	15.9	4.1	6.9	13.1	3.4	0.0
지역	북부권	(118)	18.6	3.4	9.3	22.0	17.8	9.3	5.1	5.1	5.1	4.2
	동부권	(101)	18.8	6.9	7.9	23.8	11.9	11.9	6.9	5.0	4.0	3.0
	남부권	(103)	35.9	3.9	4.9	4.9	4.9	4.9	7.8	19.4	9.7	3.9
	서부권	(101)	24.8	3.0	13.9	20.8	14.9	5.0	3.0	5.0	7.9	2.0
최종 학력	무학	(4)	0.0	25.0	0.0	50.0	25.0	0.0	0.0	0.0	0.0	0.0
	초등학교	(26)	30.8	0.0	3.8	19.2	19.2	0.0	3.8	19.2	3.8	0.0
	중학교	(37)	13.5	2.7	10.8	13.5	24.3	2.7	13.5	13.5	5.4	0.0
	고등학교	(107)	20.6	6.5	9.3	20.6	14.0	6.5	4.7	11.2	5.6	0.9
	대학(4년제 미만)	(68)	23.5	2.9	11.8	20.6	11.8	8.8	4.4	5.9	5.9	4.4
	대학(4년제 이상)	(166)	27.7	3.0	7.8	15.1	9.0	11.4	6.0	6.0	9.0	4.8
	대학원(석사)	(11)	45.5	0.0	9.1	27.3	0.0	0.0	0.0	0.0	0.0	18.2
	대학원(박사)	(4)	25.0	50.0	25.0	0.0	0.0	0.0	0.0	0.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21.0	4.9	8.6	23.5	9.9	7.4	9.9	9.9	4.9	0.0
	아파트	(40)	30.0	12.5	12.5	5.0	7.5	5.0	5.0	10.0	7.5	5.0
	오피스텔	(51)	35.3	3.9	5.9	7.8	5.9	7.8	2.0	7.8	13.7	9.8
	다세대주택(빌라)	(154)	22.7	1.3	11.7	22.7	16.9	8.4	1.3	9.1	3.9	1.9
	반지하	(27)	14.8	3.7	3.7	33.3	22.2	3.7	7.4	7.4	3.7	0.0
	고시원/원룸	(64)	26.6	6.3	4.7	10.9	10.9	9.4	14.1	3.1	9.4	4.7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0.0	0.0	20.0	0.0	0.0	20.0	0.0	20.0	20.0	20.0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20.3	7.2	8.5	17.6	17.0	7.2	5.9	9.2	3.9	3.3
	200~300만 원	(156)	26.3	2.6	7.7	19.9	10.9	9.0	6.4	6.4	7.1	3.8
	300~400만 원	(76)	28.9	2.6	11.8	18.4	6.6	6.6	5.3	6.6	11.8	1.3
	400만 원 이상	(38)	23.7	2.6	10.5	10.5	13.2	7.9	2.6	18.4	5.3	5.3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23.4	4.3	4.3	14.9	12.8	14.9	8.5	0.0	10.6	6.4
	2~3년	(61)	21.3	3.3	9.8	14.8	16.4	9.8	4.9	6.6	8.2	4.9
	4~5년	(67)	23.9	6.0	10.4	20.9	13.4	9.0	7.5	6.0	3.0	0.0
	6~10년	(116)	22.4	4.3	12.9	22.4	10.3	6.9	0.9	8.6	6.9	4.3
	11년 이상	(132)	28.0	3.8	6.1	15.2	12.1	4.5	8.3	13.6	6.1	2.3

⑦ 가장 필요한 1인가구 주거정책

- 1인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 구입,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이 42.8%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 22.9%, '주거 상담 및 정보제공' 20.8%, '공동생활주택 공급' 13.5% 순으로 높았음.



[응답자 특성별]

- 남성은 '주택 구입,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44.1%) > '주거 상담 및 정보제공'(21.8%) > '주택 개보수 지원'(19.4%) > '공동생활주택 공급'(14.7%) 순으로 여성은 '주택 구입,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41.5%) > '주택 개보수 지원'(26.4%) > '주거 상담 및 정보제공'(19.8%) > '공동생활주택 공급'(12.3%) 순으로 나타남.
- '노년층'은 '주택 개보수 지원'(38.6%)이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주택 구입,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이 각각 55.1%와 43.6%로 가장 높았음.
- 주택 유형에 따라 '아파트'는 '주거 상담 및 정보제공'을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유형들은 '주택 구입,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함.
- 소득이 증가할수록 '주택 구입,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보다 '주거 상담 및 정보제공'이 더 필요하다고 답함.
-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주택 구입,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보다는 '주거 상담 및 정보제공'이 더 필요하다고 답함.

[Base : 전체,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주거 상담 및 정보제공	주택 개보수 지원	공동생활주택 공급	주택 구입,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전체		(423)	20.8	22.9	13.5	42.8
성별	남성	(211)	21.8	19.4	14.7	44.1
	여성	(212)	19.8	26.4	12.3	41.5
연령	청년층	(138)	15.2	11.6	18.1	55.1
	중장년층	(140)	24.3	17.9	14.3	43.6
	노년층	(145)	22.8	38.6	8.3	30.3
지역	북부권	(118)	7.6	21.2	18.6	52.5
	동부권	(101)	14.9	31.7	21.8	31.7
	남부권	(103)	29.1	25.2	6.8	38.8
	서부권	(101)	33.7	13.9	5.9	46.5
최종 학력	무학	(4)	0.0	50.0	25.0	25.0
	초등학교	(26)	3.8	73.1	7.7	15.4
	중학교	(37)	21.6	35.1	10.8	32.4
	고등학교	(107)	14.0	34.6	16.8	34.6
	대학(4년제 미만)	(68)	27.9	8.8	13.2	50.0
	대학(4년제 이상)	(166)	24.1	11.4	10.8	53.6
	대학원(석사)	(11)	45.5	9.1	18.2	27.3
	대학원(박사)	(4)	0.0	0.0	75.0	25.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27.2	25.9	9.9	37.0
	아파트	(40)	37.5	35.0	10.0	17.5
	오피스텔	(51)	17.6	9.8	29.4	43.1
	다세대주택(빌라)	(154)	19.5	31.8	10.4	38.3
	반지하	(27)	0.0	18.5	11.1	70.4
	고시원/원룸	(64)	15.6	4.7	17.2	62.5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40.0	0.0	0.0	60.0
	기타	(1)	0.0	0.0	0.0	10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16.3	32.0	10.5	41.2
	200~300만 원	(156)	18.6	19.9	16.0	45.5
	300~400만 원	(76)	28.9	14.5	14.5	42.1
	400만 원 이상	(38)	31.6	15.8	13.2	39.5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14.9	21.3	17.0	46.8
	2~3년	(61)	14.8	23.0	13.1	49.2
	4~5년	(67)	16.4	20.9	22.4	40.3
	6~10년	(116)	16.4	21.6	15.5	46.6
	11년 이상	(132)	31.8	25.8	6.1	36.4

6 일자리

① 직업

- 관악구 1인가구 실태조사 응답자 직업의 경우 '사무·관리직'이 31.9%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18.9%) > '단순 노무직'(18.4%) > '무직'(14.2%) > '자영업'(6.9%) 등의 순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 남성은 '사무·관리직'(30.8%) > '단순 노무직'(26.5%) > '무직'(10.9%) > '서비스·판매직'(10.4%) 순으로 여성은 '사무·관리직'(33.0%) > '서비스·판매직'(27.4%) > '무직'(17.5%) > '단순 노무직'(10.4%) 순으로 나타남.
- '노년층'은 '단순 노무직'이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사무·관리직'이 가장 많았음.
- 지역 중 남부권은 '서비스·판매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관리직'과 '전문 기능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고, 학력이 낮을수록 '단순 노무직' 또는 '무직'이 많았음.
-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무·관리직'과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단순 노무직' 또는 '무직'이 많았음.
-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전문 기능직'과 '특수직'의 비율은 감소하고 '단순 노무직'이나 '무직'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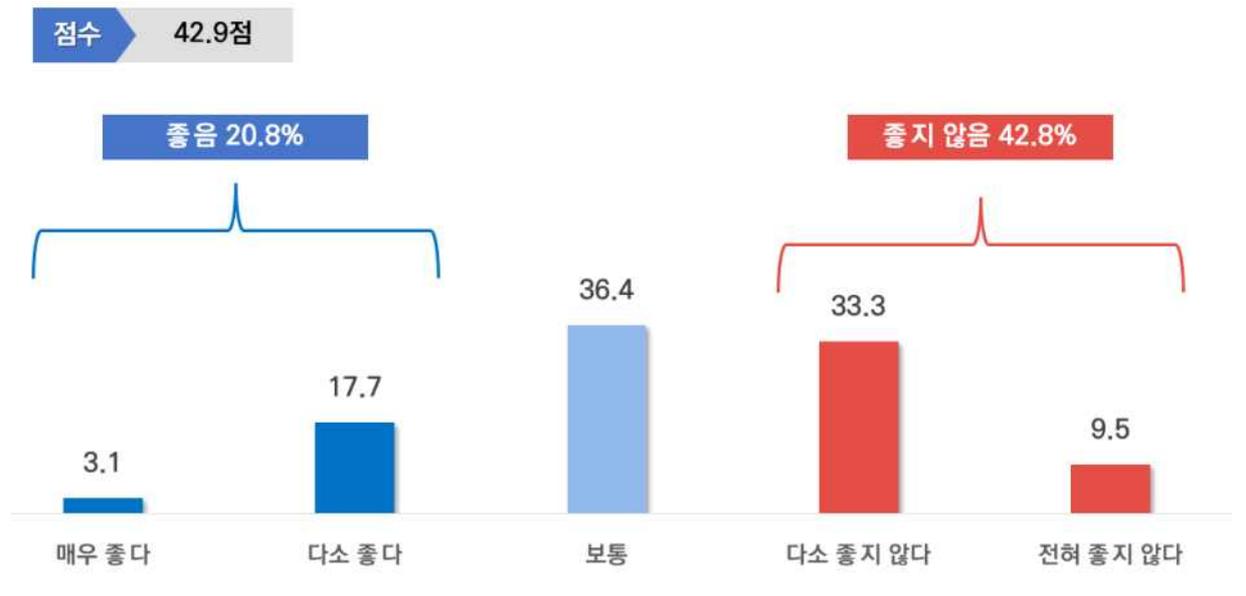
[Base : 전체,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사무 관리직	서비스 판매직	전문 기능직	단순 노무직	특수직	자영업	무직	기타
전체		(423)	31.9	18.9	4.0	18.4	4.3	6.9	14.2	1.4
성별	남성	(211)	30.8	10.4	2.8	26.5	8.5	8.1	10.9	1.9
	여성	(212)	33.0	27.4	5.2	10.4	0.0	5.7	17.5	0.9
연령	청년층	(138)	56.5	15.9	6.5	2.9	0.0	3.6	10.9	3.6
	중장년층	(140)	33.6	32.1	4.3	12.1	7.1	7.9	2.9	0.0
	노년층	(145)	6.9	9.0	1.4	39.3	5.5	9.0	28.3	0.7
지역	북부권	(118)	39.8	16.1	4.2	13.6	3.4	8.5	13.6	0.8
	동부권	(101)	30.7	14.9	3.0	20.8	6.9	8.9	13.9	1.0
	남부권	(103)	24.3	25.2	3.9	22.3	6.8	1.0	12.6	3.9
	서부권	(101)	31.7	19.8	5.0	17.8	0.0	8.9	16.8	0.0
최종 학력	무학	(4)	0.0	0.0	0.0	50.0	0.0	0.0	50.0	0.0
	초등학교	(26)	0.0	0.0	0.0	30.8	3.8	0.0	65.4	0.0
	중학교	(37)	2.7	2.7	0.0	48.6	2.7	10.8	32.4	0.0
	고등학교	(107)	7.5	25.2	2.8	29.0	14.0	12.1	8.4	0.9
	대학(4년제 미만)	(68)	38.2	33.8	4.4	13.2	1.5	0.0	7.4	1.5
	대학(4년제 이상)	(166)	54.8	17.5	4.8	6.0	0.0	6.0	9.0	1.8
	대학원(석사)	(11)	54.5	0.0	18.2	0.0	0.0	18.2	0.0	9.1
	대학원(박사)	(4)	75.0	0.0	25.0	0.0	0.0	0.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19.8	19.8	1.2	32.1	4.9	4.9	16.0	1.2
	아파트	(40)	57.5	7.5	2.5	10.0	0.0	7.5	15.0	0.0
	오피스텔	(51)	43.1	29.4	7.8	3.9	5.9	7.8	2.0	0.0
	다세대주택(빌라)	(154)	29.9	21.4	5.2	13.0	3.2	8.4	16.9	1.9
	반지하	(27)	7.4	11.1	3.7	48.1	14.8	3.7	11.1	0.0
	고시원/원룸	(64)	37.5	15.6	3.1	20.3	3.1	4.7	12.5	3.1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40.0	0.0	0.0	0.0	0.0	20.0	40.0	0.0
	기타	(1)	0.0	0.0	0.0	0.0	0.0	0.0	10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5.9	14.4	1.3	32.7	2.6	4.6	35.9	2.6
	200~300만 원	(156)	35.3	24.4	6.4	16.7	6.4	7.1	2.6	1.3
	300~400만 원	(76)	56.6	22.4	3.9	2.6	5.3	9.2	0.0	0.0
	400만 원 이상	(38)	73.7	7.9	5.3	0.0	0.0	10.5	2.6	0.0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29.8	23.4	6.4	17.0	4.3	6.4	12.8	0.0
	2~3년	(61)	29.5	24.6	4.9	16.4	3.3	9.8	11.5	0.0
	4~5년	(67)	38.8	20.9	3.0	16.4	4.5	7.5	6.0	3.0
	6~10년	(116)	36.2	16.4	4.3	14.7	6.9	6.9	12.9	1.7
	11년 이상	(132)	26.5	15.9	3.0	24.2	2.3	5.3	21.2	1.5

② 경제상태

- 현재 경제상태(저축, 자금상태)에 대한 평균 점수는 42.9점으로 나타남.
- 현재 경제상태가 '좋지 않음'(다소 좋지 않다 33.3%, 전혀 좋지 않다 9.5%)이 42.8%로 조사됨.
- '보통'의 경우 36.4%, ' 좋음'(매우 좋다 3.1%, 다소 좋다 17.7%)은 20.8%로 응답함.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단위 : %, 점(100점 환산)]



[응답자 특성별]

- '남성'(43.1점)이 '여성'(42.7점)으로 0.4점 더 높았음.
- '중장년층'(45.7점) > '청년층'(43.5점) > '노년층'(39.7점)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부권'이 45.3점으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동부권'(44.6점) > '남부권'(43.9점) > '북부권'(38.6점) 순으로 나타남.
- 주택 유형의 경우 '아파트'가 59.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오피스텔'(47.1점) > '다세대주택'(41.9점) > '단독주택'(41.7점) > '고시원/원룸'(39.1점) 순으로 조사됨.
- 소득의 경우 '400만 원 이상'이 57.2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0~400만 원 미만' 56.9점, '200~300만 원 미만'(42.1점) > '200만 원 이하'(33.2점) 순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좋다	다소 좋다	보통	다소 좋지 않다	전혀 좋지 않다	TOP2	MIDDLE	BOT2	평점
전체		(423)	3.1	17.7	36.4	33.3	9.5	20.8	36.4	42.8	42.9
성별	남성	(211)	4.3	19.0	32.7	33.2	10.9	23.2	32.7	44.1	43.1
	여성	(212)	1.9	16.5	40.1	33.5	8.0	18.4	40.1	41.5	42.7
연령	청년층	(138)	4.3	15.9	37.7	33.3	8.7	20.3	37.7	42.0	43.5
	중장년층	(140)	2.9	22.9	37.1	28.6	8.6	25.7	37.1	37.1	45.7
	노년층	(145)	2.1	14.5	34.5	37.9	11.0	16.6	34.5	49.0	39.7
지역	북부권	(118)	3.4	8.5	36.4	42.4	9.3	11.9	36.4	51.7	38.6
	동부권	(101)	3.0	16.8	42.6	30.7	6.9	19.8	42.6	37.6	44.6
	남부권	(103)	2.9	19.4	37.9	30.1	9.7	22.3	37.9	39.8	43.9
	서부권	(101)	3.0	27.7	28.7	28.7	11.9	30.7	28.7	40.6	45.3
최종 학력	무학	(4)	0.0	0.0	50.0	25.0	25.0	0.0	50.0	50.0	31.3
	초등학교	(26)	0.0	0.0	34.6	46.2	19.2	0.0	34.6	65.4	28.8
	중학교	(37)	0.0	2.7	29.7	51.4	16.2	2.7	29.7	67.6	29.7
	고등학교	(107)	1.9	16.8	41.1	31.8	8.4	18.7	41.1	40.2	43.0
	대학(4년제 미만)	(68)	5.9	27.9	38.2	23.5	4.4	33.8	38.2	27.9	51.8
	대학(4년제 이상)	(166)	3.6	20.5	32.5	34.3	9.0	24.1	32.5	43.4	43.8
	대학원(석사)	(11)	0.0	18.2	54.5	18.2	9.1	18.2	54.5	27.3	45.5
	대학원(박사)	(4)	25.0	25.0	50.0	0.0	0.0	50.0	50.0	0.0	68.8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3.7	13.6	40.7	29.6	12.3	17.3	40.7	42.0	41.7
	아파트	(40)	10.0	35.0	40.0	12.5	2.5	45.0	40.0	15.0	59.4
	오피스텔	(51)	3.9	21.6	39.2	29.4	5.9	25.5	39.2	35.3	47.1
	다세대주택(빌라)	(154)	1.9	16.2	38.3	34.4	9.1	18.2	38.3	43.5	41.9
	반지하	(27)	0.0	14.8	11.1	63.0	11.1	14.8	11.1	74.1	32.4
	고시원/원룸	(64)	1.6	15.6	32.8	37.5	12.5	17.2	32.8	50.0	39.1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0.0	0.0	20.0	60.0	20.0	0.0	20.0	80.0	25.0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5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0.7	7.2	34.0	40.5	17.6	7.8	34.0	58.2	33.2
	200~300만 원	(156)	2.6	15.4	37.8	36.5	7.7	17.9	37.8	44.2	42.1
	300~400만 원	(76)	9.2	34.2	32.9	22.4	1.3	43.4	32.9	23.7	56.9
	400만 원 이상	(38)	2.6	36.8	47.4	13.2	0.0	39.5	47.4	13.2	57.2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0.0	12.8	38.3	42.6	6.4	12.8	38.3	48.9	39.4
	2~3년	(61)	0.0	21.3	36.1	36.1	6.6	21.3	36.1	42.6	43.0
	4~5년	(67)	3.0	14.9	49.3	25.4	7.5	17.9	49.3	32.8	45.1
	6~10년	(116)	5.2	18.1	33.6	33.6	9.5	23.3	33.6	43.1	44.0
	11년 이상	(132)	3.8	18.9	31.8	32.6	12.9	22.7	31.8	45.5	42.0

③ 지출이 가장 큰 항목

- 지난 3개월간 소비생활 중 지출이 가장 큰 항목 1순위로 '식료품비'가 41.6%로 가장 높게 조사됨.
- 2순위로는 '식료품비'(25.4%), 3순위로는 '주거 관리비'(19.5%)의 응답 비중이 높았음.
- 1,2,3순위를 모두 합한 결과는 '식료품비'가 7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거관리비'(74.4%) > '외식비'(49.8%) > '교통비'(29.2%) > '보건의료비'(25.5%) 순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응답자 특성별]

- 지출이 가장 큰 항목 1순위 응답자 특성별 결과 연령층별로 '청년층'에서 '주거 관리비'를 선택한 비율이 37.0%로 높지만, '노년층'에서는 24.8%로 상대적으로 낮음 '노년층'의 경우 '식료품비'에서 60.0%로 가장 높아 지출 항목에 대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남.
- 지역별로 1순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부권'의 경우 '식료품비'가 55.3%로 타 지역대비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북부권'의 경우 '주거 관리비'가 48.3%로 높았음.
-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1순위로 '식료품비'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55.6%, 42.5%로 높았고, '반지하'와 '고시원/원룸'의 경우 1순위로 '주거 관리비'를 각각 51.9%, 48.4% 응답해 차이를 보임.
-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식료품비'는 감소하고 '외식비'와 '주거 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음.
-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식료품비'는 증가하고 '주거 관리비'는 감소하고 있음.

[Base : 전체, 단위 : %]

1순위		사례수 (명)	식료품 비	외식비	보건 의료비	교통비	주거 관리비	교육비	의류비	여가비	비 동거 가족지 원	기타
전체		(423)	41.6	15.6	1.9	1.4	33.3	0.2	0.9	0.9	3.1	0.9
성별	남성	(211)	39.3	17.5	2.4	1.9	35.1	0.0	0.0	0.5	3.3	0.0
	여성	(212)	43.9	13.7	1.4	0.9	31.6	0.5	1.9	1.4	2.8	1.9
연령	청년층	(138)	29.0	26.1	2.2	1.4	37.0	0.7	0.0	2.2	0.0	1.4
	중장년층	(140)	35.0	10.7	1.4	2.1	38.6	0.0	2.1	0.0	8.6	1.4
	노년층	(145)	60.0	10.3	2.1	0.7	24.8	0.0	0.7	0.7	0.7	0.0
지역	북부권	(118)	32.2	11.9	2.5	1.7	48.3	0.0	0.0	0.0	2.5	0.8
	동부권	(101)	40.6	11.9	2.0	1.0	35.6	1.0	1.0	3.0	3.0	1.0
	남부권	(103)	55.3	11.7	0.0	2.9	26.2	0.0	0.0	0.0	2.9	1.0
	서부권	(101)	39.6	27.7	3.0	0.0	20.8	0.0	3.0	1.0	4.0	1.0
최종 학력	무학	(4)	5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초등학교	(26)	84.6	0.0	3.8	0.0	11.5	0.0	0.0	0.0	0.0	0.0
	중학교	(37)	70.3	0.0	2.7	0.0	27.0	0.0	0.0	0.0	0.0	0.0
	고등학교	(107)	47.7	10.3	3.7	3.7	30.8	0.0	0.0	0.0	2.8	0.9
	대학(4년제 미만)	(68)	36.8	19.1	2.9	0.0	33.8	0.0	0.0	0.0	7.4	0.0
	대학(4년제 이상)	(166)	29.5	24.1	0.0	1.2	36.7	0.6	1.8	1.8	2.4	1.8
	대학원(석사)	(11)	9.1	18.2	0.0	0.0	45.5	0.0	9.1	9.1	9.1	0.0
	대학원(박사)	(4)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55.6	18.5	1.2	2.5	17.3	0.0	0.0	1.2	2.5	1.2
	아파트	(40)	42.5	20.0	0.0	7.5	25.0	0.0	2.5	0.0	0.0	2.5
	오피스텔	(51)	35.3	19.6	3.9	0.0	33.3	2.0	2.0	2.0	2.0	0.0
	다세대주택(빌라)	(154)	39.6	14.9	2.6	0.6	33.8	0.0	1.3	1.3	5.2	0.6
	반지하	(27)	44.4	3.7	0.0	0.0	51.9	0.0	0.0	0.0	0.0	0.0
	고시원/원룸	(64)	31.3	14.1	1.6	0.0	48.4	0.0	0.0	0.0	3.1	1.6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40.0	0.0	0.0	0.0	60.0	0.0	0.0	0.0	0.0	0.0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55.6	7.2	2.0	2.0	29.4	0.7	0.0	0.7	2.0	0.7
	200~300만 원	(156)	41.0	18.6	3.2	0.0	32.7	0.0	0.6	0.0	3.2	0.6
	300~400만 원	(76)	27.6	21.1	0.0	2.6	38.2	0.0	1.3	1.3	5.3	2.6
	400만 원 이상	(38)	15.8	26.3	0.0	2.6	42.1	0.0	5.3	5.3	2.6	0.0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25.5	14.9	0.0	0.0	51.1	0.0	0.0	0.0	6.4	2.1
	2~3년	(61)	37.7	14.8	3.3	4.9	34.4	0.0	1.6	0.0	3.3	0.0
	4~5년	(67)	34.3	17.9	4.5	1.5	35.8	1.5	1.5	0.0	3.0	0.0
	6~10년	(116)	40.5	18.1	1.7	0.9	31.9	0.0	0.0	2.6	3.4	0.9
	11년 이상	(132)	53.8	12.9	0.8	0.8	26.5	0.0	1.5	0.8	1.5	1.5

[Base : 전체, 단위 : %]

2순위		사례수 (명)	식료품 비	외식비	보건 의료비	교통비	주거 관리비	교육비	경조사 비	의류비	여가비	비 동거 가족지 원	기타
전체		(423)	25.4	18.5	10.7	11.1	21.6	0.9	3.8	3.6	2.6	1.4	0.5
성별	남성	(211)	26.1	20.4	8.5	12.8	21.8	1.4	3.8	2.4	0.9	0.9	0.9
	여성	(212)	24.6	16.6	12.8	9.5	21.3	0.5	3.8	4.7	4.3	1.9	0.0
연령	청년층	(138)	21.0	24.6	5.1	12.3	18.1	2.2	5.1	5.1	5.8	0.0	0.7
	중장년층	(140)	33.8	18.0	5.0	11.5	20.9	0.7	0.7	4.3	1.4	2.9	0.7
	노년층	(145)	21.4	13.1	21.4	9.7	25.5	0.0	5.5	1.4	0.7	1.4	0.0
지역	북부권	(118)	33.1	16.1	14.4	10.2	12.7	1.7	2.5	2.5	5.1	0.8	0.8
	동부권	(101)	20.0	16.0	17.0	14.0	24.0	0.0	2.0	4.0	2.0	1.0	0.0
	남부권	(103)	23.3	21.4	3.9	10.7	34.0	1.9	1.0	0.0	1.0	2.9	0.0
	서부권	(101)	23.8	20.8	6.9	9.9	16.8	0.0	9.9	7.9	2.0	1.0	1.0
최종 학력	무학	(4)	50.0	0.0	25.0	0.0	25.0	0.0	0.0	0.0	0.0	0.0	0.0
	초등학교	(26)	7.7	11.5	42.3	0.0	38.5	0.0	0.0	0.0	0.0	0.0	0.0
	중학교	(37)	13.5	16.2	32.4	10.8	24.3	0.0	0.0	0.0	2.7	0.0	0.0
	고등학교	(107)	26.2	15.9	6.5	14.0	26.2	0.0	3.7	3.7	0.0	3.7	0.0
	대학(4년제 미만)	(68)	29.4	22.1	8.8	16.2	16.2	0.0	1.5	4.4	0.0	1.5	0.0
	대학(4년제 이상)	(166)	25.5	21.8	4.8	10.3	18.8	1.8	4.8	4.2	6.1	0.6	1.2
	대학원(석사)	(11)	54.5	9.1	0.0	0.0	9.1	0.0	18.2	9.1	0.0	0.0	0.0
	대학원(박사)	(4)	50.0	0.0	0.0	0.0	0.0	25.0	25.0	0.0	0.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23.5	14.8	17.3	7.4	24.7	0.0	2.5	3.7	3.7	2.5	0.0
	아파트	(40)	17.5	15.0	5.0	22.5	25.0	0.0	10.0	0.0	5.0	0.0	0.0
	오피스텔	(51)	17.6	19.6	0.0	25.5	23.5	0.0	2.0	2.0	3.9	2.0	3.9
	다세대주택(빌라)	(154)	26.8	15.7	13.7	9.2	20.3	0.7	5.2	4.6	2.0	2.0	0.0
	반지하	(27)	37.0	29.6	3.7	7.4	22.2	0.0	0.0	0.0	0.0	0.0	0.0
	고시원/원룸	(64)	31.3	25.0	9.4	4.7	17.2	4.7	1.6	4.7	1.6	0.0	0.0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20.0	20.0	0.0	20.0	0.0	0.0	20.0	0.0	0.0	0.0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24.8	13.7	20.3	6.5	29.4	0.7	1.3	0.0	1.3	2.0	0.0
	200~300만 원	(156)	24.5	21.3	6.5	14.8	14.8	1.3	4.5	6.5	3.9	1.3	0.6
	300~400만 원	(76)	25.0	22.4	3.9	13.2	22.4	1.3	3.9	3.9	2.6	1.3	0.0
	400만 원 이상	(38)	31.6	18.4	2.6	10.5	15.8	0.0	10.5	5.3	2.6	0.0	2.6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31.9	17.0	8.5	14.9	12.8	0.0	4.3	8.5	2.1	0.0	0.0
	2~3년	(61)	27.9	23.0	8.2	6.6	18.0	1.6	4.9	3.3	3.3	3.3	0.0
	4~5년	(67)	18.2	25.8	6.1	15.2	22.7	0.0	0.0	6.1	4.5	0.0	1.5
	6~10년	(116)	25.0	11.2	10.3	13.8	24.1	0.9	6.0	4.3	3.4	0.9	0.0
	11년 이상	(132)	25.8	19.7	15.2	7.6	23.5	1.5	3.0	0.0	0.8	2.3	0.8

[Base : 전체, 단위 : %]

3순위		사례수 (명)	식료품 비	외식비	보건 의료비	교통비	주거 관리비	교육비	경조사 비	의류비	여가비	비 동거 가족지 원	기타
전체		(423)	10.7	15.7	12.9	16.7	19.5	1.4	4.5	9.0	6.7	2.6	0.2
성별	남성	(211)	11.4	16.7	11.4	20.0	18.6	1.0	3.8	5.7	8.1	3.3	0.0
	여성	(212)	10.0	14.8	14.3	13.3	20.5	1.9	5.2	12.4	5.2	1.9	0.5
연령	청년층	(138)	13.8	12.3	8.0	18.8	15.2	3.6	2.9	9.4	14.5	0.7	0.7
	중장년층	(140)	10.1	16.7	7.2	20.3	17.4	0.7	6.5	12.3	3.6	5.1	0.0
	노년층	(145)	8.3	18.1	22.9	11.1	25.7	0.0	4.2	5.6	2.1	2.1	0.0
지역	북부권	(118)	14.5	23.1	11.1	16.2	21.4	0.9	1.7	4.3	6.0	0.9	0.0
	동부권	(101)	15.2	13.1	17.2	12.1	20.2	2.0	3.0	10.1	5.1	2.0	0.0
	남부권	(103)	1.9	17.5	12.6	21.4	20.4	1.0	1.9	7.8	7.8	7.8	0.0
	서부권	(101)	10.9	7.9	10.9	16.8	15.8	2.0	11.9	14.9	7.9	0.0	1.0
최종 학력	무학	(4)	0.0	0.0	75.0	0.0	25.0	0.0	0.0	0.0	0.0	0.0	0.0
	초등학교	(26)	7.7	26.9	30.8	7.7	23.1	0.0	0.0	0.0	3.8	0.0	0.0
	중학교	(37)	11.1	16.7	30.6	11.1	27.8	0.0	0.0	2.8	0.0	0.0	0.0
	고등학교	(107)	11.2	15.9	13.1	15.0	22.4	1.9	3.7	6.5	3.7	6.5	0.0
	대학(4년제 미만)	(68)	11.9	14.9	3.0	13.4	28.4	0.0	7.5	14.9	4.5	1.5	0.0
	대학(4년제 이상)	(166)	10.9	13.3	8.5	21.2	13.3	1.2	6.1	12.1	11.5	1.8	0.0
	대학원(석사)	(11)	9.1	27.3	18.2	18.2	0.0	9.1	0.0	0.0	9.1	0.0	9.1
	대학원(박사)	(4)	0.0	25.0	0.0	50.0	0.0	25.0	0.0	0.0	0.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3.7	14.8	19.8	17.3	21.0	3.7	7.4	6.2	4.9	1.2	0.0
	아파트	(40)	12.5	10.0	7.5	15.0	12.5	2.5	5.0	15.0	10.0	7.5	2.5
	오피스텔	(51)	17.6	15.7	2.0	15.7	21.6	0.0	5.9	13.7	5.9	2.0	0.0
	다세대주택(빌라)	(154)	11.2	18.4	12.5	13.8	19.7	0.7	3.9	7.9	8.6	3.3	0.0
	반지하	(27)	7.4	7.4	22.2	29.6	14.8	0.0	0.0	11.1	3.7	3.7	0.0
	고시원/원룸	(64)	14.3	19.0	14.3	15.9	20.6	1.6	3.2	6.3	4.8	0.0	0.0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0.0	0.0	0.0	60.0	20.0	0.0	0.0	20.0	0.0	0.0	0.0
	기타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7.9	15.1	26.3	15.1	19.1	1.3	2.0	8.6	3.3	1.3	0.0
	200~300만 원	(156)	12.3	16.2	6.5	13.6	27.3	1.9	6.5	5.8	7.1	2.6	0.0
	300~400만 원	(76)	13.2	19.7	2.6	22.4	14.5	0.0	3.9	11.8	7.9	3.9	0.0
	400만 원 이상	(38)	10.5	7.9	5.3	23.7	0.0	2.6	7.9	18.4	15.8	5.3	2.6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14.9	10.6	17.0	19.1	14.9	0.0	2.1	8.5	10.6	2.1	0.0
	2~3년	(61)	16.7	15.0	10.0	15.0	20.0	1.7	6.7	8.3	6.7	0.0	0.0
	4~5년	(67)	9.2	16.9	10.8	15.4	16.9	1.5	4.6	12.3	10.8	1.5	0.0
	6~10년	(116)	9.5	21.6	10.3	13.8	25.0	1.7	2.6	7.8	2.6	4.3	0.9
	11년 이상	(132)	8.3	12.1	15.9	19.7	17.4	1.5	6.1	9.1	6.8	3.0	0.0

④ 가장 필요한 경제지원정책

- 가장 필요한 경제지원정책으로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제도)'과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제공'이 26.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그 다음으로 '사회보장제도개선' (21.7%) > '구직활동 중 다양한 직업훈련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 (15.6%) >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9.2%) 등의 순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사례수 : 413명,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 남성은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제도)'(29.4%) >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제공'(24.2%) > '사회보장제도 개선'(22.3%) 순으로 여성은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 제공'(27.8%) >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제도)'(22.6%) > '사회보장제도 개선'(21.2%) 순으로 나타남.
- '노년층'은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제공'이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제도)'가 가장 많았음.
- 지역별로 '북부권'과 '서부권'은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동부권'은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남부권'은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제공'이 가장 필요한 경제지원정책 이라고 답함.
- 소득이 증가할수록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의 비율이 높음.

[Base : 전체,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제도)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제공	구직활동 중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 개선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기타
전체		(423)	26.0	26.0	15.6	21.7	9.2	1.4
성별	남성	(211)	29.4	24.2	15.2	22.3	8.1	0.9
	여성	(212)	22.6	27.8	16.0	21.2	10.4	1.9
연령	청년층	(138)	23.9	23.2	20.3	20.3	9.4	2.9
	중장년층	(140)	30.0	26.4	15.0	23.6	3.6	1.4
	노년층	(145)	24.1	28.3	11.7	21.4	14.5	0.0
지역	북부권	(118)	27.1	17.8	10.2	29.7	13.6	1.7
	동부권	(101)	38.6	18.8	11.9	14.9	12.9	3.0
	남부권	(103)	25.2	48.5	19.4	5.8	0.0	1.0
	서부권	(101)	12.9	19.8	21.8	35.6	9.9	0.0
최종 학력	무학	(4)	50.0	0.0	25.0	0.0	25.0	0.0
	초등학교	(26)	30.8	34.6	3.8	0.0	30.8	0.0
	중학교	(37)	18.9	32.4	5.4	21.6	21.6	0.0
	고등학교	(107)	22.4	30.8	16.8	24.3	4.7	0.9
	대학(4년제 미만)	(68)	19.1	30.9	20.6	19.1	7.4	2.9
	대학(4년제 이상)	(166)	30.7	19.9	16.9	24.1	6.6	1.8
	대학원(석사)	(11)	18.2	9.1	18.2	45.5	9.1	0.0
	대학원(박사)	(4)	75.0	25.0	0.0	0.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25.9	28.4	13.6	24.7	7.4	0.0
	아파트	(40)	37.5	17.5	12.5	27.5	2.5	2.5
	오피스텔	(51)	25.5	19.6	17.6	23.5	11.8	2.0
	다세대주택(빌라)	(154)	26.0	28.6	16.9	15.6	12.3	0.6
	반지하	(27)	18.5	29.6	11.1	29.6	7.4	3.7
	고시원/원룸	(64)	23.4	26.6	15.6	25.0	7.8	1.6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20.0	20.0	20.0	0.0	20.0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23.5	24.8	15.0	19.0	15.7	2.0
	200~300만 원	(156)	25.6	30.8	14.7	23.1	4.5	1.3
	300~400만 원	(76)	28.9	26.3	19.7	19.7	5.3	0.0
	400만 원 이상	(38)	31.6	10.5	13.2	31.6	10.5	2.6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27.7	14.9	23.4	23.4	6.4	4.3
	2~3년	(61)	21.3	29.5	11.5	26.2	11.5	0.0
	4~5년	(67)	28.4	25.4	16.4	23.9	4.5	1.5
	6~10년	(116)	31.0	19.8	19.0	19.0	9.5	1.7
	11년 이상	(132)	22.0	34.1	11.4	20.5	11.4	0.8

⑤ 주거 및 일자리 분야 지원사업

-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 및 일자리 분야 지원사업 중 1순위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53.0%)을 확대 및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 가장 많이 선택함. 2순위는 '관악구 일자리센터 운영'(22.0%)의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됨.
- 1, 2순위를 통합한 결과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이 7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관악구 일자리센터 운영'(34.5%) >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21.8%) >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지원'(20.9%) > '채난취약 홀몸어르신 가구 안전점검 실시'(15.2%) 순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응답자 특성별]

- 주거 및 일자리 분야 지원사업 1순위인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을 선택한 비율은 연령층별로 '노년층'(64.1%) > '중장년층'(54.3%) > '청년층'(39.9%)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 주거 및 일자리 분야 지원사업 1순위인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서부권'(64.4%) > '남부권'(55.3%) > '북부권'(54.2%) > '동부권'(37.6%) 순으로 조사됨.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소상공인 한끼나눔 지역 상생 프로젝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재난취약 홀몸어르신 가구 안전점검 실시'는 감소하고 있음.
-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과 '관악구 일자리센터 운영'의 비율이 증가함.

[Base : 전체, 단위 : %]

1순위		사려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423)	53.0	12.5	5.0	4.7	10.2	4.5	1.9	6.4	1.9
성별	남성	(211)	50.2	13.3	6.2	5.7	11.8	3.8	3.3	4.7	0.9
	여성	(212)	55.7	11.8	3.8	3.8	8.5	5.2	0.5	8.0	2.8
연령	청년층	(138)	39.9	11.6	5.1	3.6	18.1	2.9	1.4	11.6	5.8
	중장년층	(140)	54.3	12.9	7.9	7.1	5.0	4.3	2.1	6.4	0.0
	노년층	(145)	64.1	13.1	2.1	3.4	7.6	6.2	2.1	1.4	0.0
지역	북부권	(118)	54.2	8.5	1.7	2.5	14.4	4.2	5.9	5.1	3.4
	동부권	(101)	37.6	7.9	11.9	11.9	11.9	7.9	1.0	6.9	3.0
	남부권	(103)	55.3	28.2	6.8	1.0	3.9	1.9	0.0	2.9	0.0
	서부권	(101)	64.4	5.9	0.0	4.0	9.9	4.0	0.0	10.9	1.0
최종 학력	무학	(4)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초등학교	(26)	65.4	19.2	0.0	0.0	3.8	11.5	0.0	0.0	0.0
	중학교	(37)	62.2	16.2	0.0	5.4	2.7	5.4	5.4	2.7	0.0
	고등학교	(107)	53.3	15.0	7.5	5.6	8.4	4.7	0.0	4.7	0.9
	대학(4년제 미만)	(68)	51.5	8.8	4.4	8.8	10.3	0.0	4.4	8.8	2.9
	대학(4년제 이상)	(166)	48.8	11.4	5.4	3.0	12.7	5.4	1.8	8.4	3.0
	대학원(석사)	(11)	54.5	9.1	0.0	9.1	18.2	0.0	0.0	9.1	0.0
대학원(박사)	(4)	25.0	0.0	25.0	0.0	50.0	0.0	0.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60.5	16.0	1.2	3.7	9.9	1.2	0.0	6.2	1.2
	아파트	(40)	60.0	15.0	10.0	0.0	2.5	5.0	2.5	5.0	0.0
	오피스텔	(51)	49.0	5.9	5.9	9.8	7.8	5.9	2.0	9.8	3.9
	다세대주택(빌라)	(154)	53.2	13.6	5.2	3.9	11.0	3.2	0.6	6.5	2.6
	반지하	(27)	63.0	3.7	7.4	7.4	7.4	3.7	3.7	3.7	0.0
	고시원/원룸	(64)	37.5	14.1	4.7	6.3	15.6	9.4	6.3	6.3	0.0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40.0	0.0	0.0	0.0	20.0	20.0	0.0	0.0	20.0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52.3	14.4	3.9	3.9	6.5	7.8	3.3	5.2	2.6
	200~300만 원	(156)	53.8	11.5	3.8	3.8	14.7	3.2	1.3	5.8	1.9
	300~400만 원	(76)	53.9	10.5	5.3	6.6	11.8	1.3	1.3	7.9	1.3
	400만 원 이상	(38)	50.0	13.2	13.2	7.9	2.6	2.6	0.0	10.5	0.0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42.6	2.1	6.4	6.4	10.6	6.4	2.1	21.3	2.1
	2~3년	(61)	47.5	11.5	4.9	6.6	18.0	3.3	3.3	3.3	1.6
	4~5년	(67)	49.3	14.9	4.5	7.5	11.9	3.0	3.0	4.5	1.5
	6~10년	(116)	49.1	13.8	6.0	6.9	12.9	2.6	0.9	5.2	2.6
	11년 이상	(132)	64.4	14.4	3.8	0.0	3.0	6.8	1.5	4.5	1.5

①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② 관악구 일자리센터 운영

③ 청년소상공인 한끼나눔 지역 상생 프로젝트

④ 청년주거 기초교육

⑤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지원

⑥ 채난취약 홀몸어르신 가구 안전점검 실시

⑦ 장애인 1인 가구 주거 편의 지원

⑧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

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Base : 전체, 단위 : %]

2순위		사려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423)	12.8	22.0	9.2	10.4	10.7	10.7	3.6	15.4	5.2
성별	남성	(211)	11.8	20.9	11.4	9.5	11.8	12.3	3.8	12.8	5.7
	여성	(212)	13.7	23.2	7.1	11.4	9.5	9.0	3.3	18.0	4.7
연령	청년층	(138)	18.8	10.9	2.2	10.9	15.2	5.8	2.9	20.3	13.0
	중장년층	(140)	8.6	27.9	11.4	16.4	8.6	6.4	4.3	13.6	2.9
	노년층	(145)	11.1	27.1	13.9	4.2	8.3	19.4	3.5	12.5	0.0
지역	북부권	(118)	15.3	18.6	9.3	13.6	5.9	10.2	1.7	18.6	6.8
	동부권	(101)	11.0	26.0	4.0	14.0	11.0	17.0	2.0	8.0	7.0
	남부권	(103)	19.4	32.0	18.4	8.7	8.7	2.9	1.0	4.9	3.9
	서부권	(101)	5.0	11.9	5.0	5.0	17.8	12.9	9.9	29.7	3.0
최종 학력	무학	(4)	0.0	0.0	50.0	0.0	0.0	50.0	0.0	0.0	0.0
	초등학교	(26)	3.8	57.7	19.2	0.0	0.0	19.2	0.0	0.0	0.0
	중학교	(37)	18.9	29.7	5.4	5.4	5.4	18.9	5.4	10.8	0.0
	고등학교	(107)	15.1	22.6	14.2	12.3	6.6	11.3	1.9	11.3	4.7
	대학(4년제 미만)	(68)	13.2	22.1	14.7	5.9	11.8	2.9	2.9	23.5	2.9
	대학(4년제 이상)	(166)	11.4	16.3	3.0	13.3	16.9	7.2	4.8	18.7	8.4
	대학원(석사)	(11)	18.2	0.0	0.0	9.1	0.0	36.4	9.1	18.2	9.1
	대학원(박사)	(4)	0.0	25.0	0.0	50.0	0.0	25.0	0.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9.9	28.4	13.6	7.4	4.9	13.6	3.7	17.3	1.2
	아파트	(40)	10.0	20.0	12.5	17.5	17.5	7.5	5.0	7.5	2.5
	오피스텔	(51)	11.8	17.6	5.9	11.8	5.9	9.8	3.9	23.5	9.8
	다세대주택(빌라)	(154)	15.0	23.5	10.5	9.2	12.4	10.5	2.6	11.8	4.6
	반지하	(27)	11.1	25.9	3.7	3.7	18.5	11.1	0.0	18.5	7.4
	고시원/원룸	(64)	14.1	14.1	4.7	12.5	10.9	10.9	4.7	18.8	9.4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20.0	0.0	20.0	0.0	0.0	20.0	20.0	0.0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17.1	27.0	7.2	7.2	3.9	18.4	2.0	14.5	2.6
	200~300만 원	(156)	10.9	20.5	9.6	9.0	17.3	5.8	3.8	16.7	6.4
	300~400만 원	(76)	10.5	19.7	15.8	14.5	10.5	2.6	7.9	13.2	5.3
	400만 원 이상	(38)	7.9	13.2	2.6	21.1	10.5	15.8	0.0	18.4	10.5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17.0	14.9	4.3	12.8	17.0	8.5	4.3	12.8	8.5
	2~3년	(61)	8.2	19.7	4.9	16.4	11.5	13.1	8.2	11.5	6.6
	4~5년	(67)	9.1	24.2	7.6	12.1	10.6	7.6	1.5	18.2	9.1
	6~10년	(116)	13.8	18.1	12.1	11.2	10.3	10.3	1.7	17.2	5.2
	11년 이상	(132)	14.4	28.0	11.4	5.3	8.3	12.1	3.8	15.2	1.5

①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② 관악구 일자리센터 운영

③ 청년소상공인 한끼나눔 지역 상생 프로젝트

④ 청년주거 기초교육

⑤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지원

⑥ 채난취약 홀몸어르신 가구 안전점검 실시

⑦ 장애인 1인 가구 주거 편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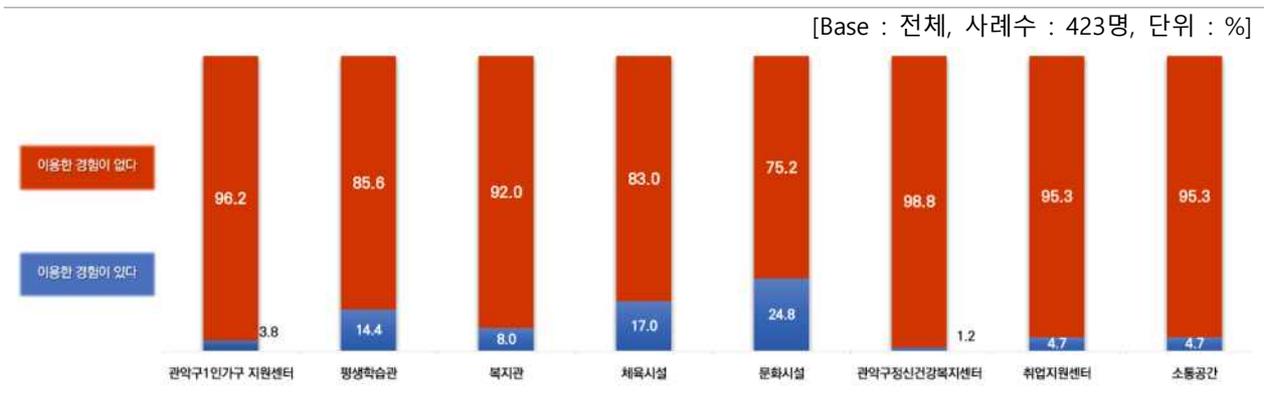
⑧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

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7 프로그램 수요조사

① 공공시설 이용 경험

- 총 9개('기타' 포함)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이용 경험 없음'이 75.2% 이상으로 조사됨.
- 이용 경험이 있는 공공시설로는 '문화시설'을 24.8%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 이용 경험률에 대해 '체육시설'(17.0%) > '평생학습관'(14.4%) > '복지관' (8.0%) > '취업지원센터'와 '소통공간'(4.7%) >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3.8%) > '관악구 정신건강 복지센터'(1.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문화시설'에서는 설문문항에 예시로 표기된 '관악 산공원' 이용 경험률 때문에 비교적 높았고,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관'의 경우 예시로 표기된 '도서관'의 이용 비중이 높아 비교적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응답자 특성별 결과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이용 경험 없음'을 가장 많이 선택함.
- 공공시설 이용 경험 1순위인 '문화시설'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결과 연령층별로 '노년층'(31.7%) > '중장년층'(22.9%) > '청년층'(19.6%) 순으로 조사됨.
- 공공시설 이용 경험 1순위인 '문화시설'의 응답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부권'(31.1%) > '북부권'(24.6%) > '동부권'과 '서부권'(21.8%) 순으로 조사됨.
- 소득이 높을수록 '평생학습관'과 '취업지원센터'의 이용비율이 증가하고 '복지관'이나 '체육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은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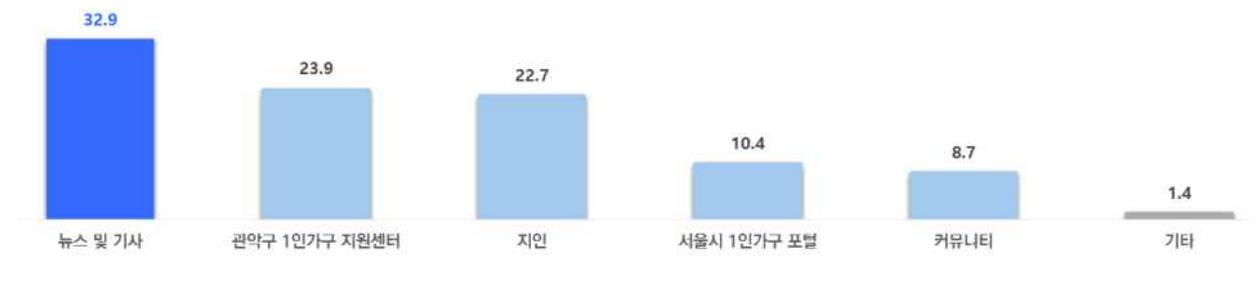
[Base : 전체, 단위 : %(이용경험 있다)]

구분		사례수 (명)	관악구 1인 가구 지원센터	평생 학습관	복지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관악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취업 지원 센터	소통공간
전체		(423)	3.8	14.4	8.0	17.0	24.8	1.2	4.7	4.7
성별	남성	(211)	3.8	12.8	10.0	15.2	21.8	1.4	6.2	5.7
	여성	(212)	3.8	16.0	6.1	18.9	27.8	0.9	3.3	3.8
연령	청년층	(138)	2.9	18.1	2.2	18.1	19.6	1.4	5.8	3.6
	중장년층	(140)	7.1	21.4	0.0	20.0	22.9	2.1	5.7	0.0
	노년층	(145)	1.4	4.1	21.4	13.1	31.7	0.0	2.8	10.3
지역	북부권	(118)	2.5	16.9	10.2	27.1	24.6	0.8	4.2	2.5
	동부권	(101)	9.9	17.8	9.9	21.8	21.8	2.0	5.9	9.9
	남부권	(103)	2.9	11.7	5.8	9.7	31.1	1.9	5.8	6.8
	서부권	(101)	0.0	10.9	5.9	7.9	21.8	0.0	3.0	0.0
최종 학력	무학	(4)	0.0	0.0	100.0	25.0	0.0	0.0	0.0	50.0
	초등학교	(26)	0.0	0.0	19.2	7.7	19.2	0.0	3.8	19.2
	중학교	(37)	0.0	2.7	35.1	18.9	37.8	0.0	0.0	21.6
	고등학교	(107)	2.8	12.1	6.5	17.8	26.2	1.9	3.7	1.9
	대학(4년제 미만)	(68)	7.4	13.2	1.5	19.1	22.1	0.0	5.9	1.5
	대학(4년제 이상)	(166)	4.2	21.1	2.4	16.3	23.5	1.2	6.0	1.2
	대학원(석사)	(11)	9.1	27.3	0.0	27.3	36.4	9.1	9.1	0.0
대학원(박사)	(4)	0.0	0.0	0.0	0.0	0.0	0.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2.5	7.4	9.9	12.3	25.9	1.2	4.9	6.2
	아파트	(40)	5.0	22.5	10.0	22.5	37.5	0.0	0.0	2.5
	오피스텔	(51)	3.9	21.6	0.0	17.6	13.7	2.0	2.0	3.9
	다세대주택(빌라)	(154)	3.9	13.0	11.0	18.8	27.9	1.3	6.5	6.5
	반지하	(27)	7.4	14.8	3.7	18.5	22.2	3.7	0.0	0.0
	고시원/원룸	(64)	3.1	15.6	4.7	12.5	17.2	0.0	6.3	3.1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0.0	20.0	20.0	40.0	40.0	0.0	20.0	0.0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2.0	11.1	20.3	19.0	28.1	0.7	3.9	9.8
	200~300만 원	(156)	4.5	14.1	1.9	17.3	23.7	1.3	4.5	2.6
	300~400만 원	(76)	5.3	18.4	0.0	14.5	25.0	2.6	3.9	1.3
	400만 원 이상	(38)	5.3	21.1	0.0	13.2	15.8	0.0	10.5	0.0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2.1	10.6	6.4	14.9	19.1	0.0	2.1	2.1
	2~3년	(61)	6.6	18.0	1.6	31.1	26.2	0.0	3.3	4.9
	4~5년	(67)	6.0	20.9	6.0	17.9	25.4	0.0	4.5	1.5
	6~10년	(116)	2.6	14.7	6.9	12.9	21.6	2.6	6.0	4.3
	11년 이상	(132)	3.0	10.6	13.6	14.4	28.8	1.5	5.3	7.6

② 정책정보 경로

- 1인가구 지원사업이나 정책정보를 주로 얻는 곳으로 '뉴스 및 기사'가 3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23.9%) > '지인'(22.7%) > '서울시 1인가구 포털'(10.4%) 등의 순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 남성은 '뉴스 및 기사'(34.1%) > '지인'(23.7%) >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22.7%) 순으로 여성은 '뉴스 및 기사'(31.6%) >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25.0%) > '지인'(21.7%) 순으로 나타남.
- '노년층'은 '지인'이 '청년층'은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 '중장년층'은 '뉴스 및 기사'가 가장 많았음.
- 지역별로 '북부권'과 '동부권'은 '뉴스 및 기사'로 '남부권'과 '서부권'은 '지인'을 통해 정책 정보 경로를 얻는다고 답함.
- 소득이 증가할수록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의 비율이 증가하고 '뉴스 및 기사'와 '지인'의 비율이 낮았음.
-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커뮤니티'의 비율이 감소하고 '지인'의 비율이 증가함.

[Base : 전체,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서울시 1인가구 포털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	뉴스 및 기사	커뮤니티	지인	기타
전체		(423)	10.4	23.9	32.9	8.7	22.7	1.4
성별	남성	(211)	9.0	22.7	34.1	9.0	23.7	1.4
	여성	(212)	11.8	25.0	31.6	8.5	21.7	1.4
연령	청년층	(138)	16.7	30.4	26.8	15.2	8.0	2.9
	중장년층	(140)	10.7	30.0	37.9	8.6	12.1	0.7
	노년층	(145)	4.1	11.7	33.8	2.8	46.9	0.7
지역	북부권	(118)	11.9	22.0	44.9	8.5	11.0	1.7
	동부권	(101)	14.9	19.8	35.6	6.9	19.8	3.0
	남부권	(103)	9.7	27.2	27.2	6.8	28.2	1.0
	서부권	(101)	5.0	26.7	21.8	12.9	33.7	0.0
최종 학력	무학	(4)	0.0	25.0	50.0	0.0	25.0	0.0
	초등학교	(26)	0.0	0.0	38.5	3.8	57.7	0.0
	중학교	(37)	8.1	8.1	51.4	2.7	29.7	0.0
	고등학교	(107)	13.1	14.0	31.8	4.7	36.4	0.0
	대학(4년제 미만)	(68)	11.8	25.0	25.0	17.6	19.1	1.5
	대학(4년제 이상)	(166)	9.6	36.7	31.3	10.2	9.0	3.0
	대학원(석사)	(11)	18.2	36.4	27.3	0.0	18.2	0.0
	대학원(박사)	(4)	25.0	0.0	50.0	25.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7.4	14.8	35.8	8.6	33.3	0.0
	아파트	(40)	2.5	45.0	22.5	12.5	17.5	0.0
	오피스텔	(51)	19.6	29.4	31.4	5.9	9.8	3.9
	다세대주택(빌라)	(154)	11.0	23.4	35.1	5.2	25.3	0.0
	반지하	(27)	14.8	14.8	25.9	11.1	29.6	3.7
	고시원/원룸	(64)	7.8	23.4	34.4	15.6	14.1	4.7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20.0	40.0	0.0	20.0	0.0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8.5	16.3	37.9	5.9	30.1	1.3
	200~300만 원	(156)	13.5	20.5	31.4	10.9	22.4	1.3
	300~400만 원	(76)	9.2	31.6	34.2	11.8	13.2	0.0
	400만 원 이상	(38)	7.9	52.6	15.8	5.3	13.2	5.3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19.1	17.0	25.5	19.1	14.9	4.3
	2~3년	(61)	14.8	36.1	27.9	9.8	11.5	0.0
	4~5년	(67)	7.5	25.4	37.3	6.0	22.4	1.5
	6~10년	(116)	12.1	25.0	29.3	9.5	23.3	0.9
	11년 이상	(132)	5.3	18.9	38.6	5.3	30.3	1.5

③ 프로그램 우선 고려사항

- 프로그램 이용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접근성'이 43.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접근성의 경우 장소와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대면/비대면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의 정보 접근성도 포함해 응답한 비중임.
- 그 다음으로 '비용'(28.1%) > '프로그램 내용'(24.1%) > '프로그램 기간, 회차'(4.0%) 순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 프로그램 우선 고려사항인 접근성에 대해 '여성'(47.6%)이 '남성'(39.3%)보다 8.3%p 높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우선 고려사항인 접근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노년층'(49.7%) > '중장년층'(45.0%) > '청년층'(35.5%) 순으로 나타남.
- 접근성에 대한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부권'(52.5%) > '남부권'(41.7%) > '북부권'(41.5%) > '동부권'(38.6%) 순으로 조사됨.
-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비용'과 '접근성'의 비율이 감소하고 '프로그램 내용'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소득이 높을수록 '비용'의 비율이 감소하고 '접근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Base : 전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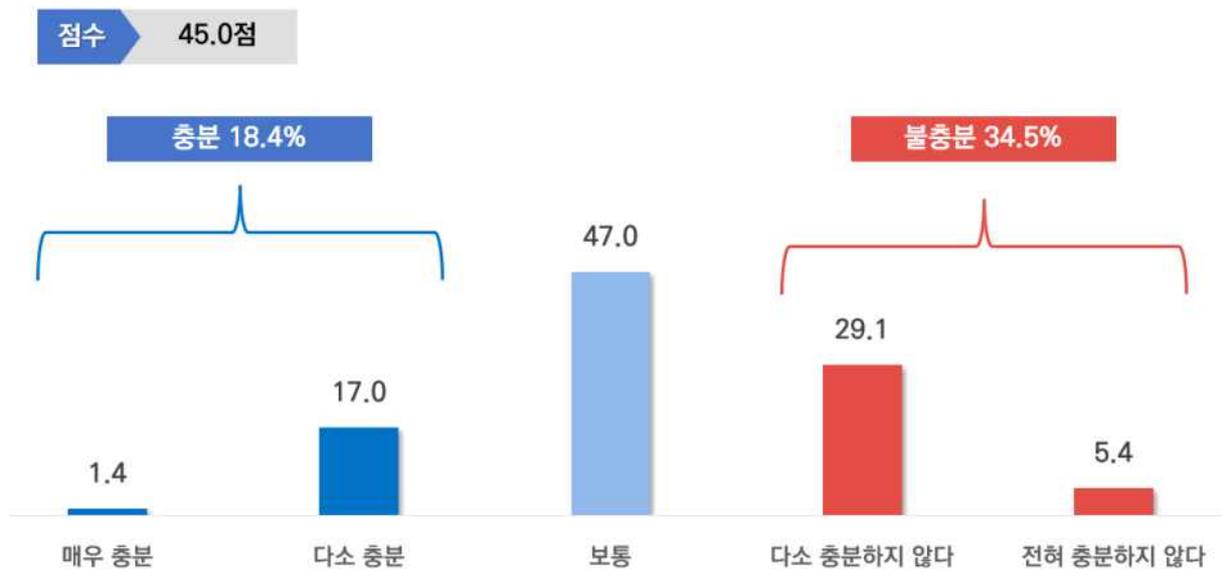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비용	접근성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기간, 회차	기타
전체		(423)	28.1	43.5	24.1	4.0	0.2
성별	남성	(211)	30.3	39.3	27.0	3.3	0.0
	여성	(212)	25.9	47.6	21.2	4.7	0.5
연령	청년층	(138)	29.7	35.5	31.2	2.9	0.7
	중장년층	(140)	25.7	45.0	25.0	4.3	0.0
	노년층	(145)	29.0	49.7	16.6	4.8	0.0
지역	북부권	(118)	34.7	41.5	21.2	1.7	0.8
	동부권	(101)	28.7	38.6	18.8	13.9	0.0
	남부권	(103)	35.0	41.7	23.3	0.0	0.0
	서부권	(101)	12.9	52.5	33.7	1.0	0.0
최종 학력	무학	(4)	50.0	50.0	0.0	0.0	0.0
	초등학교	(26)	34.6	61.5	3.8	0.0	0.0
	중학교	(37)	37.8	43.2	13.5	5.4	0.0
	고등학교	(107)	33.6	41.1	19.6	5.6	0.0
	대학(4년제 미만)	(68)	30.9	47.1	17.6	4.4	0.0
	대학(4년제 이상)	(166)	19.9	41.0	34.9	3.6	0.6
	대학원(석사)	(11)	27.3	36.4	36.4	0.0	0.0
	대학원(박사)	(4)	25.0	50.0	25.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24.7	51.9	18.5	4.9	0.0
	아파트	(40)	15.0	52.5	25.0	7.5	0.0
	오피스텔	(51)	35.3	37.3	23.5	3.9	0.0
	다세대주택(빌라)	(154)	31.2	44.2	21.4	3.2	0.0
	반지하	(27)	18.5	37.0	37.0	3.7	3.7
	고시원/원룸	(64)	31.3	32.8	32.8	3.1	0.0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40.0	60.0	0.0	0.0	0.0
	기타	(1)	0.0	0.0	10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38.6	43.1	13.7	4.6	0.0
	200~300만 원	(156)	24.4	44.2	28.2	2.6	0.6
	300~400만 원	(76)	21.1	39.5	32.9	6.6	0.0
	400만 원 이상	(38)	15.8	50.0	31.6	2.6	0.0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25.5	36.2	27.7	8.5	2.1
	2~3년	(61)	34.4	34.4	19.7	11.5	0.0
	4~5년	(67)	23.9	44.8	26.9	4.5	0.0
	6~10년	(116)	26.7	49.1	23.3	0.9	0.0
	11년 이상	(132)	29.5	44.7	24.2	1.5	0.0

8 1인가구 지원정책

① 1인가구 지원정책 충분도

- 1인가구 지원정책 충분도의 평균 점수는 45.0점으로 조사됨.
- '불충분'(다소 충분하지 않음 29.1%, 전혀 충분하지 않음 5.4%)은 34.5%로 나타나며, '충분'(매우 충분 1.4%, 다소 충분 17.0%)의 경우 18.4%로 조사됨.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단위 : %, 점(100점 환산)]



[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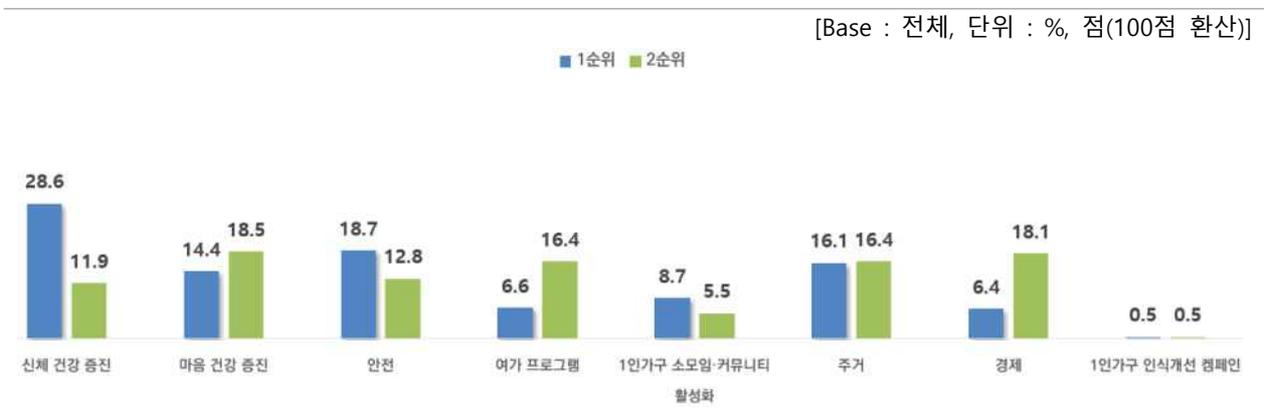
- '여성'(45.5점)이 '남성'(44.4점)으로 1.1점 더 높았음.
- '중장년층'(47.7점) > '노년층'(44.7점) > '청년층'(42.6점)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권'이 47.8점으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남부권'(47.6점) > '서부권'(45.3점) > '북부권'(40.0점) 순으로 나타남.
- 주택 유형의 경우 '아파트'가 50.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오피스텔'(46.1점) > '다세대주택'(45.6점) > '고시원/원룸'(44.5점) > '반지하'(42.6점) 순으로 조사됨.
- 소득의 경우 '300~400만 원 미만'이 49.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0~300만 원 미만'과 '400만 원 이상'(44.1점) > '200만 원 이하'(44.0점) 순으로 조사됨.

[Base : 전체, 단위 : %, 점(100점 환산)]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충분	다소 충분	보통	다소 충분하지 않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	TOP2	MIDDLE	BOT2	평점
전체		(423)	1.4	17.0	47.0	29.1	5.4	18.4	47.0	34.5	45.0
성별	남성	(211)	1.9	17.5	44.5	28.4	7.6	19.4	44.5	36.0	44.4
	여성	(212)	0.9	16.5	49.5	29.7	3.3	17.5	49.5	33.0	45.5
연령	청년층	(138)	2.9	10.9	47.1	31.9	7.2	13.8	47.1	39.1	42.6
	중장년층	(140)	1.4	23.6	45.0	24.3	5.7	25.0	45.0	30.0	47.7
	노년층	(145)	0.0	16.6	49.0	31.0	3.4	16.6	49.0	34.5	44.7
지역	북부권	(118)	0.0	14.4	38.1	40.7	6.8	14.4	38.1	47.5	40.0
	동부권	(101)	4.0	23.8	35.6	32.7	4.0	27.7	35.6	36.6	47.8
	남부권	(103)	1.9	18.4	51.5	24.3	3.9	20.4	51.5	28.2	47.6
	서부권	(101)	0.0	11.9	64.4	16.8	6.9	11.9	64.4	23.8	45.3
최종 학력	무학	(4)	0.0	0.0	75.0	0.0	25.0	0.0	75.0	25.0	37.5
	초등학교	(26)	0.0	11.5	46.2	42.3	0.0	11.5	46.2	42.3	42.3
	중학교	(37)	0.0	18.9	27.0	45.9	8.1	18.9	27.0	54.1	39.2
	고등학교	(107)	1.9	23.4	46.7	23.4	4.7	25.2	46.7	28.0	48.6
	대학(4년제 미만)	(68)	1.5	19.1	57.4	17.6	4.4	20.6	57.4	22.1	48.9
	대학(4년제 이상)	(166)	1.8	13.3	45.8	33.1	6.0	15.1	45.8	39.2	42.9
	대학원(석사)	(11)	0.0	0.0	72.7	18.2	9.1	0.0	72.7	27.3	40.9
대학원(박사)	(4)	0.0	50.0	25.0	25.0	0.0	50.0	25.0	25.0	56.3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1.2	9.9	49.4	33.3	6.2	11.1	49.4	39.5	41.7
	아파트	(40)	0.0	30.0	47.5	17.5	5.0	30.0	47.5	22.5	50.6
	오피스텔	(51)	2.0	17.6	49.0	25.5	5.9	19.6	49.0	31.4	46.1
	다세대주택(빌라)	(154)	1.3	18.8	45.5	29.9	4.5	20.1	45.5	34.4	45.6
	반지하	(27)	0.0	11.1	55.6	25.9	7.4	11.1	55.6	33.3	42.6
	고시원/원룸	(64)	1.6	17.2	43.8	32.8	4.7	18.8	43.8	37.5	44.5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0.0	20.0	40.0	20.0	20.0	20.0	60.0	40.0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5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2.0	18.3	39.9	33.3	6.5	20.3	39.9	39.9	44.0
	200~300만 원	(156)	1.3	11.5	53.2	30.1	3.8	12.8	53.2	34.0	44.1
	300~400만 원	(76)	0.0	23.7	52.6	21.1	2.6	23.7	52.6	23.7	49.3
	400만 원 이상	(38)	2.6	21.1	39.5	23.7	13.2	23.7	39.5	36.8	44.1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2.1	19.1	38.3	34.0	6.4	21.3	38.3	40.4	44.1
	2~3년	(61)	1.6	24.6	37.7	31.1	4.9	26.2	37.7	36.1	46.7
	4~5년	(67)	3.0	14.9	46.3	31.3	4.5	17.9	46.3	35.8	45.1
	6~10년	(116)	0.9	17.2	47.4	27.6	6.9	18.1	47.4	34.5	44.4
	11년 이상	(132)	0.8	13.6	54.5	26.5	4.5	14.4	54.5	31.1	44.9

② 가장 시급한 1인가구 지원정책

- 가장 시급한 1인가구 지원정책 1순위로 '신체 건강 증진(건강 먹거리, 운동 처방)'(28.6%)을 가장 많이 선택함. 2순위로는 '마음 건강 증진(심리상담, 우울감·스트레스 관리)'(18.5%)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조사됨.
- 1, 2순위를 합한 결과 '신체 건강 증진(건강 먹거리, 운동 처방)'이 40.5%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마음 건강 증진(심리상담, 우울감·스트레스 관리)'이 32.9%, '주거(주거상태 개선, 부동산 관련 상담 및 교육 등)'(32.5%), '안전(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안심 귀가 도우미)'(31.5%), '경제(다양한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교육 확대)'(24.5%), '여가 프로그램(예체능 취미활동, 관광, 체험활동 등)'(23.0%)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연령대의 경우 1순위 기준 '청년층'은 '주거(주거상태 개선, 부동산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와 '안전(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안심 귀가 도우미)'이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신체 건강 증진(건강 먹거리, 운동 처방)'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1순위 기준 '북부권'과 '남부권', '서부권'은 '신체 건강 증진(건강 먹거리, 운동 처방)'의 비율이 높았고, '동부권'은 '안전(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안심 귀가 도우미)'이 가장 높았음.
-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안전(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안심 귀가 도우미)'과 '여가 프로그램(예체능 취미활동, 관광, 체험활동 등)'이 증가함.
- 소득이 증가할수록 '마음 건강 증진(심리상담, 우울감·스트레스 관리)'과 '여가 프로그램(예체능 취미활동, 관광, 체험활동 등)'이 증가함.
-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신체 건강 증진(건강 먹거리, 운동 처방)'이 증가하고 '마음 건강 증진(심리상담, 우울감·스트레스 관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Base : 전체, 단위 : %]

1순위		사례수 (명)	신체 건강증진	마음 건강증진	안전	여가 프로그램	1인 가구 소모임 커뮤니티 활성화	주거	경제	1인 가구 인식개선 캠페인
전체		(423)	28.6	14.4	18.7	6.6	8.7	16.1	6.4	0.5
성별	남성	(211)	26.1	16.6	18.5	7.6	8.1	17.1	6.2	0.0
	여성	(212)	31.1	12.3	18.9	5.7	9.4	15.1	6.6	0.9
연령	청년층	(138)	14.5	15.9	23.2	4.3	9.4	23.9	8.0	0.7
	중장년층	(140)	27.9	17.1	22.1	7.9	11.4	10.0	3.6	0.0
	노년층	(145)	42.8	10.3	11.0	7.6	5.5	14.5	7.6	0.7
지역	북부권	(118)	25.4	11.0	13.6	5.9	11.9	24.6	5.9	1.7
	동부권	(101)	21.8	16.8	27.7	1.0	13.9	13.9	5.0	0.0
	남부권	(103)	31.1	21.4	9.7	7.8	2.9	15.5	11.7	0.0
	서부권	(101)	36.6	8.9	24.8	11.9	5.9	8.9	3.0	0.0
최종 학력	무학	(4)	25.0	0.0	25.0	0.0	0.0	50.0	0.0	0.0
	초등학교	(26)	61.5	19.2	7.7	3.8	0.0	0.0	7.7	0.0
	중학교	(37)	37.8	16.2	13.5	5.4	5.4	16.2	5.4	0.0
	고등학교	(107)	27.1	16.8	15.9	6.5	5.6	15.9	11.2	0.9
	대학(4년제 미만)	(68)	22.1	10.3	19.1	7.4	20.6	16.2	4.4	0.0
	대학(4년제 이상)	(166)	26.5	14.5	21.7	6.6	8.4	17.5	4.2	0.6
	대학원(석사)	(11)	18.2	9.1	36.4	18.2	0.0	9.1	9.1	0.0
	대학원(박사)	(4)	0.0	0.0	25.0	0.0	25.0	50.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34.6	11.1	18.5	6.2	6.2	16.0	7.4	0.0
	아파트	(40)	40.0	17.5	10.0	15.0	12.5	2.5	2.5	0.0
	오피스텔	(51)	23.5	9.8	19.6	9.8	7.8	21.6	5.9	2.0
	다세대주택(빌라)	(154)	32.5	14.3	19.5	5.2	11.0	9.7	7.1	0.6
	반지하	(27)	33.3	18.5	22.2	7.4	0.0	14.8	3.7	0.0
	고시원/원룸	(64)	7.8	18.8	20.3	3.1	9.4	32.8	7.8	0.0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0.0	20.0	0.0	0.0	60.0	0.0	0.0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34.0	13.7	17.6	3.3	7.2	16.3	7.2	0.7
	200~300만 원	(156)	21.8	13.5	20.5	7.1	10.3	17.3	9.6	0.0
	300~400만 원	(76)	27.6	15.8	21.1	6.6	9.2	17.1	1.3	1.3
	400만 원 이상	(38)	36.8	18.4	10.5	18.4	7.9	7.9	0.0	0.0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12.8	25.5	21.3	2.1	12.8	21.3	4.3	0.0
	2~3년	(61)	23.0	16.4	24.6	4.9	13.1	13.1	4.9	0.0
	4~5년	(67)	20.9	16.4	23.9	6.0	13.4	14.9	4.5	0.0
	6~10년	(116)	32.8	12.1	15.5	8.6	6.0	18.1	6.0	0.9
	11년 이상	(132)	37.1	10.6	15.2	7.6	5.3	14.4	9.1	0.8

[Base : 전체, 단위 : %]

2순위		사례수 (명)	신체 건강증진	마음 건강증진	안전	여가 프로그램	1인 가구 소모임 커뮤니티 활성화	주거	경제	1인 가구 인식개선 캠페인
전체		(423)	11.9	18.5	12.8	16.4	5.5	16.4	18.1	0.5
성별	남성	(211)	11.4	19.0	8.1	18.6	5.2	15.7	21.4	0.5
	여성	(212)	12.3	18.0	17.5	14.2	5.7	17.1	14.7	0.5
연령	청년층	(138)	13.0	15.9	13.8	13.0	5.8	18.1	20.3	0.0
	중장년층	(140)	10.9	18.8	13.0	16.7	5.8	15.9	18.1	0.7
	노년층	(145)	11.7	20.7	11.7	19.3	4.8	15.2	15.9	0.7
지역	북부권	(118)	14.4	13.6	16.9	15.3	5.9	16.1	17.8	0.0
	동부권	(101)	13.0	22.0	12.0	18.0	2.0	18.0	14.0	1.0
	남부권	(103)	10.7	21.4	9.7	18.4	6.8	13.6	19.4	0.0
	서부권	(101)	9.0	18.0	12.0	14.0	7.0	18.0	21.0	1.0
최종 학력	무학	(4)	25.0	50.0	0.0	0.0	0.0	0.0	25.0	0.0
	초등학교	(26)	11.5	23.1	19.2	7.7	7.7	23.1	7.7	0.0
	중학교	(37)	8.1	18.9	5.4	21.6	5.4	13.5	27.0	0.0
	고등학교	(107)	13.2	21.7	10.4	17.9	6.6	16.0	13.2	0.9
	대학(4년제 미만)	(68)	16.4	9.0	14.9	13.4	4.5	23.9	17.9	0.0
	대학(4년제 이상)	(166)	8.4	19.9	13.9	17.5	5.4	13.3	21.1	0.6
	대학원(석사)	(11)	18.2	9.1	18.2	9.1	0.0	27.3	18.2	0.0
대학원(박사)	(4)	50.0	0.0	25.0	25.0	0.0	0.0	0.0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11.1	18.5	11.1	12.3	3.7	17.3	25.9	0.0
	아파트	(40)	12.5	15.0	17.5	25.0	12.5	12.5	5.0	0.0
	오피스텔	(51)	3.9	15.7	5.9	13.7	9.8	17.6	31.4	2.0
	다세대주택(빌라)	(154)	13.1	20.3	11.8	17.6	5.2	17.0	14.4	0.7
	반지하	(27)	3.8	26.9	19.2	19.2	0.0	15.4	15.4	0.0
	고시원/원룸	(64)	18.8	14.1	18.8	15.6	3.1	14.1	15.6	0.0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5)	20.0	40.0	0.0	0.0	0.0	20.0	20.0	0.0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12.5	22.4	11.8	13.8	4.6	19.1	15.1	0.7
	200~300만 원	(156)	10.3	16.1	11.0	18.7	7.7	16.8	19.4	0.0
	300~400만 원	(76)	11.8	11.8	21.1	18.4	2.6	13.2	19.7	1.3
	400만 원 이상	(38)	15.8	26.3	7.9	13.2	5.3	10.5	21.1	0.0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8.5	17.0	19.1	14.9	6.4	21.3	12.8	0.0
	2~3년	(61)	15.0	18.3	10.0	21.7	6.7	13.3	15.0	0.0
	4~5년	(67)	16.4	14.9	9.0	17.9	6.0	19.4	13.4	3.0
	6~10년	(116)	11.3	16.5	17.4	13.9	7.0	20.0	13.9	0.0
	11년 이상	(132)	9.8	22.7	9.8	15.9	3.0	11.4	27.3	0.0

③ 자립지원 프로그램

-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체력증진(호신술, 필라테스 등)'이 13.9%로 참석 희망률이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재무설계(돈 관리, 노후준비 등)'(13.0%) > '생활 관리(요리 등)'(11.2%) >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9.3%) > '건강, 보건 관련 교육(식생활, 건강관리)' (9.2%) 순으로 조사됨.
- '참여하고 싶지 않음'은 9.9%로 확인됨.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중복포함,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 남성은 '참여하고 싶지 않음'(14.5%) > '생활 관리(요리 등)'(12.8%) > '체력증진(호신술, 필라테스 등)'(11.8%) 순으로 여성은 '체력증진(호신술, 필라테스 등)'(15.7%) > '재무 설계(돈 관리, 노후준비 등)'(14.3%) > '생활 관리(요리 등)'(9.9%) 순으로 나타남.
- '청년층'은 '체력증진(호신술, 필라테스 등)'이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참여하고 싶지 않음'이 가장 많았음.
- 지역별로 '북부권'은 '재무설계(돈 관리, 노후준비 등)'가 '동부권'과 '남부권'은 '체력증진(호신술, 필라테스 등)'이 '서부권'은 '하고 싶지 않음'이 가장 높음.
- 소득이 증가할수록 '생활 관리(요리 등)'의 비율이 감소하고 '안전교육(응급상황, 범죄예방 등)'의 비율이 증가함.
-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체력증진(호신술, 필라테스 등)'의 비율이 감소하고 '건강, 보건 관련 교육(식생활, 건강관리)'의 비율이 증가함.

[Base : 전체, 단위 :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423)	11.2	13.9	13.0	5.5	3.0	9.3	6.6	8.7	9.2	2.7	6.5	9.9	0.3
성별	남성	(211)	12.8	11.8	11.5	6.6	2.7	8.8	4.4	8.6	9.8	2.5	5.2	14.5	0.7
	여성	(212)	9.9	15.7	14.3	4.6	3.3	9.7	8.5	8.7	8.7	2.9	7.7	6.0	0.0
연령	청년층	(138)	10.4	16.4	14.6	5.8	3.5	10.6	6.9	8.2	9.5	2.7	10.0	1.1	0.2
	중장년층	(140)	9.4	13.7	12.8	3.8	1.7	7.7	6.0	13.2	7.3	3.0	4.3	16.7	0.4
	노년층	(145)	15.1	8.8	9.8	6.8	3.4	8.3	6.8	4.4	10.7	2.4	1.5	21.5	0.5
지역	북부권	(118)	11.0	14.8	15.5	4.6	2.8	9.5	4.9	9.9	11.0	1.4	7.4	6.7	0.4
	동부권	(101)	13.1	14.1	13.6	3.9	4.4	11.2	7.3	8.7	7.8	4.9	5.8	5.3	0.0
	남부권	(103)	9.2	16.5	9.2	9.2	2.9	8.3	5.8	8.3	7.8	2.4	5.3	14.6	0.5
	서부권	(101)	11.8	9.7	12.8	4.6	2.1	8.2	9.2	7.2	9.7	2.6	7.2	14.4	0.5
최종 학력	무학	(4)	14.3	28.6	14.3	0.0	0.0	0.0	0.0	0.0	14.3	0.0	0.0	28.6	0.0
	초등학교	(26)	22.0	14.6	7.3	4.9	2.4	7.3	9.8	2.4	12.2	4.9	0.0	12.2	0.0
	중학교	(37)	12.2	8.2	16.3	10.2	4.1	6.1	4.1	6.1	14.3	2.0	4.1	12.2	0.0
	고등학교	(107)	8.7	9.3	12.4	6.8	3.7	8.7	7.5	5.6	8.7	1.9	3.7	22.4	0.6
	대학(4년제 미만)	(68)	15.4	16.9	11.0	5.1	2.2	8.8	2.9	11.0	7.4	2.9	4.4	11.8	0.0
	대학(4년제 이상)	(166)	10.2	15.0	14.4	4.6	3.1	10.8	7.1	9.7	8.6	2.7	8.6	4.6	0.4
	대학원(석사)	(11)	5.6	13.9	8.3	5.6	2.8	5.6	11.1	11.1	16.7	2.8	13.9	2.8	0.0
	대학원(박사)	(4)	12.5	12.5	12.5	12.5	0.0	0.0	12.5	12.5	0.0	12.5	0.0	12.5	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81)	13.8	9.4	12.3	5.1	2.9	8.7	4.3	7.2	8.7	5.1	5.1	17.4	0.0
	아파트	(40)	9.9	12.7	8.5	5.6	4.2	11.3	9.9	7.0	11.3	2.8	4.2	12.7	0.0
	오피스텔	(51)	8.3	17.4	14.0	5.8	2.5	9.9	9.1	7.4	5.8	0.8	9.1	9.1	0.8
	다세대주택(빌라)	(154)	12.2	14.6	12.8	5.2	3.7	7.0	7.0	8.8	9.8	2.7	7.0	9.1	0.0
	반지하	(27)	10.6	17.0	14.9	2.1	2.1	17.0	4.3	12.8	10.6	0.0	0.0	6.4	2.1
	고시원/원룸	(64)	10.2	13.9	14.5	7.8	1.8	10.8	5.4	9.0	9.0	3.0	7.2	6.6	0.6
	비거주이용 건물 내 주택	(5)	14.3	14.3	14.3	0.0	0.0	7.1	7.1	14.3	14.3	0.0	14.3	0.0	0.0
	기타	(1)	0.0	0.0	20.0	0.0	20.0	20.0	0.0	20.0	20.0	0.0	0.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153)	12.5	12.5	13.2	6.6	3.6	9.6	6.9	6.6	10.2	3.3	5.9	8.6	0.3
	200~300만 원	(156)	10.9	15.9	12.8	4.1	3.4	9.1	5.3	10.0	8.1	2.2	6.6	11.6	0.0
	300~400만 원	(76)	10.8	15.3	12.5	7.4	1.7	9.1	6.3	10.2	8.0	2.8	8.0	8.0	0.0
	400만 원 이상	(38)	8.8	8.8	14.3	3.3	2.2	9.9	11.0	7.7	12.1	2.2	5.5	12.1	2.2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47)	11.8	18.5	15.1	3.4	1.7	7.6	6.7	5.9	5.9	5.9	12.6	4.2	0.8
	2~3년	(61)	10.9	19.5	11.7	3.9	3.1	10.2	5.5	7.8	9.4	3.9	7.0	7.0	0.0
	4~5년	(67)	9.0	11.4	10.8	8.4	4.2	10.2	6.6	12.7	9.0	1.2	8.4	7.2	0.6
	6~10년	(116)	11.3	11.7	15.8	5.9	2.3	10.4	5.9	8.1	8.6	2.3	5.0	13.1	0.0
	11년 이상	(132)	12.5	12.5	11.8	5.1	3.5	8.2	7.8	8.2	11.4	2.0	3.5	12.9	0.4

① 생활 관리(요리 등)

② 체력증진(호신술, 필라테스 등)

③ 재무 설계(돈 관리, 노후준비 등)

④ 수납정리

⑤ 품앗이 및 공동체 활동

⑥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⑦ 안전교육(응급상황, 범죄예방 등)

⑧ 자기역량개발 및 직업훈련

⑨ 건강, 보건 관련 교육(식생활, 건강관리)

⑩ 반려동물 관련 교육

⑪ 이사 도움 서비스

⑫ 참여하고 싶지 않음

⑬ 기타

④ 여가/일상생활 프로그램 참여의향

- 참여의향이 있는 여가/일상생활 프로그램으로 '영화/미술관 등 관람 및 감상'이 19.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그 다음으로 '조깅, 헬스 등 스포츠·건강'(17.9%) > '사진찍기/악기연주 등 취미 및 교양 활동'(16.2%) > '드라이브/여행 등 관광'(12.5%)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9.5%로 조사됨.

[Base : 전체, 사례수 : 423명, 중복포함 : 797명,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 남성은 '영화/미술관 등 관람 및 감상'(18.9%) > '조깅, 헬스 등 스포츠·건강'(17.7%) > '드라이브/여행 등 관광'(15.4%) 순으로 여성은 '영화/미술관 등 관람 및 감상'(15.7%) > '조깅, 헬스 등 스포츠·건강'(18.2%) > '드라이브/여행 등 관광'(17.0%) 순으로 나타남.
- '청년층'은 '조깅, 헬스 등 스포츠·건강'(24.0%)이 '중장년층'은 '드라이브/여행 등 관광'(20.3%), '노년층'은 '영화/미술관 등 관람 및 감상'(23.8%)이 가장 많았음.
- 지역별로 '북부권'은 '드라이브/여행 등 관광'과 '조깅, 헬스 등 스포츠·건강'을 '동부권'과 '남부권'은 '영화/미술관 등 관람 및 감상'이 '서부권'은 '참여하고 싶지 않음'이 가장 높음.
-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자원봉사활동 및 관련 동호회'의 비율이 감소하고 '참여하고 싶지 않음'의 비율이 증가함.

[Base : 전체, 단위 : %]

구분		사례수 중복포함 (명)	사회적 관계 맺기	영화/ 미술관 등 관람 및 감상	사진찍기/ 악기연주 등 취미 및 교양 활동	드라이브/ 여행 등 관광	조깅, 헬스 등 스포츠 건강	자원봉사 활동 및 관련 동호회	컴퓨터 게임/당구 등 놀이오락	참여하고 싶지 않음
전체		(797)	12.4	19.6	12.5	16.2	17.9	6.3	5.5	9.5
성별	남성	(402)	13.4	18.9	10.4	15.4	17.7	4.0	7.2	12.9
	여성	(395)	11.4	20.3	14.7	17.0	18.2	8.6	3.8	6.1
연령	청년층	(342)	12.6	17.8	15.2	11.4	24.0	9.9	7.0	2.0
	중장년층	(232)	12.9	18.1	11.6	20.3	12.9	3.4	6.5	14.2
	노년층	(223)	11.7	23.8	9.4	19.3	13.9	3.6	2.2	16.1
지역	북부권	(281)	11.4	17.4	12.8	22.4	22.4	7.8	5.0	0.7
	동부권	(164)	16.5	23.2	14.0	11.0	17.1	5.5	7.3	5.5
	남부권	(195)	12.8	24.1	11.3	15.9	14.4	3.6	6.2	11.8
	서부권	(157)	9.6	14.0	12.1	10.8	15.3	7.6	3.8	26.8
최종 학력	무학	(6)	50.0	16.7	0.0	33.3	0.0	0.0	0.0	0.0
	초등학교	(37)	10.8	37.8	5.4	18.9	10.8	2.7	2.7	10.8
	중학교	(61)	9.8	24.6	6.6	29.5	19.7	0.0	4.9	4.9
	고등학교	(171)	12.9	19.9	10.5	18.1	14.0	4.1	5.3	15.2
	대학(4년제 미만)	(124)	12.1	16.9	11.3	16.9	20.2	6.5	4.8	11.3
	대학(4년제 이상)	(365)	12.9	17.5	15.3	12.9	18.6	9.0	6.3	7.4
	대학원(석사)	(27)	3.7	22.2	22.2	11.1	29.6	3.7	3.7	3.7
	대학원(박사)	(6)	16.7	16.7	0.0	0.0	33.3	0.0	16.7	16.7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140)	16.4	17.1	8.6	13.6	10.0	7.1	7.1	20.0
	아파트	(65)	7.7	23.1	18.5	12.3	20.0	9.2	0.0	9.2
	오피스텔	(107)	11.2	21.5	13.1	14.0	21.5	4.7	5.6	8.4
	다세대주택(빌라)	(298)	12.1	20.1	12.8	20.8	19.1	4.7	5.7	4.7
	반지하	(39)	15.4	23.1	12.8	20.5	5.1	0.0	5.1	17.9
	고시원/원룸	(137)	10.9	16.8	13.1	12.4	22.6	8.8	6.6	8.8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	(7)	14.3	14.3	14.3	0.0	28.6	28.6	0.0	0.0
	기타	(4)	25.0	25.0	0.0	0.0	25.0	25.0	0.0	0.0
소득 구분	200만 원 이하	(274)	13.1	21.9	9.1	19.0	18.6	5.1	5.8	7.3
	200~300만 원	(304)	11.8	17.4	13.2	14.8	18.8	7.2	5.9	10.9
	300~400만 원	(141)	12.1	19.9	16.3	18.4	14.2	6.4	3.5	9.2
	400만 원 이상	(78)	12.8	19.2	15.4	7.7	19.2	6.4	6.4	12.8
혼자 생활한 기간	1년 이하	(80)	8.8	20.0	10.0	15.0	23.8	11.3	3.8	7.5
	2~3년	(110)	16.4	18.2	12.7	13.6	14.5	8.2	10.0	6.4
	4~5년	(150)	13.3	16.7	13.3	18.0	20.7	5.3	6.0	6.7
	6~10년	(232)	12.5	19.4	14.2	17.2	18.5	5.6	5.2	7.3
	11년 이상	(225)	11.1	22.2	11.1	15.6	15.1	4.9	4.0	16.0

⑤ 개선사항

- 개선 및 건의사항은 총 103건으로 조사됨.
- '경제'에 대한 의견이 25건(2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거' 관련 의견이 22건 (21.4%), '안전'이 16건(15.5%) 순으로 언급 비율이 높음.
- '경제적 지원 (월세, 보증금, 교통비)', '지원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 홍보 강화', '1인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거주지 인근 안전관리', '도시락 배달 지원', 등이 내용이 많이 언급됨.

[Base : 건의사항 응답자, 단위 : 건]

구분		개선 및 건의사항	
내용	빈도	내용	빈도
건강	8	도시락 배달 지원	3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음	1
		개인마다 다 다른 이유들이라 개인의 마음가짐/건강이 더 중요할 듯	1
		만성으로 몸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지원	1
		식료품비 보조금 지급	1
		최소한의 균형식 제공이 가능한 [푸드 스탬프] 제도, [돌봄 서비스] 연계	1
안전	16	거주지 인근 안전관리	4
		취미로 운동할 수 있는 지원 및 안심 귀가	1
		가정에 CCTV 달아주기	1
		관악구는 너무 위험한 곳이 많아요	1
		관악구는 치안이 좋아 보이진 않아 개선을 요 함	1
		관악구에 골목 등 좁고 위험해 보이는 곳이 많고 밤도 아닌 저녁에도 인적이 드물고 무서울 때가 많음 뭔가 밝고 안전한 귀갓길이 되게 환경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음	1
		무엇보다 안전을 많이 중요시해주셨으면 좋겠음	1
		방범창 설치사업	1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다	1
		안전한 관악구로 이미지가 지켜졌으면 좋겠음	1
		안전장치 시설 지원	1
		요새 문지마 칼부림 같은 난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갓길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최근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	1		
사회적관계망	5	교류의 장이 다양하게 필요함	1
		남녀 짝지어주기 관련 커뮤니티 운영	1
		정보의 차이를 줄이고 1인 가구들의 모임이 많았으면 합니다	1
		커뮤니티 활성화	1
		한끼 같이 해결하며 네트워킹 형성하는 자리가 자주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1

[Base : 전체, 단위 : 건]

구분		개선 및 건의사항	
내용	빈도	내용	빈도
주거	22	1인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창문, 부엌 등 기타)	5
		임대주택 지원	2
		1인가구의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 월세에 쫓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쉴 공간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함	1
		가격에 비해 원룸들의 집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음	1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많이 필요함	1
		1인 가구의 더 나은 주거 형태와 안전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1
		방값이 더 싸면 좋을 듯 함	1
		실생활에 필요한 전등교체, 가구 이동 등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이 필요	1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1
		원룸 지정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빌라 검색 한 후에 지원이 많이 필요	1
		이사 도우미 서비스같이 현실적이고 직관적 도움 필요	1
		이사할 때 필요한 물품 및 지원서비스가 희망함. 여성 1인가구가 위급한 상황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임시 주거 및 보호 동행 정책 확대	1
		주거 지원 정책이 더 확보되었으면 좋겠어요	1
		다양한 주거 환경 개선	1
		주거 관련하여 부동산 사기가 많아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많아졌으면	1
취약한 지역 및 원룸이 많습니다. 조금 더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프로그램/교육 확대	14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노후관련 교육	1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다양한 정책이 있으면 좋을듯함	1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 홍보	1
		문화센터 등에 다양한 시간대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1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1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해주세요	1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및 공정한 선별 기준이 필요함	1
		운동프로그램 지원	1
		일자리제공 프로그램과 1인 가구 많은 지원	1
좋은 정책 및 프로그램 활성화	1		
퇴근하고 나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음	1		
경제	25	경제적 지원 (월세, 보증금, 교통비)	21
		보조금 확대 및 기초생활자 수급비용 확대	2
		공공일자리 확대 및 취업프로그램	1
		재무설계	1
홍보강화	13	지원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 홍보 강화	10
		카톡 채널 및 문자 신청경로 문의	3

* '없음', '모름/무응답' 제외



4장. FGI 결과

1 조사목적

- 관악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1인가구 지원사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 조사설계

- 조사대상
 - 관악구에 거주하는 20대~60대의 1인가구, 1인가구 정책을 실행하는 정책실행주체
- 조사방법
 - FGD : 연령대별로 그룹을 구성한 Focus Group Discussion
- 조사기간
 - 2023년 10월 31일(화) ~ 2022년 11월 2일(목)
- 조사기관
 - 주관 기관 : 관악구청
 - 수행 기관 : (주)마인더맵
- 유효표본
 - 총 4그룹 (총 참석자 16명)

3 조사내용

구분	세부 내용
1인가구 일반 현황	<p>독립거주 이유</p> <p>독립거주자 생활 자립 수준</p> <p>독립거주 생활 만족 수준</p> <p>독립거주 생활 장/단점</p>
건강	<p>식생활 중 집밥 취식 빈도 및 형태</p> <p>식생활 불편점</p> <p>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 평가</p> <p>신체적 건강 관리 및 질환</p> <p>신체적 건강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p> <p>마음 건강에 대한 주관 평가</p> <p>마음 건강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p>
주거	<p>관악구 주거 만족 수준 및 지속 거주 의향</p> <p>관악구 주택 시세 평가</p> <p>관악구 주거 환경 평가</p> <p>주거 안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p>
안전	<p>관악구 치안/안전 환경 평가</p> <p>관악구 치안/안전 인프라 평가</p> <p>안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p>
사회적 관계망	<p>사회적 교류에 대한 주관 평가</p> <p>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p>
경제	<p>지출 항목</p> <p>공공일자리 관심도</p> <p>경제 안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p>

4 응답자특성

응답자 Profile

그룹명	이름	성별	나이(만)	직업	거주지
20-30대	김*영	남성	36	회사원	봉천동
	안*리	여성	31	회사원	인현동
	하*식	남성	30	교사	신림동
	강*영	여성	28	회사원	낙성대동
40-50대	한*남	남성	53	자영업	신원동
	정*현	남성	43	회사원	조원동
	김*균	남성	41	회사원	보라매동
	김*순	여성	55	무직	난향동
60대	유*호	남성	61	공공근로직	행운동
	홍*순	여성	80	무직	난곡동
	서*자	여성	70	주부	은천동
	임*남	여성	62	프리랜서	청림동
전문가 그룹	유관기관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악구립중앙사회복지관) 담당자 및 전문가				

5 1인가구 대상 주요 의견수렴 결과

■ 건강 : 신체와 심리에 대한 건강 지원

- 건강한 식습관을 지속하기 어려운 주요한 이유가 비용, 시간, 요리역량 등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1인가구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위험요인은 연령에 기인하기보다 개인의 속성에 기인되어 발현되고 있다고 판단되며(가족의 해체, 실업 등), 이로 인하여 연령보다는 개인별 심리적 위험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전 연령의 1인가구에서 심리안정을 위한 정책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안전 : 범죄와 위기상황으로부터의 안전 지원

- 모든 연령 중 특히 청년층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의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전반적으로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연령에 따른 안전에 대한 정책수요는 개인적 니즈에 기인하나,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할 시 1인가구가 밀집하여 있는 지역 전반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1인가구 전반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주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 또한, 단순히 치안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치안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즉, 안심홈,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안심택배함, 안심지킴이집 등과 같은 정책이 관악구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주거 : 1인가구의 연령별 수요를 반영한 주거 지원

- 주거에 대해서는 주거공간 개선 및 확보를 위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었고, 전세사기 등의 주거관련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확산에 대한 높은 요구가 발생함.
- 서울시에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악구 내의 구민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남.

■ 경제 : 가구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 지원

- 1인가구로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남.
- 다만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경제지원은 정부 및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청년활동지원 센터를 통한 생활비 지원, 노년층의 연금, 취약계층 중심의 기초생활연금 등)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구 차원에서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 구 차원에서는 현금성 지원보다 연령별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 및 매칭해주는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경제적 효과가 파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인식함.

- 특히 구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구의 직접적 예산 투입이 아니라, 기업↔취업자 간의 관계형성을 통해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다만 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될 정도의 소득창출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으로 파악되며, 이에 적정 수준에서의 사회 및 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의 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관계 : 고립/고독의 탈출을 통한 관계자립 지원

-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공차원의 지원에 대한 정책수요는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다만 연령 및 개인의 성향에 따라 운영방식에 대한 수요는 다양하게 나타남.
- 즉, 중장년층에서는 느슨한 수준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수요가 높은 반면, 노년층에서는 긴밀한 수준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보다 잦은 횡수, 능동적 활동(공동의 목표실현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청년 및 중장년층에서는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은 회사생활을 통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존재하므로 상대적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지역에서 서울로 주거지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는 새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지원이 일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6 전문가그룹 주요 의견수렴 결과

■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현황

- 관악구 1인가구 지원사업을 복지관에서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1인가구 중장년, 장애인 대상 20~30명 정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에 있음.
- 지역사회 반찬가게, 약국, 지역 상점들 발굴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 성민복지관은 4개 동을 담당하고 있고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상 1인가구 비율이 높은 대학동을 담당하고 있음.
- 기존 주민들이 1인가구 지원 시설물, 기관들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팽배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중간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

■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체계 개선

- 1인가구 정책과 관련하여 유사한 목적 및 내용의 정책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인식 예산을 보다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별 목적성을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공의 목적에 맞게 예산 사용을 잘 해주는 곳은 복지관 같은 주체라고 판단되나 복지관은 단계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계 요인이 존재하므로, 연중 또는 연초에 시행 사업에 대한 안내, 공문 등이 협조가 필요함.

■ 관악구 1인가구 정책방향

- 1인가구는 연령에 따라서 정책적 니즈가 굉장히 상이함.
- 전반적인 청년층 1인가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임.
- 청년층, 중장년층, 시니어층으로 정책 수요를 나눠서 연령층별 정책 사각지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정책

- 청년 1인 고립가구는 대체로 문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 실행자 입장에서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청년 1인 고립가구를 발굴하기 어렵다는 점임으로 이러한 사항에 있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청년 1인 고립가구를 우선 지원하려고 한다면 파악부터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애초에 고립을 차단하자는 방향으로 정책수립 중인 상황으로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복지관 안내지를 드리는 형태를 추진하고 있음.
- 청년활동 고립 가구들의 가장 큰 니즈는 생활비로 파악됨, 정신적 고립이 함께 있는 주민으로 아산 사회복지재단 지원을 받음. 전문요원을 채용하고 외부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음.

■ 1인가구 중장년을 위한 정책

-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 대부분 별거 및 이혼으로 인하여 1인가구로 전환됨에 따라 심리적 위축으로 인하여 지인 또는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하여 1인가구 커뮤니티 모임, 심신의 건강 체크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관악구 지원 및 체계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장년층 남성은 지인 및 가족과의 단절로 인하여 인스턴트, 배달 음식이 대부분으로 양질의 식사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현재 만 60대 이상부터 경로식당 이용이 가능하여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의 사각지대가 나타남에 따라 중장년층에 대한 반찬나눔, 쿠킹 클래스 등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적극적인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지역 내 물리적·심리적 관계 형성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심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고민 및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상담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활용하여 중장년층의 외로움, 고립 극복이 이루어져야 함.

■ 1인가구 장애인을 위한 정책

- 1인가구 장애인 중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특성 요인(독립성향 강함, 자신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작용하여 관악구 내 커뮤니티 모임 및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저조함. 현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한 곳으로 모든 권역의 1인가구 장애인을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타 1인가구보다 사회적 고립, 공백 등이 높음에 따라 사회적 고립 예방사업, 가족돌봄 곤란, 권역별 장애인 이용 시설 편의성 제공(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 노년을 위한 정책

- 관악구 내 청년 교육 사업 시 수요조사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시에 시니어 대상으로도 수요조사를 이행하여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짐.
- 1인 노년 가구를 대상으로 공동체성 인식 제고와 관계망 형성이 중요함에 따라 다양한 공동체 모임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취미활동 및 여가 문화를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 고령 장애인 중증 유무 상태, 성격 및 성별에 따라서 관계망 형성에 차이가 나타남. 단 사회 관계망 형성에 소극적인 고립군의 경우 건강 관리 등을 통해 타인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돌보기 위한 의지가 높아 최소한의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회 제공,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적 약자 계층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역 복지시설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역할을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민간 기관 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노인 일자리 측면에서 65세 미만일 경우 근로 가능자임에 따라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이 없을 경우 대부분 일용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단기 계약으로 이행됨으로써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 시니어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관악구 1인가구 정책제언

- 현재 관악구 내 민·민, 민·관으로 이루어진 협력체계가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1인가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
- 1인가구 대상으로 하는 예산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짐.
- 구내 은둔 1인가구들을 대상으로 특성 및 정책 수요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지속적인 은둔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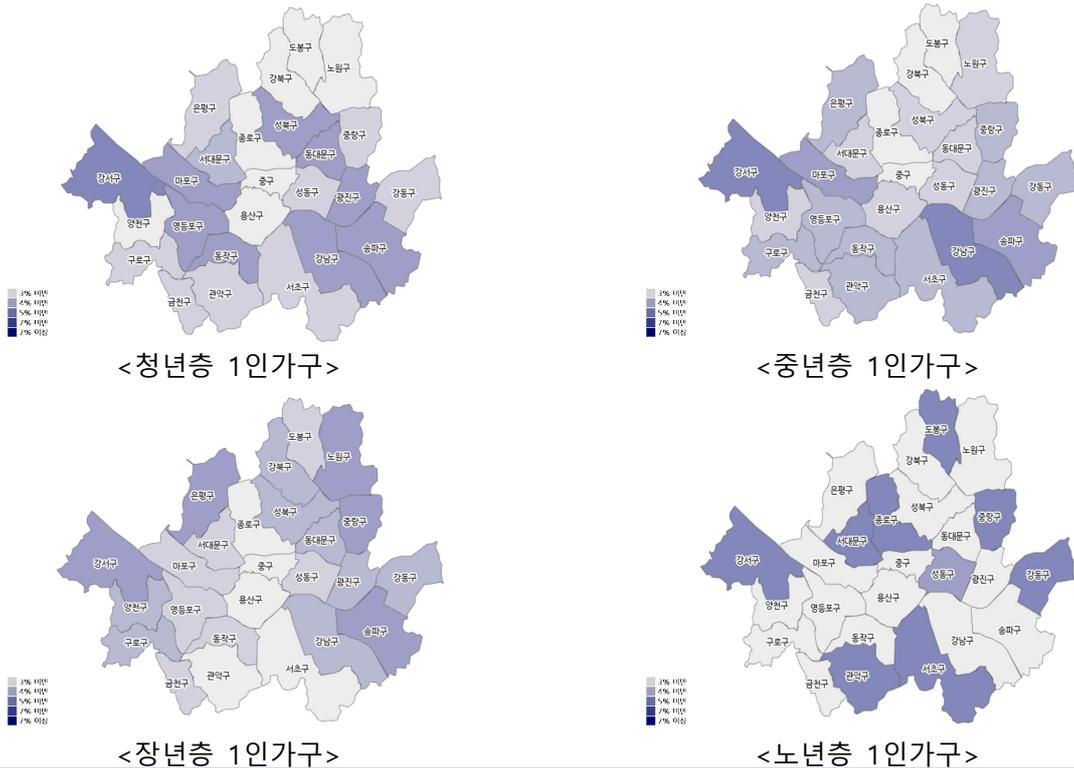
5장. 정책제언

1 1인가구 지원정책 운영현황

1) 1인가구 정책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 관악구 내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수립하되 1인가구를 장려·확대하기 위한 목적의 정책이 아니라 1인가구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함.
 - 저출산·고령화 대책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육아휴직, 아동수당, 다자녀 장학금 확대 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확대),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그린스마트 스쿨조성,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도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확대) 등 4대 추진전략 중심으로 78.9조원 투입(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 관악구에서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1인가구 정책지원 범주 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 1인가구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등 20세 이후 생애주기별 특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연령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 범위가 상이하므로 연령별 맞춤형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함.
 - 세대별 1인가구 현황을 위하여 5개 구간으로 범주화(natural break)한 결과, 관악구는 1인가구 중 청년의 비중이 높고, 노년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관악구 연령별 1인가구 현황



2) 1인가구 정책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서울시 본청을 비롯한 25개 자치구의 1인가구 지원 조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양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관악구에서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2021년 11월로 시행 및 제정하였으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10월로 시행 및 제정하였음.
- 이에 관악구에서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이에 기반한 정책마련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통해 1인가구 지원정책을 극대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1인가구 관련 조례현황

구분	1인가구	고독사	조례명
관악구	○	○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강남구	○	○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강동구	○	○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조례
강북구	○	○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강서구	○	○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구	○	○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구로구	○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금천구	○	○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노원구	○	○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봉구	○	○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동작구	○	○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마포구	○	○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서대문구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서초구	○	○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성북구	○	○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송파구	○	○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구	-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용산구	○	○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은평구	○	○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	○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	○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구	○	○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영역 설정

○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 조례」상 포함되어 있는 주요 조항 및 정책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1인가구 관련 조례 주요내용

구분	주요 조항	지원범위
관악구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 지원사업 3. 정보 공유 및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 지원 사업 5.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문화·체육·여가 생활 지원사업 7. 그 밖에 필요한 사업
강남구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9조(지원사업) 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 등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안정 지원사업 3.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경제적 안정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8. 그 밖에 필요한 사업
강동구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사업) 제6조(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1. 돌봄서비스, 비상벨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7. 그 밖에 필요한 사업
강북구	제4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이나 공유 부엌 등 주거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3.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4.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5. 의료 및 장례 지원사업 등 6.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7. 사회적 가독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8. 그 밖에 필요한 사업
강서구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실태조사) 제7조(지원사업)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필요한 사업
광진구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 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그 밖에 필요한 사업
구로구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1.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2.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 지원사업 3. 건강한 식생활 등 건강증진 지원사업 4. 주거·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표 계속]

구분	주요 조항	지원범위
금천구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사업)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주택(Share House) 등 주거 지원 사업 3.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등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가구 식품 레시피 개발 등 건강 지원 사업 5.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6.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노원구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사업)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2.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3.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4.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5. 의료 및 장례 지원 등 6. 1인가구 실태조사 7.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도봉구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건강 지원사업 및 식생활 지원사업 3.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4.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5.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7.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동대문구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및 식생활 지원사업 3.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동작구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2.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 3. 1인가구에 대한 질병, 돌봄, 응급상황 대처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4.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마포구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 3.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서대문구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시설 설치·운영) 제9조(협의회의 설치)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지원사업 3.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그 밖에 필요한 사업

[표 계속]

구분	주요 조항	지원범위
서초구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사업)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3. 공유 부역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 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성동구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3. 공유 부역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 지원사업 5.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7.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성북구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6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2. 1인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3. 1인가구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사업 4. 1인가구의 돌봄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5.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사업 6.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송파구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사업) 제6조(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여가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영등포구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시설 설치·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지원사업 3.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용산구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6조(지원사업) 제7조(시설의 설치·운영)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 예방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건강관리 지원사업 3.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4.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은평구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사업 3. 공유부역 등의 커뮤니티 지원사업 4. 1인가구 식품 레시피 개발 등 건강지원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7. 그 밖에 필요한 사업

[표 계속]

구분	주요 조항	지원범위
중로구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9조(지원사업) 제10조(1인가구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1.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 3.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4.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5.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6. 1인가구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시범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구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9조(지원사업) 제10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0조(홍보) 등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안정 지원사업 3. 소셜 다이닝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경제적 안정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8.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중랑구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6조(지원사업) 제7조(홍보) 등	1. 돌봄서비스, 공동현관 도어락, 안심홈세트(현관문보조키, 문열림센서, 휴대용 긴급비상벨)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5개의 모든 서울시 자치구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 및 정책지원 범위를 구성하고 있음.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관련 조례 주요내용

구분	주요 조항	지원범위
관악구	제6조 (예방계획의 수립) 제9조 (예방 및 지원사업)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1. 정신건강 상담 지원 2.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식료품, 생필품 등 제공을 통한 안부확인 사업 7.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필요한 사업
강남구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7조(실태조사)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계속]

구분	주요 조항	지원범위
강동구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8조(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6.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북구	제6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실태조사) 제9조(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강서구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7조(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3.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4. 방문간호서비스 5. 일자리 알선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8.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진구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제7조(실태조사) 제9조(지원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로구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7조(실태조사) 제9조(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표 계속]

구분	주요 조항	지원범위
금천구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 12.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13.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노원구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맞춤형 지원사업 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봉구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 사업) 제8조(실태조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2. 긴급 의료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10.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동대문구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8조(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표 계속]

구분	주요 조항	지원범위
동작구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7조(실태조사) 제9조(지원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일자리 알선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포구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8조(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대문구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초구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7조(실태조사)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10.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사업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동구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8조(지원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2. 건강 검진 등 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등 식품 지원 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서비스 10.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계속]

구분	주요 조항	지원범위
성북구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7조(실태조사)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송파구	제4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실태조사)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사물인터넷기술(IO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천구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실태조사)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사물인터넷기술(IO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등포구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지원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3.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설치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8.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용산구	제6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7조(실태조사) 제9조(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지원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방문간호서비스 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표 계속]

구분	주요 조항	지원범위
은평구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로구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조사) 제7조(지원 사업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7.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無緣故)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구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긴급의료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및 응급 구급용품 지원 4.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커뮤니티) 지원사업 6. 문화여가일자리 지원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8.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중랑구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4) 타 자치구 및 수도권 지자체 1인가구 지원사업 사례

서울

지자체명	사업명	분야	사업내용	년도
광진구	1인가구 맞춤형 여름나기 프로그램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특강 마련 부동산용어해설, 기본세법, 안전한투자방법등 탕수육,감바스,쿠키,파스타 등 요리특강 마련 1인가구의 경제관리를 위해 주요경제지표의이해, 투자이기본원리, 주식투자활용법 등을 알려주는 주식 특강시행 	2022
동대문구	1인가구 맞춤 지원 사업 '마주봄'	주거/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이의 러브하우스'(거주공간 해충방제, 욕실클리닝 지원) '디지털리터러시교육'(스마트폰활용, SNS활동 직접해보기,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등) 동네친구(3인 이상으로 그룹매칭을 유도하여 자유주제활동 지원)의 3가지프로그램으로 구성 	2023
성동구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관리 코디네이터의 판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 생활불편신속처리: 형광등, 콘센트 등 소모품교체 및 간단수리(실비지원) 홈케어서비스: 방충망, 창호, 싱크대 등 소규모 집수리(최대50만원) -클린케어서비스: 청소, 방역 및 정리수납 등(최대 100만원) 	2023
강북구	강북구 1인가구 청년지원 사업 청년심터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상담 지원을 통한 자기탐색 문화여가지원을통한다양한활동경험 직업능력향상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 	2023
도봉구	우리동네 휴게소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가구 집단 프로그램: 공예, 시 창작 활동 등 예술,문화 프로그램 참여 찾아가는복지상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정보 제공,복지서비스 관련 상담지원 1인가구자조모임: 교육, 취미활동을 통한 1인가구소모임운영 및 지원 	2023
노원구	노원+청년+1인가구 일삶공작단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1인가구가 흔히 겪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강의 주제로 선정해 매월 1~2회의 특강을 진행 주제별 전문강사를 섭외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해결책을 제공 	2022
서대문구	청년 1인가구 건강성 증진 사업 '1로 모여'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리 교육 및 소셜다이닝 활동, 신체 운동 교육, 상담지원 등 	2022
강서구	1인가구 안심인프라 구축(안전)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안심구역 내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하여 안전한 귀갓길 확보 강서경찰서와 협업하여 지역 및 물품선정 	2022
금천구	금천형 밀반찬 지원 바우처 사업 (다함께 찬찬찬)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우처 카드로 가맹되어 있는 관내 반찬가게 21개소에서 월 4만원 한도 내 반찬을 직접 구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 돌봄대상자를 고려하여 동별 배정 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순으로 선정 	2023
	1인가구 김장하는날 '배추김치사랑결렸네'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가구가 혼자 만들기 어려운 김장김치 담그는 법을 함께 배우기 담근김치(10kg)중 일부(5kg)를 연말을 맞아 지역내 어려운 저소득가정에 전달 	2023
강남구	1인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와 협력을 통한 1인가구 간편 주거환경 개선지원 저소득층 1인가구 집수리비용 일부지원 	2023

[표 계속]

지자체명	사업명	분야	사업내용	년도
송파구	송파청년 1인가구 특강 '혼자서도 하하호호'	경제	· 청년재테크, 소소한 집수리, 정리수납, 취미특강 (향수만들기, 펄스널컬러)등 회차별 진행	2023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 코인세탁소	주거	· 저소득층 1인가구의 빨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간당 한팀씩 예약제 운영)	2023
종로구	똑딱똑딱 종로싱글홈케어	주거	· 소모품 교체 및 부분 보수 등 주택 소규모 고장 수리비 15만원 한도 내 지원(한도 초과분 본인부담)	2023
중구	중구 1인가구 흥당무마켓	관계	· 플프마켓: 플리마켓과 프리마켓을 합쳐서 구성 · 체험부스: 업사이클링 체험 · 버스킹: 악기 연주 및 공연 행사	2023

경기

지자체명	사업명	분야	사업내용	년도
경기도청	건강돌봄 프로그램 운영	건강	·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돌봄 프로그램 운영 · 1인가구의활동성증진및신체적,정신적삶의질향상을위해연령대별맞춤형건강관리프로그램을지원	2023
	1인가구 공동체 마을 공동 부엌	건강	· '혼밥' 개선 및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위한 1인가구 공동체 지원 · 지역 내 조리시설 등과 연계한 공유부엌,요리교실, 식사프로그램 등 지원 · 식사 및 공동체 여가문화 등 연계해 지원	2023
성남시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	경제	·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과 이차지원 · 대출추천: 5천만원(임차보증금의90%)이내, 2년만기상환(2회연장,최장6년) · 이차보전금리:연3%이내	2021
	1인 가구지원 요리강좌	건강	· 생활요리(야간): 다양한 생활요리 · 건강한집밥요리: 같이 먹어도 혼자 먹어도 건강한집밥 · 건강만점도시락요리(야간): 직장인을 위한 건강한 도시락만들기	2021
화성시	돈거동락	건강	· 1인 가구 맞춤형 재무, 경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1인 가구 재무 설계 강화 및 자기 돌봄 능력향상	2023
평택시	청년 1인가구 이사비용 감면 사업	경제	· 전 월세 임차계약 시 법정 중개보수로 20% 감면 ·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제공	2023
동두천시	2023년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	문화	· 관내 1인가구 대상으로 참여자의 개인적인 취미생활 공유를 통해 인간관계 단절을 예방하고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목표로 추진 · 매주 목요일마다 스크린야구, 도자기활동, 배드민턴, 향수만들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10회기 중 5회기를 운영	2023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관계/ 문화	·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관심 분야별 동아리 활동을 지원 · MBTI 및 스트레스 관리교육, 원예 및 공예활동, 숲체험활동 등 지원 · 인바디검사, 다양한 신체 및 마음건강활동을 지원 · 삼계탕만들기, 퍼스널컬러진단, 애견간식만들기, 김장김치담기,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등의 다양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2023

[표 계속]

지자체명	사업명	분야	사업내용	년도
과천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120% 미만 돌봄 취약가구에 대한 반려동물 돌봄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 · 1마리당 최대20만원(자부담20%포함)내에서 지원 · 1인가구,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은 우선순위로선정 	2022
구리시	1인가구지원사업 '집다운 집'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기로 진행 · 공간의 재구성(1인가구인테리어, 가구배치, 정리정돈 등) · 내집에 맞는 소가구 만들기(스툴, 책상, 서랍장) · 자조모임 등으로 구성 	2023
오산시	'오색빛 복지등대'사업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추진단 네트워크 구성 · 원룸밀집지역 1인가구 현황파악 · 민.관복지거점 '오색빛복지 등대플랫폼' 마련 ·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지원 및 관계망형성 프로그램제공 	2022
의왕시	1인 가구 건강한 밥상 요리교실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를 위한 간편한 한 그릇 음식 만들기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100만원) 	2023
용인시	슬기로운 제태그 생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 거주, 용인시 소재 직장인 20대-30대 1인가구 대상으로 하는 가계경제 강의 진행 	2022
연천군	'중장년 수다살롱'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1인가구가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적관계망 형성 · 15명의 대상자와 함께 문화체험·여행·트레킹살롱 3개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 	2023
광주시	2023년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1인 가구 청년 이사지원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비 1인 최대 50만원 한도(생애 1회) · 지원항목: 이사비실비지원, 지역화폐충전 	2023
의정부시	재무 경제교육 '해피머니'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의 재무설계 강화 및 자기돌봄 능력 향상을 위해 신설 · 5회기 동안 낯설고 어려운 경제 용어와 평소 궁금했던 재무에 관한 내용 강의 ·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재무설계사와 무료1:1 재무상담 연계 	2023

인천

지자체명	사업명	분야	사업내용	년도
동구	1인 가구 자살 예방사업 '1로 모여봐요'	건강(마음)	· 사례관리 서비스, 심층종합심리검사 및 전문심리상담비용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2023
연수구	1인가구 지원사업 '혼자의 품격'	건강/문화	· [쿠킹클래스] 집밥 '한끼를 부탁해', 손님맞이 '밥 잘하는 남자', '건강한 계절밥상' · [전통주활동] 나만의전통주만들기 · [목공활동] 나만의도마만들기	2021
계양구	1인 가구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 『나, 지키미』	경제/안전	·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자립을 향한 발판을 마련 · 재무관리교육, 노후준비교육, 전세사기·금융사기 예방교육, 재난상황대응교육, 심리안전교육 등을 통해 1인가구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관한 대비방안을 내용으로 함	2023
	청년 1인 가구 프로젝트 '따로 또 같이'	관계	· 자아존중감 향상 교육 · 의사소통향상교육 · 모임활동(취미모임) · 참여자간생일잔치 · 의식주관련실습(요리,정리수납,부동산,재무교육등)	2021
강화군	마음치유 심리상담을 위한 '플라워아트 프로그램'	건강(마음)	· 1인 가구와 전문기관을 연계해 개인 및 집단상담, 아로마테라피, 플라워아트 등을 진행 · 건강돌봄, 식생활개선, 안심케어, 긴급돌봄등서비스를 제공해 1인가구의 자기성장 및 역량강화,사회적관계망지원, 실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2023
중구	1인 가구를 위한 '공유냉장고' 사업	건강	· 음식나눔을 통한 1인가구의 소통 및 관계 강화 · 식재료구매부담완화 · 잉여 먹거리 낭비해소 등을 도모	2023

2 관악구 1인가구 특성도출

1) 서울시 자치구별·연령별 1인가구 현황

- 서울시 내 자치구별·연령별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세 미만의 1인가구는 성북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청년층(20~30대) 및 중장년층(40~50대) 1인가구는 관악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노인층(60대 이상)의 1인가구는 강서구 및 노원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서울시 자치구별·연령별 1인가구 현황

순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1위	성북	1,788명	관악	58,480명	관악	37,959명	관악	14,503명
2위	동대문	1,368명	동작	25,334명	강서	27,100명	강서	12,635명
3위	동작	1,074명	동대문	24,020명	송파	23,392명	강남	12,556명
4위	관악	987명	강서	23,690명	강남	21,704명	송파	12,488명
5위	서대문구	857명	광진	22,502명	영등포	21,214명	마포	9,191명
6위	노원	806명	성북	22,133명	마포	19,101명	영등포	8,843명
7위	성동	665명	마포	22,030명	광진	17,115명	은평	8,769명
8위	마포	609명	영등포	20,128명	동작	16,576명	중랑	8,189명
9위	종로	503명	서대문	18,806명	구로	13,558명	강동	8,128명
10위	광진	475명	송파	16,183명	은평	13,434명	광진	7,992명
순위	50대		60대		70대		80대	
1위	관악	11,362명	강서	13,271명	노원	8,950명	노원	5,998명
2위	중랑	10,542명	중랑	11,839명	강서	8,359명	강서	4,901명
3위	강서	10,484명	노원	11,563명	은평	7,346명	은평	4,351명
4위	송파	9,577명	관악	11,035명	관악	7,260명	성북	4,075명
5위	은평	8,691명	은평	10,523명	중랑	6,847명	관악	3,847명
6위	노원	8,255명	송파	10,434명	강북	6,758명	강북	3,725명
7위	강동	8,218명	강동	10,162명	송파	6,638명	도봉	3,659명
8위	강북	7,974명	강북	9,468명	성북	5,890명	중랑	3,648명
9위	강남	7,928명	양천	8,609명	강동	5,885명	송파	3,488명
10위	영등포	7,753명	구로	8,469명	양천	5,744명	동대문	3,3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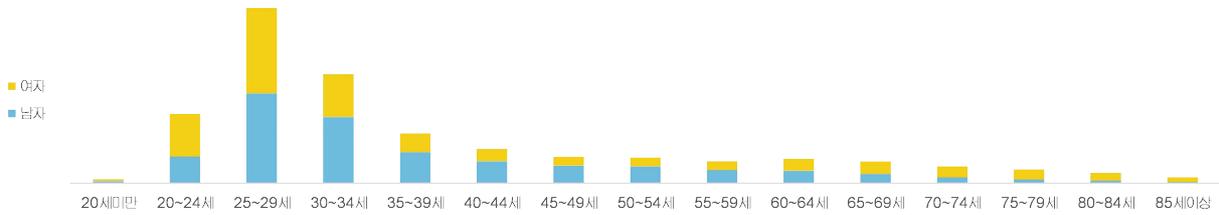
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1인가구(연령별) 통계, 2023

※본 자료의 경우 실태조사 설계를 위해 관악구에서 제공한 2023년 11월 인구통계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관악구의 연령·성별 1인가구 현황

- 연령별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인가구 중 청년층(20세~39세)이 66.31%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연령별·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중장년층(40대~50대)은 동일 연령대 1인가구 중 남성의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노년층(60대 이상)은 반대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특성이 나타남.

관악구의 연령·성별 1인가구현황



구분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계 ¹⁾	987명	58,480명	37,959명	14,503명	11,362명	11,035명	7,260명	3,847명	144,446명
	0.68%	40.49%	26.28%	10.04%	7.87%	7.64%	5.03%	2.66%	100.00%
남성 ²⁾	461명	27,855명	23,214명	9,407명	7,145명	5,111명	2,232명	840명	75,804명
	46.71%	47.63%	61.16%	64.86%	62.89%	46.32%	30.74%	21.84%	52.48%
여성 ²⁾	526명	30,625명	14,745명	5,096명	4,217명	5,924명	5,028명	3,007명	68,642명
	53.29%	52.37%	38.84%	35.14%	37.11%	53.68%	69.26%	78.16%	47.52%

1)관악구 전체 1인가구중 해당연령 인구의 비율 2)연령 내 성별비율

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1인가구(연령별) 통계, 2023

3) 관악구 1인가구 특성구분

- 서울연구원 등 정책연구기관에서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성을 기반으로 한 대상의 세분화를 제안함.
-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는 연령, 경제적 수준, 고립수준을 기준으로 화이트 싱글, 골드싱글, 노마딕싱글, 불안한 독신자, 실버싱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악구에서도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책타겟별 필요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관악구의 1인가구 특성구분

구분	세부특성	2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특성		
										경제	우울	고립
일반 1인가구	Cluster 1 [화이트 싱글]		■	■	■					보통	낮음	낮음
	Cluster 2 [골드 싱글]		■	■	■					높음	낮음	낮음
고립 1인가구	Cluster 3 [노마딕싱글]		■	■	■					낮음	높음	높음
	Cluster 4 [불안한 독신자]				■	■	■			낮음	높음	높음
	Cluster 5 [실버싱글]						■	■		낮음	높음	높음

4) 관악구 1인가구 정책설계 기본방향

- 관악구의 1인가구 특성별 정책대상을 세분화하고, 정책대상별 특성분석에 기반한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정책지원체계를 견고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나아가 포용적 정책지원을 위하여 1인·고립가구의 발굴→정책접근→정책지원→정책지원효과 모니터링 등의 체계를 갖추므로써 전반적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기반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악구 1인가구 정책설계 기본방향

관악구 1인가구 지원정책 설계의 기본방향		기대효과
방향 1 정책대상 세분화	• 1인가구의 연령, 경제적 수준, 고립수준(이에 따른 우울감 등)의 분포가 넓으므로 연령과 고립도 등을 기준으로 정책대상을 세분화 함	• 정책대상별 필요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책을 최소화할 수 있음 (예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방향 2 정책대상 특성기반 정책설계	• 정책대상별 실태조사 분석, FGI 분석 등을 기반으로 정책수요의 집중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정책을 설계함	
방향 3 정책별 지원방식 세분화 및 구체화	• 주거, 경제, 안전, 건강(신체 및 마음건강), 사회적 관계망 등 정책분야별 지원대상 및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중복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정책지원 대상 및 방식, 지원주체(관악구청 내 조직)를 명확화하여 유사·중복성을 배제함
방향 4 포용적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강화	• 고립도에 따른 정책대상 발굴 및 정책접근성 제고, 관악구 1인가구 현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밀착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등 전반적 관리체계 고도화	• 고립으로 인한 지원대상에서의 누락을 최소화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체계화 가능

3 정책대상별 정책제언

1) 정책대상 세분화 및 대상별 정의

- 연령과 고립수준을 기준으로 정책대상은 크게 6개의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고립도가 낮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심리건강적 측면에서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므로 복지정책의 관점에서는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관악구 거주민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고립도가 높은 집단은 일상생활 및 건강·경제적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정책대상 세분화 및 대상별 정의



구분		세부 특성
청년	낮은 고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취직 등을 목적으로 가족의 지원을 기반으로 1인가구의 형태로 거주하거나, 안정적 직업을 보유하고 있는 1인가구 · 소비를 리딩하는 주체로 오늘날 시장(Market)에서 주목하는 주류집단
	높은 고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가·고시촌을 중심으로 거주 · 직업이 불안정한 블루칼라 종사자, 청년실업자 · 다양한 이유로 니트(NEET)측으로 분류되는 청년층
중장년	낮은 고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직업을 보유한 1인가구로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문제 적음 · 직업, 경제성 등을 기반으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크지 않음
	높은 고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러기가족, 이혼율의 상승, 기타 경제적 이유로 해체된 가족의 결과로서 발생한 1인가구 · 직업안전성 등이 높지 않아 경제적 문제가 병행되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1인가구
노년	낮은 고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거주형태는 1인가구이나 가족(자녀 등)과의 교류 등이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1인가구
	높은 고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으로 사회적·정책적 보호의 대상 · 연금 외 수급으로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

2) 가장 시급한 1인가구 지원정책 순위 (성별,연령별)

- 시급한 지원정책 1순위로 꼽은 분야는 남,여 모두 크게 차이는 없었고 가장 높게 나타난 '신체 건강 증진' 분야가 남성보다 여성의 수요가 더 높게 조사되었음.

1순위		사례수 (명)	신체 건강증진	마음 건강증진	안전	여가 프로그램	1인 가구 소모임 커뮤니티 활성화	주거	경제	1인 가구 인식개선 캠페인
전체		(423)	28.6	14.4	18.7	6.6	8.7	16.1	6.4	0.5
성별	남성	(211)	26.1	16.6	18.5	7.6	8.1	17.1	6.2	0.0
	여성	(212)	31.1	12.3	18.9	5.7	9.4	15.1	6.6	0.9

※ 신체 건강 증진(건강 먹거리, 운동처방)
 마음 건강 증진(심리상담, 우울감·스트레스 관리)
 안전(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안심 귀가 도우미)
 여가 프로그램(예체능 취미활동, 관광, 체험활동 등)

1인가구 소모임·커뮤니티 활성화
 주거(주거상태 개선, 부동산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경제(다양한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교육 확대)

- 청년층 : '주거' 23.9%, '안전' 23.2% 순으로 수요가 높게 나타남, '신체 건강증진' 수요는 14.5%로 다른 연령층 대비 낮게 나타남.
- 중장년층 : '신체 건강증진' 27.9%, '안전' 22.1% 순으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 수요가 타 연령층 대비 낮은 반면, '1인 가구 소모임 및 커뮤니티 활성화' 수요는 높게 나타남.
- 노년층 : '신체 건강증진' 42.8%로 다른 연령층 대비 수요가 매우 높았고 다음으로 '주거' 14.5% 순으로 조사되었음.

1순위		사례수 (명)	신체 건강증진	마음 건강증진	안전	여가 프로그램	1인 가구 소모임 커뮤니티 활성화	주거	경제	1인 가구 인식개선 캠페인
전체		(423)	28.6	14.4	18.7	6.6	8.7	16.1	6.4	0.5
연령	청년층	(138)	14.5	15.9	23.2	4.3	9.4	23.9	8.0	0.7
	중장년층	(140)	27.9	17.1	22.1	7.9	11.4	10.0	3.6	0.0
	노년층	(145)	42.8	10.3	11.0	7.6	5.5	14.5	7.6	0.7

※ 신체 건강 증진(건강 먹거리, 운동처방)
 마음 건강 증진(심리상담, 우울감·스트레스 관리)
 안전(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안심 귀가 도우미)
 여가 프로그램(예체능 취미활동, 관광, 체험활동 등)

1인가구 소모임·커뮤니티 활성화
 주거(주거상태 개선, 부동산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경제(다양한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교육 확대)

3) 청년층에 대한 정책 설계방향

- 청년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립도가 높은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설계 및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고립도가 낮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거주여건 및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고립도가 높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발굴→지원분야도출→정책지원→사회화 등의 모든 주기의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청년층에 대한 정책 설계방향

구분		세부 특성	청년층 지원정책의 핵심방향
낮은 고립도	실태 조사	· 본인이 주거하는 지역 또는 거주지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주변 환경개선 중심의 정책수요 발생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방향 1 고립도가 높은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설계 및 지원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방향 2 고립도가 낮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거주여건 및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정책지원 강화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방향 3 고립도가 높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발굴→지원분야 도출→정책지원→사회화 등의 전주기 지원체계 고도화 </div>
	FGI	· 고립도가 낮은 1인가구 청년에 대한 지원은 단순 여가지원 수준으로 정책효과가 특정 소수에 집중되며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인식	
	종합	· 청년층 1인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등, CCTV 등의 주거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중심 정책설계 필요(여가지원은 개인의 영역으로 환원)	
높은 고립도	실태 조사	· 안전한 거주공간 확보를 위한 금전적 지원 중심의 정책수요 발생	
	FGI	· 니트족 등 고립된 청년층은 타 연령층보다 발굴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정책대상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 필요	
	종합	· 고립청년의 발굴→필요지원 분야발굴→정책지원 및 사회로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의 고도화 방안 마련	

분야별 정책 수요

구분	정책수요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 주택 구입, 전월세 자금 대출지원 55.1% · 경제 :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 23.9% · 안전 : 주택 주변환경 개선 (주택 외부의 외진 곳, 골목길에 가로등, CCTV 증설) 54.3% · 신체건강 :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36.2% · 마음건강 : 마음건강 힐링 프로그램 31.2% · 사회적관계망: 활동프로그램 30.4%

관악구에서 추진중인 사업중 확대 및 강화해야할 사업 설문 결과

구분	정책수요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및 일자리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39.9% · 안전 :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설치 25.4% · 건강 및 돌봄 : 2030 청년 마음 안아주기 39.9% · 사회적관계망: 관악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46.4%

3)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설계 방향

-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고립수준과 무관하게 전반적인 식문화(신체)·우울(마음) 등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및 노년층 중심의 정책지원으로 인한 중장년층의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특히 고립도가 높은 중장년층 중심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문제해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모색해야 함.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 설계방향

구분	세부 특성	중장년층 지원정책의 핵심방향
낮은 고립도	실태 조사	방향 1 중장년층 1인가구 전반에 대하여 식문화(신체)·우울(마음) 등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원체계 고도화
	FGI	
	종합	
높은 고립도	실태 조사	방향 2 고립도가 높은 중장년층 중심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문제해결 기회 제공
	FGI	
	종합	
		방향 3 청년 및 노년층 중심의 정책지원으로 인한 중장년층의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분야별 정책 수요

구분	정책수요
중장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 주택 구입, 전월세 자금 대출지원 43.6% · 경제 :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 30.0% · 안전 : 주택 주변환경 개선 (주택 외부의 외진 곳, 골목길에 가로등, CCTV 증설) 47.1% · 신체건강 : 균형잡힌 영양섭취 먹거리 환경 조성 38.6% · 마음건강 : 개인·집단 맞춤 심리 상담서비스 36.4% · 사회적관계망: 소모임 지원 32.9%

관악구에서 추진중인 사업중 확대 및 강화해야할 사업 설문 결과

구분	정책수요
중장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및 일자리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54.3% · 안전 :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설치 38.6% · 건강 및 돌봄 : 돌봄 SOS 서비스 지원 확대 30.0% · 사회적관계망: 관악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42.1%

4) 노년층에 대한 정책설계 방향

- 노년층에 대해서는 고립수준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견고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중심 정책홍보로 노년층의 접근성이 저하되므로 노년층 맞춤형 홍보채널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립도가 높은 노년층 중심으로 건강, 의료급여, 주택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노년층에 대한 정책 설계방향

구분		세부 특성	노년층 지원정책의 핵심방향
낮은 고립도	실태 조사	· 노년층은 전반적인 고층의 체감도가 높고 문화, 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대한 요구와 1인 생활 주거 시 주택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	방향 1 노년층 1인가구 전반에 대하여 견고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원정책 고도화
	FGI	·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나 긴밀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 필요 · 관악구에서 추진하던 노년층 모임지원 사업의 예산축소에 따라 회수를 제한함에 따른 불만 증대	
	종합	· 정기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식의 사회적 관계망 지원정책의 강화 필요	
높은 고립도	실태 조사	· 상동	방향 2 의료급여, 수급 등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전달체계 개선
	FGI	·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며, 별도로 경제적 활동을 할 경우 수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일자리)의욕이 낮음 · 의료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다각적인 어려움을 느껴 구 차원의 의료지원 방안 또는 의료지원 절차 간소화에 대한 높은 요구 발생	
	종합	· 직접적 일자리 제공보다는 의료급여, 수급 등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전달체계 개선 필요	
			방향 3 온라인 중심 정책홍보로 노년층의 접근성이 저하되므로 노년층 맞춤형 정보홍보채널 강화

분야별 정책 수요

구분	정책수요
노년층	· 주거 : 주택 개보수 지원 38.6% · 경제 :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 제공 28.3% · 안전 : 주택 주변환경 개선 33.8% · 신체건강 : 균형잡힌 영양섭취 먹거리 환경 조성 46.9% · 마음건강 : 외로움 돌봄체계 구축(안부확인) 37.9% · 사회적관계망: 소모임 지원 35.9%

관악구에서 추진중인 사업중 확대 및 강화해야할 사업 설문 결과

구분	정책수요
노년층	· 주거 및 일자리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64.1% · 안전 :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설치 54.5% · 건강 및 돌봄 : 돌봄 SOS 서비스 지원 확대 40.0% · 사회적관계망: 관악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54.5%

4 지역별 정책제언

1) 가장 시급한 1인가구 지원정책 순위 (지역별)

- 북부권 : 신체 건강증진 25.4%, 주거 24.6% 순으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동부권 : 안전 27.7%, 신체 건강증진 21.8% 순으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남부권 : 신체 건강증진 31.1%, 마음 건강증진 21.4% 순으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서부권 : 신체 건강증진이 36.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안전 24.8% 순으로 수요가 조사됨.

1순위	사례수 (명)	신체 건강증진	마음 건강증진	안전	여가 프로그램	1인 가구 소모임 커뮤니티 활성화	주거	경제	1인 가구 인식개선 캠페인	
전체	(423)	28.6	14.4	18.7	6.6	8.7	16.1	6.4	0.5	
지역	북부권	(118)	25.4	11.0	13.6	5.9	11.9	24.6	5.9	1.7
	동부권	(101)	21.8	16.8	27.7	1.0	13.9	13.9	5.0	0.0
	남부권	(103)	31.1	21.4	9.7	7.8	2.9	15.5	11.7	0.0
	서부권	(101)	36.6	8.9	24.8	11.9	5.9	8.9	3.0	0.0

※ 신체 건강 증진(건강 먹거리, 운동처방)
 마음 건강 증진(심리상담, 우울감·스트레스 관리)
 안전(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안심 귀가 도우미)
 여가 프로그램(예체능 취미활동, 관광, 체험활동 등)

1인가구 소모임·커뮤니티 활성화
 주거(주거상태 개선, 부동산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경제(다양한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교육 확대)

2) 북부권(신림, 보라매, 은천, 중앙, 청룡동)

- 각 분야별 정책 수요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부권의 경우 다음 항목들의 수요가 높게 조사되었는데 주거항목에서 '주택구입,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수요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남.

북부권에 대한 분야별 정책 수요

구분	정책수요
북부권 (신림, 보라매, 은천, 중앙, 청룡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 주택 구입,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 52.5% · 경제 : 사회보장제도 개선 29.7% · 안전 : 주택 주변환경 개선 39.0% · 신체건강 : 균형잡힌 영양섭취, 생활체육 프로그램 각 27.1% · 마음건강 : 외로움 돌봄체계구축 25.4% · 사회적관계망: 소모임 지원 31.4%

3) 동부권(성현, 청림, 행운, 낙성대, 인현, 남현동)

- 동부권역에서는 다음 항목들의 수요가 높게 조사되었고 특히, 안전에 대한 정책수요 중 '주택 주변 환경 개선'과, 경제분야에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수요가 다소 높게 조사되었음.

동부권에 대한 분야별 정책 수요

구분	정책수요
동부권 (성현, 청림, 행운, 낙성대, 인현, 남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 주택 개보수, 주택 구입, 전월세각 31.7% · 경제 :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 38.6% · 안전 : 주택 주변환경 개선 42.6% · 신체건강 : 균형잡힌 영양 섭취 먹거리 환경 조성 29.7% · 마음건강 : 개인, 집단 맞춤 심리 상담서비스 32.7% · 사회적관계망: 커뮤니티 공간 18.8%

4) 남부권(서원, 서림, 신원, 대학, 삼성동)

- 남부권역에서는 안전에 대한 정책수요 중 '주택 주변환경 개선'과, 신체건강 분야에 '균형잡힌 영양 섭취 먹거리 환경조성'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남.

남부권에 대한 분야별 정책 수요

구분	정책수요
남부권 (서원, 서림, 신원, 대학, 삼성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 주택 구입,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 38.8% · 경제 :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 제공 48.5% · 안전 : 주택 주변환경 개선 52.4% · 신체건강 : 균형잡힌 영양 섭취 먹거리 환경 조성 48.5% · 마음건강 : 마음건강 힐링프로그램 27.2% · 사회적관계망: 소모임 지원 27.2%

5) 서부권(조원, 신사, 미성, 난곡, 난향동)

- 서부권역에서는 모든 항목의 정책 수요가 비교적 고른 수치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는데, 주거의 경우 '주택구입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 안전에 대한 정책수요에서는 '주택 주변환경 개선' 마음 건강 에서는 '개인,집단 맞춤 심리 상담 서비스' 수요가 높게 나타남.

서부권에 대한 분야별 정책 수요

구분	정책수요
서부권 (조원, 신사, 미성, 난곡, 난향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 주택 구입,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 46.5% · 경제 : 사회보장제도 개선 35.8% · 안전 : 주택 주변환경 개선 46.5% · 신체건강 : 균형잡힌 영양 섭취 먹거리 환경 조성 36.6% · 마음건강 : 개인, 집단 맞춤 심리 상담 서비스 42.6% · 사회적관계망: 소모임 지원 40.6%

5 영역별 정책제언

1) 건강 : 신체와 심리에 대한 건강 지원

■ (신체) 1인가구 대상 식사방법 및 영양섭취를 고려한 건강한 식문화지원 정책 검토

- 1인가구의 건강이 취약해지는 주요한 원인으로 불규칙한 식사습관 및 불균형한 영양섭취 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및 확장이 필요함.
-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우 '배달음식', '간편식' 비중이 높았으나, 중장년층, 노년층의 경우 '재료를 사서 직접요리', '반찬가게 이용 등' 빈도가 높았는데 건강한 식습관을 지속하기 어려운 주요한 이유가 비용, 시간, 요리역량 등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식문화를 통한 건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균형 잡힌 영양섭취 및 먹거리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 수요도는 관악구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아 관련된 정책개발 및 타지자체 정책에 대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년층 이상을 타겟으로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찬 및 건강음료 지원' 사업과 마포구에서 시행중인 '포리네 건강반찬' (1인가구 대상으로 반찬을 소분하여 배부) 같은 반찬 나눔 사업등을 검토하여 식생활개선을 위한 사업이 실시 될 경우 높은 호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마음) 1인가구 중 약 5% 수준으로 파악되는 심리적 고위험군에대한 집중지원 필요

-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외로움을 느끼는 가구의 비중은 40.9% 수준, 주 1회 이상 자살충동을 느끼는 가구의 비중은 5.0% 수준으로 나타나 1인가구 중 심리적 고위험군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1인가구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위험요인은 연령별 차이를 보이고 개인의 속성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위험단계별로 정책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맞춤형 심리안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속성 있는 심층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관악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음건강 힐링 프로그램'의 수요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마음건강의 경우 청년층의 정책 수요는 '2030 청년 마음 안아주기 사업의 수요'가 높고, 중장년과 노년층의 경우 '돌봄 SOS 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아 연령별로 선호하는 사업의 수요가 명확하게 차이를 보이는 만큼 연령별 세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함

2) 안전 : 범죄와 위기상황으로부터의 안전지원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요인에 대한 총체적 지원 필요

- 주거지 안전성을 확보함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연령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모든 연령층에서 안전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의 주거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 주변환경 개선 (주택 외부의 외진 곳, 골목길에 가로등, CCTV 증설 사업)'의 수요가 높으므로 관악구에서 1인가구 청년층 비중이 높은 '신림동', '대학동'등에 우선적으로 시행 및 확대하여 수요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음.
- 그 외 지역도 1인 가구가 밀집하여 있는 지역 전반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악구 전반의 치안 및 범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설계를 요함.

■ 안심홈, 범죄예방시설 등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1인가구가 밀집하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되, 관악구의 정주여건 및 범죄예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안심홈,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안심택배함, 안심지킴이집 등 이미 관악구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책 등이 많이 있는 관계로 지원사업 인지도 및 이용률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이용방법, 시설물 설치 위치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1인가구가 느끼는 체감 안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주거 : 1인가구의 연령별 수요를 반영한 주거 지원

■ 1인가구 주거 트렌드 및 수요를 반영한 주거 지원정책 기획필요

- 주거측면의 정책적 수요는 1인가구의 성별·생애주기(연령)별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대상별 주거 취약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지원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관악구 간 정책의 중복성을 배제하여 서울시 정책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화된 정책개발이 요구됨.

■ 주거비 및 공간 등의 직접지원부터 정보제공 등 간접지원을 포괄하는 정책 설계

-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주택구입 /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등 현물적 지원), 관련 정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점이 결과로 도출되었으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높은 수요 대비 지자체에서 관련한 자원 마련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 또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저렴한 금리를 가진 (1인가구 세대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등) 여러 주거 지원 자원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배를 요함

4) 경제 : 가구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 지원

■ 관악구 1인가구 소득 및 특성별맞춤형 경제활동 지원정책 발굴 필요

- 1인가구의 생활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현금성지원보다는 연령층 수요에 맞춰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경우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 제공과, 노년층의 경우 실질적으로 은퇴 후 가구소득이 줄어들거나 소득 창출이 불가능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제공 사업, 일자리 지원사업'(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현재 관악구 및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도, 수요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함.

5) 문화 및 사회적 관계 (고립·고독의 탈출을 통한 관계 자립) 지원

■ 사회적 활동을 통한 관계망 형성으로 고립·고독 해소방안 지원

- 다양하고 느슨한 지지체계 구축은 1인가구가 가지는 불안감과 고립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보다 다양한 지지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1인가구의 경우 사회적 모임을 선택할 시 모임의 주제와 방향성(30.7%), 비용(27.7%)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관련하여 1인가구의 연령층이 젊을수록 '활동 프로그램' 수요가 높았던 반면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소모임', '프로그램 정보제공' 수요가 높아져 연령층에 따른 수요에 맞춰 사회적 관계망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설계 과정에서 연령별 정책적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1인가구 정보교류 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연령층의 수요가 있었으며, 그 중 중장년층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는데, 민간차원에서의 플랫폼 형성에는 한계요인이 존재하므로 공공차원에서 접근 및 형성해야 하는 요인으로 판단됨.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커뮤니티가 있을 경우 공감대나 상호 정보 교류가 더 활발한 점에서 소모임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 시 연령층에 대한 안배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사회적관계망 분야의 지원사업 1순위로는 성별, 연령, 지역과 상관없이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1인가구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조모임 활동, 맞춤형 상담 운영)'에 대한 수요가 과반 이상 또는 과반에 가까운 높은 수요를 보이므로 1인가구 지원센터 사업의 확대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6) 프로그램 : 1인가구의 연령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

■ 새로운 프로그램 확충보다 기존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편 및 홍보 강화가 필요

- 1인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관악구의 시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접근성(프로그램 장소, 대면/비대면 여부, 정보 등), 비용, 프로그램 내용 불만족 등으로 도출되었고, 시설 이용 경험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연령층에서 이용빈도가 높은 반면 젊은층은 이용 경험률이 다소 낮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젊은층(청년층,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체력증진 (호신술, 필라테스 등), 재무 설계(돈 관리, 노후준비 등)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 및 개편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정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또는 프로그램 기획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시간 변동, 1인가구 수요를 반영한 주제 변경 등의 개편을 통해 1인가구 문화·여가적 측면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반적으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도출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정보 접근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부록.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D



관악구 1인가구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주)마인더맵에서는 관악구의 의뢰를 받아 관악구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1인가구가 또 하나의 대표적인 가족 구성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악구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욕구를 파악하여 1인가구 정책수요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상 비밀이 보장되며, 답변하신 내용은 정책수립 및 사업발굴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 9

발주기관: 관악구 복지정책과 (02-879-5841)

조사수행기관: (주)마인더맵 (02-6380-0399)

■ 조사표 기입 요령

- ❖ 각 항목별로 **응답항목에** ○, √표 하거나, **숫자를 기입**해주시시오.
- ❖ 응답항목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괄호()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기입해주시시오.
- ❖ 본 조사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입니다.

관 악 구 청 (복지정책과)

A 일반현황

SQ1. 귀하의 가구 일반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개인특성에 대하여 응답해주시시오.

1)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 령	만 ____세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3) 거주지역	① 보라매동 ② 은천동 ③ 성현동 ④ 중앙동 ⑤ 청림동 ⑥ 행운동 ⑦ 청룡동 ⑧ 낙성대동 ⑨ 인현동 ⑩ 남현동 ⑪ 신림동 ⑫ 신사동 ⑬ 조원동 ⑭ 미성동 ⑮ 난곡동 ⑯ 남향동 ⑰ 서원동 ⑱ 신원동 ⑲ 서림동 ⑳ 삼성동 ㉑ 대학동
4) 혼인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⑥ 기타()

문항	응답
5) 자녀유무	① 있다 ② 없다
6) 최종학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4년제 미만) ⑥ 대학(4년제 이상) 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7) 주택유형	①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② 아파트 ③ 오피스텔 ④ 다세대주택(빌라) ⑤ 반지하 ⑥ 고시원/원룸 ⑦ 비거주지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⑧ 기타()
8) 건강보험 가입여부	① 직장가입자 ② 직장가입 피부양자 ③ 지역가입자 ④ 지역가입 세대원 ⑤ 미가입(의료급여 1종, 2종) ⑥ 미가입(국가유공자 무료진료)
9) 월평균 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10) 반려동물	① 있다 ② 없다

■ 개인생활

A1. 귀하께서는 혼자 생활하기 시작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약 ____년 ____개월)

A2. 귀하께서 혼자 생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 ①__ 직장, 학교와의 거리 ②__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③__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④__ 함께 살던 가족구성원의 이민, 이사, 독립
⑤__ 가족과의 불화 ⑥__ 개인적 편의 및 자유
⑦__ 기타()

A3. 귀하께서는 혼자 사시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__ 매우 만족 ②__ 만족 ③__ 보통 ④__ 불만족 ⑤__ 매우 불만족

A4. 귀하께서 혼자 사시는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 ①__ 전혀 불편하지 않음 ②__ 별로 불편하지 않음 ③__ 보통
④__ 약간 불편함 ⑤__ 매우 불편함

A4-1.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평소 얼마나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힘들지 않음	별로 힘들지 않음	보통	약간 힘들	매우 힘들
1) 경제적 어려움 (소득액·지출액·저축의 변화 등)	①	②	③	④	⑤
2) 안전에 대한 우려	①	②	③	④	⑤
3) 외로움	①	②	③	④	⑤
4) 노후·임종에 대한 염려	①	②	③	④	⑤
5) 일상생활의 어려움(식사 등)	①	②	③	④	⑤
6) 집안일(청소,장보기,세탁 등)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7) 주거관리·수리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8) 위급상황에 대한 우려	①	②	③	④	⑤
9) 비 동거가족에 대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10) 1인 가구에 대한 편견	①	②	③	④	⑤

C5-2. 참여하셨던 일자리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경제적 도움 정도	①	②	③	④	⑤
2) 근무 강도	①	②	③	④	⑤
3) 근무 시간	①	②	③	④	⑤

(→응답 후 C6으로 이동)

C5-3.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__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 | ②__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 |
| ③__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 | ④__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 |
| ⑤__ 근로시간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 | ⑥__ 개인시간 활용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 |
| ⑦__ 나의 교육수준이나 기술수준과 맞지 않기 때문 | ⑧__ 다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 |
| ⑨__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⑩__ 기타() |

C6. 귀하께서는 1인 가구를 위한 경제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__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제도)
- ②__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 제공
- ③__ 구직활동 중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
- ④__ 사회보장제도 개선
- ⑤__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 ⑥__ 기타()

B7. 다음은 관악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 및 일자리 분야의 주요 지원사업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사업중 확대 및 강화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SH공사 맞춤형 임대주택을 1인가구를 위해 공급
- ② 관악구 일자리센터 운영: 1인가구 구직 상담, 알선, 관리를 통한 구민의 일자리 창출
- ③ 청년소상공인 한끼나눔 지역상생 프로젝트: 청년 소상공인이 제조한 도시락을 취약계층 1인가구에게 제공
- ④ 청년주거 기초교육: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 수준 향상 및 자기관리 능력 함양 제공
- ⑤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지원: 청년 1인가구에게 역세권 민간 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지원
- ⑥ 재난취약 홀몸어르신 가구 안전점검 실시: 안전 취약 거주 노인 1인가구 주거지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 ⑦ 장애인 1인가구 주거 편의 지원: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 1인가구 주거편의지원
- ⑧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1인가구 맞춤형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및 분쟁조정상담 제공
- ⑨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신체 건강(식생활/운동)

E1. 귀하는 아래의 내용을 얼마나 자주 느꼈습니까?

	거의 매일	주 3~4회	주 1~2회	월 1~2회	느끼지 않음
1)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함	①	②	③	④	⑤
2) 가족의 부재	①	②	③	④	⑤
3)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운동시간 부족	①	②	③	④	⑤
5) 피로감 및 건강이상 증세	①	②	③	④	⑤

E2. 귀하께서는 식사를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①__ 식당 ②__ 배달음식 ③__ 간편식(라면, 인스턴트 식품, 편의점 음식 등)
 ④__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 ⑤__ 반찬가게 등 반조리(밀키트)·조리된 음식
 ⑥__ 기타()

E3. 귀하께서 식사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__ 비용 ②__ 소요 시간 ③__ 맛
 ④__ 영양소 ⑤__ 접근성 ⑥__ 기타()

E4. 귀하께서 생각하는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__ 조리시간 ②__ 비용 ③__ 마트, 식당 거리가 멀어서
 ④__ 요리에 자신이 없어서 ⑤__ 기타() ⑥__ 어렵지 않음

E5. 귀하께서는 평소에 운동을 얼마나 하십니까?

- ①__ 거의 매일 ②__ 일주일에 3~4번 ③__ 일주일에 1~2번
 ④__ 2주일에 1~2번 ⑤__ 1개월에 1~2번 ⑥__ 거의 안함

E5-1. 귀하께서 운동할 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①__ 가격 ②__ 접근성 ③__ 동행유무(단체운동 또는 개인운동)
 ④__ 난이도 ⑤__ 흥미 ⑥__ 기타()

E6. 귀하께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신체 건강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__ 균형잡힌 영양 섭취 먹거리 환경 조성
 ②__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필라테스, 요가 등)
 ③__ 1인가구 건강 챌린지 프로그램(러닝크루, 플로깅 등)
 ④__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⑤__ 건강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
 ⑥__ 1인가구 대상 돌봄서비스 강화
 ⑦__ 기타()

F 사회적 관계망

F1. 귀하께서는 고민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복수응답)

- ①__ 스스로 해결 ②__ 부모 ③__ 형제·자매 ④__ 자녀
 ⑤__ 친구 ⑥__ 애인 ⑦__ 직장(학교) 동료 및 선·후배 ⑧__ 친척
 ⑨__ 가까운 이웃 ⑩__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⑪__ 전문상담사(심리치료사, 정신과의사) ⑫__ 기타() ⑬__ 없음

F2. 귀하께서는 가족이나 친구와 얼마나 자주 소통하십니까?

구 분		거의 매일	주 1~2회	월 1~2회	년 1~2회	거의 안함	없음
직접만남	1) 부모	①	②	③	④	⑤	⑥
	2)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⑥
	3) 자녀	①	②	③	④	⑤	⑥
	4) 친구	①	②	③	④	⑤	⑥
전화 또는 문자 연락	5) 부모	①	②	③	④	⑤	⑥
	6)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⑥
	7) 자녀	①	②	③	④	⑤	⑥
	8) 친구	①	②	③	④	⑤	⑥

F2-1. (F2에 ④,⑤,⑥ 응답자만) 자주 소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 : ____), (형제자매 : ____), (자녀 : ____), (친구 : ____)

- ①__ 부재(돌아가심 등), 없음 ②__ 연락두절 ③__ 갈등이 심해서
 ④__ 경제적 이유 ⑤__ 기타()

F3. 귀하께서 지난 1년간 활동했던 사회단체나 모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 ①__ 동창모임 ②__ 지역사회모임(반상회/부녀회/청년회/문중모임 등)
 ③__ 여가모임(취미 및 스포츠 등) ④__ 정치단체 ⑤__ 이익단체(노조, 의사회, 약사회 등)
 ⑥__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⑦__ 종교단체
 ⑧__ 기타() ⑨__ 없음

F4. 귀하께서는 관악구 내에 1인 가구 간 정보교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__ 매우 필요함 ②__ 다소 필요함 ③__ 보통 ④__ 다소 불필요함 ⑤__ 매우 불필요함

F5. 귀하께서 새로운 사회적 모임에 들어갈 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 ①__ 모임의 주제와 방향성 ②__ 비용 ③__ 접근성
 ④__ 모임원(사람) ⑤__ 모임 규모(인원 수) ⑥__ 기타()

F6. 귀하께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문화 및 사회적 지원체계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__ 소모임 지원 ②__ 커뮤니티 공간
 ③__ 프로그램 정보 제공 ④__ 활동 프로그램(스포츠, 여행, 체험, 나눔활동)
 ⑤__ 문화예술 프로그램(미술, 음악, 어학, 인문학, DIY 등) ⑥__ 반려동·식물 기르기 프로그램
 ⑦__ AI수다서비스(인공지능 생활정보, 말벗서비스 제공) ⑧__ 1인 가구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⑨__ 기타()

F7. 다음은 관악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 분야의 주요 지원사업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사업 중 확대 및 강화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1인가구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조모임 활동, 맞춤형 상담 운영
- ② “나혼자산다” 콘텐츠 제작 및 홍보: 1인가구 지원사업과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SNS로 올려 홍보
- ③ 관악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운영: 청년 수요에 맞는 종합생활상담 지원체계 구축
- ④ 관악청년청 운영: 청년 활동 및 청년 공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년 종합활동 공간 조성
- ⑤ 청년 1인가구 커뮤니티교실 운영: 청년들의 삶의 방향성 재설정 기회 제공 및 소외 문제 해소
- ⑥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 ⑦ 공유주방 ‘인헌愛부엌’: 지역 내 나눔, 공유문화 확산 및 취약계층 식생활 안정 도모

G 프로그램

G1. 다음 중 이용경험이 있는 공공시설은 어디입니까?

	이용경험 있다	이용경험 없다
1)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	①	②
2) 평생학습관(관악구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①	②
3) 복지관(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①	②
4) 체육시설(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배드민턴장 등)	①	②
5) 문화시설(갤러리관악, 호림박물관, 관악산공원 등)	①	②
6) 관악구정신건강복지센터, 기억키움센터	①	②
7) 취업지원센터(일자리센터, 벤처창업센터, 자활센터 등)	①	②
8) 소통공간(싱글빙글 사랑방, 관악청년청, 구립경로당 등)	①	②
9) 기타()	①	②

G1-1. “관악구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__ 심리상담(개인·집단상담)
- ②__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
- ③__ 자조모임(동호회) 지원
- ④__ 기타()

G2.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정책 정보를 주로 얻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__ 서울시 1인가구 포털
- ②__ 구청 홈페이지 및 SNS
- ③__ 뉴스 및 기사
- ④__ 커뮤니티
- ⑤__ 지인
- ⑥__ 기타()

G3.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이용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__ 비용
- ②__ 접근성(프로그램 장소, 대면/비대면 여부 등)
- ③__ 프로그램 내용
- ④__ 프로그램 기간, 회차
- ⑤__ 기타()

H5. 마지막으로 관악구 1인 가구의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개선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답변해주세요요.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을 가운데 서면 혹은 면대면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현금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은 1시간 내로 진행될 것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의 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연구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휴대전화 번호 기재 필수)

- ①__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다.
- ②__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겠다.

- ◆활용 예정 고객정보 내용: 성명/핸드폰번호
- ◆고객정보 활용업체: (주)마인더맵
- ◆고객정보 활용 담당자: 이태우 책임연구원 (02-6380-0399)
- 개인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함' 응답하신 분은 아래에 성명/핸드폰 번호를 기재해주세요요

응답자 성명			
핸드폰 번호			
인터뷰 가능(희망)시간	평일 오전 <input type="checkbox"/>	평일 오후 <input type="checkbox"/>	
	주말 오전 <input type="checkbox"/>	주말 오후 <input type="checkbox"/>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사원 작성란	조사원 성명	조사 장소	조사 일시	감독관 확인
			2023년__월__일	

관악구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주관기관

관악구

제출일

2023. 12.

수행기관

(주)마인더맵
